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연구기관, KINU

북한·통일 전략정보체계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KINU 연구총서 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 민 | 김 혁 | 차문석 | 황주희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연구책임자

홍 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문석(국립통일교육원 명예교수)

황주희(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KINU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북한통일 전략정보체계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KINU 연구총서 23-27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저자 홍민, 김혁, 차문석, 황주희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ISBN 979-11-6589-169-5 93340
가격 9,500원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차례

요약	11
----	----

Chapter I

수행적 도시 평양의 도시레짐과 다이어그램 홍 민	21
------------------------------	----

1. 김정은 시대의 도시: 문명화, 도시건설, 이동성	23
2. 정치적 기획으로서 도시건설	25
3. 도시 경관의 스펙터클 창출과 주민 결속 기제	29
4. 건설 이면의 도시정치	30
5. 시장화와 도시의 변화	33
6. 수행적 도시, 평양의 다중성	35
7. '통치'의 경관화, 평양의 다이어그램	39

Chapter II

천리마와 만리마의 공존: 평양 살림집 건설 김 혁	43
-------------------------------	----

1. 연구배경 및 목적	45
2. 평양시 살림집 건설 정책과 제도	48
3.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	51
4. 평양시 살림집 일반건설 현황	67
5. 평양시 살림집건설 주요특징과 종합평가	108

ChapterIII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상업공간 이해 | 황주희 - 113

1. 북한 유통시장 환경의 변화 ————— 115
2. 평양의 상업시설에 대한 이해 ————— 116
3. 『노동신문』을 통한 평양시 상업시설 입지 ————— 120
4. 평양의 상업시설 특징 ————— 134
5. 평양 상업시설의 활성화 종합평가 ————— 139

ChapterIV

평양의 공장과 노동자 공간의 변화 | 차문석 ————— 149

1. 공장 도시, 평양의 윤곽 ————— 153
2. 평양 공장의 통계적 현황 ————— 162
3. 김정은 정권 시기 평양 공장 동향 ————— 171
4. 평양의 노동자 공간: 역사, 게토화, 젠트리피케이션 ————— 179
5. 변화의 방향 ————— 193

참고문헌 ————— 196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03

〈표 I-1〉 평양시 대규모 주택건설 및 거리 조성, 1970~2023년	27
〈표 II-1〉 위성영상 분류기준 및 형태	48
〈표 II-2〉 김정은 집권 이후 완공된 주요 건설대상 현황	65
〈표 II-3〉 김정은 집권 이후 아파트 건설현황(17개 구역 건설동수)	99
〈표 III-1〉 상업시설 종류	119
〈표 III-2〉 『노동신문』에 보도된 구역별 평양 상점 수(2012~2023)	122
〈표 III-3〉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의 직매점(2012~2023)	128
〈표 III-4〉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의 백화점 주요내용(2012~2023) ..	129
〈표 III-5〉 2022년 기준 평양의 공식시장	133
〈표 IV-1〉 국영기업의 지역별 분포	154
〈표 IV-2〉 제조업 기업의 지역별 분포	155
〈표 IV-3〉 전기전자기계공업	164
〈표 IV-4〉 공작기계/탄광광산기계/방직기계 공업	164
〈표 IV-5〉 중기계공업	165
〈표 IV-6〉 섬유피복공업	166
〈표 IV-7〉 신발공업	167
〈표 IV-8〉 식료가공업	168
〈표 IV-9〉 건재공업	169
〈표 IV-10〉 화학 및 제약공업	169
〈표 IV-11〉 평양의 군수공장들	170
〈표 IV-12〉 섬유 의류업 보도 빈도 상위 10개 기업	172
〈표 IV-13〉 식품가공업 보도 빈도 상위 10개 기업	173
〈표 IV-14〉 노동자 거주지 공급의 비공식 구조	187
〈표 IV-15〉 경루동지구와 송화거리 살림집 건설 비교	189

〈그림 Ⅰ-1〉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29
〈그림 Ⅰ-2〉 평양 만경대구역 광복거리 아파트 배치	40
〈그림 Ⅱ-1〉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 위치(위성과학지구 제외)	52
〈그림 Ⅱ-2〉 창전거리 변화모습	54
〈그림 Ⅱ-3〉 은하과학자거리 변화모습	55
〈그림 Ⅱ-4〉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변화모습	56
〈그림 Ⅱ-5〉 미래과학자거리 변화모습	57
〈그림 Ⅱ-6〉 려명거리 변화모습	58
〈그림 Ⅱ-7〉 송화거리 변화모습	59
〈그림 Ⅱ-8〉 경루동800세대 변화모습	61
〈그림 Ⅱ-9〉 대평지구 변화모습	62
〈그림 Ⅱ-10〉 화성지구 1단계 변화모습	63
〈그림 Ⅱ-11〉 평양시 지구별 건설기간 및 건설현황	65
〈그림 Ⅱ-12〉 평양시 중심부 살림집 건설현황	67
〈그림 Ⅱ-13〉 평천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69
〈그림 Ⅱ-14〉 평천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69
〈그림 Ⅱ-15〉 중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71
〈그림 Ⅱ-16〉 중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72
〈그림 Ⅱ-17〉 서성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73
〈그림 Ⅱ-18〉 서성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73
〈그림 Ⅱ-19〉 모란봉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74
〈그림 Ⅱ-20〉 모란봉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75
〈그림 Ⅱ-21〉 형제산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76
〈그림 Ⅱ-22〉 형제산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76

〈그림 Ⅱ-23〉 보통강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77
〈그림 Ⅱ-24〉 보통강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78
〈그림 Ⅱ-25〉 은정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79
〈그림 Ⅱ-26〉 은정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80
〈그림 Ⅱ-27〉 룡성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81
〈그림 Ⅱ-28〉 룡성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81
〈그림 Ⅱ-29〉 대성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82
〈그림 Ⅱ-30〉 대성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83
〈그림 Ⅱ-31〉 사동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84
〈그림 Ⅱ-32〉 사동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85
〈그림 Ⅱ-33〉 삼석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86
〈그림 Ⅱ-34〉 삼석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86
〈그림 Ⅱ-35〉 만경대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87
〈그림 Ⅱ-36〉 만경대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88
〈그림 Ⅱ-37〉 락량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89
〈그림 Ⅱ-38〉 락량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90
〈그림 Ⅱ-39〉 력포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91
〈그림 Ⅱ-40〉 력포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91
〈그림 Ⅱ-41〉 선교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92
〈그림 Ⅱ-42〉 선교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93
〈그림 Ⅱ-43〉 동대원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94
〈그림 Ⅱ-44〉 동대원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94
〈그림 Ⅱ-45〉 대동강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95
〈그림 Ⅱ-46〉 대동강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96
〈그림 Ⅱ-47〉 순안구역 시기별 살림집 건설동향(가구 수)	96
〈그림 Ⅱ-48〉 구역별 농촌마을 건설 현황(가구 수)	98

〈그림 II-49〉 평양시 아파트 건설 총 현황 (단위: 동)	99
〈그림 II-50〉 평양시 구역별 아파트 건설순위	100
〈그림 II-51〉 평양시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단위: 동)	102
〈그림 II-52〉 평양시 구역별 고층 아파트 건설현황	103
〈그림 II-53〉 평양시 구역별 건설부지 특징	104
〈그림 II-54〉 평양시 건설 중인 구역별 부지 특징	105
〈그림 II-55〉 평양시 구역별 아파트 총 건설동수 및 완공 추이	105
〈그림 II-56〉 2011~2023 구역별 일반건설 소요기간(년)	106
〈그림 II-57〉 평양시 시기별 아파트건설 추이	107
〈그림 III-1〉 『노동신문』 평양 상점 보도 빈도(2012~2023)	121
〈그림 III-2〉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 상점의 구역별 포지션 (2012~2023)	123
〈그림 III-3〉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 상점의 네트워크 그래프 (Network Graph)(2012~2023)	124
〈그림 III-4〉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 상점의 입지(2012~2023)	125
〈그림 III-5〉 연도별(2012~2023) 상점 Top 10 보도현황	126
〈그림 III-6〉 평양 백화점 입지(2012~2023)	131
〈그림 III-7〉 평양시 주요시장 분포	132
〈그림 III-8〉 송화거리에 새롭게 생긴 상점 내부	136
〈그림 IV-1〉 선교리 공장지대와 6.25전쟁 시기의 폭파된 공장 모습	158
〈그림 IV-2〉 1960년대 평양시의 중심-준위성-위성도시권 계획	159
〈그림 IV-3〉 평양의 산업시설 분포도(일제시기-1956년-현재)	160
〈그림 IV-4〉 현재 평양의 중공업공장 분포	161
〈그림 IV-5〉 현재 평양의 경공업공장 분포	162
〈그림 IV-6〉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양의 주요 선전 활동 거점	176
〈그림 IV-7〉 평양의 일반적인 주택 소구역 체제	181

〈그림 IV-8〉 1960년대 후반 평양의 용도지구지역도 및 주요 소구역의 위치	182
〈그림 IV-9〉 1950~60년대 건설된 북한의 주요 주택 소구역 경과	183
〈그림 IV-10〉 송화거리 80층 살림집	189
〈그림 IV-11〉 만경대구역 대평거리 살림집	192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 두드러진 통치 코드 중 하나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문명화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건설’은 문명화를 가장 스펙터클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고 도시를 그 오브제(object)로 본 것이다. 김정은은 2012년 본격 집권 이전부터 건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1990년대 경제난이라는 낙후와 퇴행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김정은은 국가 이미지를 일신하려는 욕망을 도시에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가 주도의 건설 붐 조성은 통치 차원의 의도가 가장 크지만, 사회경제적인 여러 파급영향을 가져왔다. 시장이 건설 붐 속에서 활성화되었고 주민들의 주택 욕구가 분출하였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성을 증가시켰다. 시장과 건설이 결합하는 일련의 과정은 도시 전반의 하드웨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산과 상업망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도시의 변화를 도시정치, 아파트 건설, 상업 및 공장 입지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건설정치가 가장 강렬하게 투사된 평양에 주목했다. 우선 평양을 대상으로 김정은 주도의 건설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통치 차원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북한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둘째,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 살림집 건설 동향과 특징을 분석했다.

소위 김정은 건설정치의 상징인 ‘살림집’ 건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 보았다. 대상건설과 일반건설을 구분해 건설 역량에서 나타난 집중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지구 및 구역에 따라 살림집 형태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평양 살림집 건설은 김정은 체제의 ‘위민정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설정치 사업으로 주요 대상건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적 건설역량을 집중해 빠른 기간 안에 조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외형적 성과와 달리 장기간 준공을 미루거나, 마감재 부족, 내부 건재공업의 한계에 따른 질적인 문제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양시의 살림집 건설은 인구 밀집을 분산시키고 위성도시 건설을 통해 평양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점, 위성도시가 평양의 핵심 교통망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건설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외형적 건설과 달리 그에 따른 교통편의, 운수산업, 문화체육, 예술공간, 생활편의, 인프라(상하수도, 전력망, 생활용에너지 등)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 제약의 극복이라는 수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

세 번째로 김정은 시대 평양시의 상업시설의 종류와 입지특성, 상권을 분석하고자 했다. 시장을 제도 내로 포섭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유통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는 기존의 시장 중심 연구에서 국영상점을 포함한 상업시설까지 포괄하는 연구로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상업 중 사회공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평양시의 사회주의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유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합시장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국영상업망이 일정 부분 회복되는 추세가 관찰돼 주목이 필요하다. 노동신문 보도로 파악해 보면, 평양시 안에만 200여 개의 국영상점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 유통업 분야에서 직접적인 시장 경제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국이 직접 대형 유통업에 진출하고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통해 유통시설을 신설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생산 공급기능

정상화, 국산품의 질제고, 국영상점의 판매방식 개선, 체인상점 도입, 상점 운영 전산화, 상점의 현대화 전략 등을 통해서 국영상점을 부활시키고 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시장에서 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종합시장과 국영상점은 경쟁적 구도로 운영되었는데, 김정은 시기의 국영상점은 현대화, 고급화 전략으로 종합시장과는 차별화된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국영상업의 부활은 공장, 기업소, 상점의 가동비율을 높이면서 기업 이익금, 사회보험료, 토지사용료 등의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양의 공장·기업소 입지와 생산, 노동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평양은 북한의 그 어느 도시보다, 그리고 동시대 다른 국가들의 도시에 비해 월등하게 공장이 많이 소재하는 ‘공장 도시’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미 평양은 군수산업을 비롯하여 중공업이 많이 들어섰고 이로 인하여 철도를 비롯한 도시 기간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졌다. 6.25전쟁 이후에도 공장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을 신속히 복구한 정책 결과로 평양은 여전히 공장 도시의 면모를 유지해 왔다.

여기서는 첫째, 평양과 공장이 그 인연을 맺게 되는 시점부터 평양의 공장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현재 공장 도시 평양이라는 용어가 유효한지 아니면 변질되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공장 공간에 대한 당국의 계획적 배려 현황(재정, 가동상황 등)을 통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셋째, 공장과 노동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공장 공간과 노동자 공간을 연결시켜 살펴본다. 평양의 공장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은 현재 공장과 관련하여 어떤 삶에 봉착해 있는지를 노동자 공간(거주지 등)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넷째,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적으로 계획된 ‘공장 도시로서의 평양’이 현재 어떤 변화의 압박에 직면해 있는지 그 윤곽을 다소간 시험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주요 키워드: 평양, 수행적 도시, 도시정치, 살림집, 상업공간, 공장



Urban Politics and Spatial Structure of Pyongyang

Hong, min et al.

One of the noticeable governing codes of North Korea since Kim Jong-un's rise to power has been building civilized cities which align with "global trends." 'Construction' is the most spectacular means of displaying civilization, and a city is viewed as the object of such display. Kim Jong-un has consistently pursued a policy that prioritizes construction since before he took power in 2010. As if to make up for the years of backwardness and regression caused by the economic hardships of the 1990s, Kim Jong-un seems to have projected his desire to revitalize the country's image onto cities. While this state-led construction boom is primarily for governance purposes, it has had a number of socioeconomic ramifications. Markets have been revitalized by the construction boom, the residents' housing needs piqued, and the residents' mobility increased. The confluence of market and construction led to certain changes not only in terms of the hardware of the city

as a whole, but also in the existing production and commercial network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s of North Korean cities since Kim Jong-un took power in terms of urban politics, apartment construction, and commercial and factory locations. To this end, it focused on Pyongyang, where Kim's construction politics was most intensely projected onto. First, it examined how Kim Jong-un's construction politics has been implemented, what his intentions are in terms of governance, and what changes it brought to the North Korean society.

Second, it analyzed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Pyongyang's private home construction since Kim Jong-un took power. It examined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construction of '*Sallimjip* (private homes),' a symbol of Kim Jong-un's construction politics. By distinguishing between targeted and general construction, it aim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 concentration of construction capacity and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form of private homes across districts and zones. The study found that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s in Pyongyang is a representative project of Kim Jong-un's 'people's politics,' which focuses on targeted construction and concentrating national construction capabilities to carry it out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despite the apparent achievements, qualitative problems due to prolonged delays in completion, lack of finishing materials, and limitations in the interior building industry are presumed to exist.

In addition, despite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Pyongyang, the effectiveness of urban construction is evident in that it expands Pyongyang outwards by decentralizing the population and building satellite cities, and the expansion of satellite cities is connected to the key transportation networks in Pyongyang. However, despite the actual construction, numerous challenges remain in overcoming the constraints of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industry, culture, sports, art space, convenience of living, and infrastructure (water and sewage, power grid, household energy, etc.).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of commercial facilities, characteristics of location, and commercial districts in Pyongyang during the Kim Jong-un era. The aim i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retail market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un, which is being incorporated into the system. It is significant to broaden the horizon of research from market-centered studies to include commercial facilities including state-owned stores. The study focused on socialist commercial facilities in Pyongyang, which are socialist commercial enterprises that is responsible for supply and sales within the society.

While the official market has been known to account for the largest share of North Korea's retail business, the study found that the state-owned store networks showed some signs of recovery.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Rodong Sinmun*, there

are more than 200 state-owned stores operating in Pyongyang alone. This suggests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emerging and establishing themselves as direct actors of the market economy in the retail sector. The authorities are directly entering into large-scale distribution and establishing new distribution facilities through joint ventures with foreign countrie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expanding the scope of official economic activities of the domestic market by promoting the use of cards and reviving state-owned stores through strategies aimed at normalizing production and supply functions, improving the quality of domestic products, improving the sales methods of state-owned stores, introducing franchise stores, computerizing store operations, and modernizing stores. In the past, the general market and state-owned stores competed against each other, but under Kim Jong-un, state-owned stores have been modernized and upgraded to serve as a consumer culture distinct from the general market. The revival of state-owned businesses seems to be playing a role in increasing government revenues from enterprise profits,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land use fees by increasing the utilization rate of factories, businesses, and stores.

Finally, it aspired to understand the location of factories and enterprises in Pyongyang, as well as the production and labor conditions. Pyongyang can be considered a “factory city,” that has much more factories than any other cities in

North Korea and in the world.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Pyongyang has been home to heavy industries, including the arms industry,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many urban facilities, including railroads. Even after the Korean War, Pyongyang continued to remain as a factory city as a result of policies that supported rapid restoration of factory facilities and urban infrastructure.

Here, the history of factories in Pyongyang from the beginning of the city's association with factories and the spaces in which they were located will be examined. Second, whether the validity of the term "factory city" has been retained will be examined. This will be reviewed through the current state of the authorities' plans and considerations (fiscial or operational situation, etc.) for factory spaces. Third, factories and workers are inextricably link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nection between spaces for factories and spaces for workers. The lives of the workers of Pyongyang's factories will be examined based on changes made to spaces for workers (such as housing). Fourth, by doing so, this study hopes to reveal the pressure for change that the socialist 'factory city', the planned city of Pyongyang is currently receiving.

Keywords: Pyongyang, performative city, urban politics, *Sallimjip*, commercial space, factory

I. 수행적 도시 평양의 도시레짐과 다이어그램

홍민 (통일연구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수행적 도시 평양의 도시레짐과 다이어그램^{1/}

1. 김정은 시대의 도시: 문명화, 도시건설, 이동성

북한 김정은 당 총비서의 도시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다. 2010년 본격 집권 이전부터 ‘평양 10만호 건설사업’과 도시 미화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의 1호 사업은 도시건설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집권 이후 그의 도시에 대한 인식 코드는 ‘문명화’, ‘도시건설’, ‘이동성(mobility)’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2년 신년사에 처음 등장한 ‘사회주의문명국’이란 용어는 생활, 정신, 문화와 도시건설에서 ‘선진적 문명강국’을 세운다는 의미로 선전됐다.^{2/} 쉽게 말해 ‘문명화’는 곧 사람들의 행동, 생활, 그리고 도시의 후진성을 시각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에서 ‘건설’은 문명화를 가장 스펙터클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오브제(objet)가 됐다.

1/ 본 장은 2023년 12월 12일 ‘2023년 KINU 북한도시포럼’에서 발표한 “수행적 도시 평양의 도시레짐과 다이어그램들”을 수정, 보완한 내용이다.

2/ 홍민 외,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통일연구원 KINU Insight No. 2, 2021,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12478/1/%5b%ec%9b%90%ea%b3%a0%5d%20KINU%20Insight%2021-02%20ea%b9%80%ec%a0%95%ec%9d%80%20%ec%8b%9c%eb%8c%80%20%ec%a3%bc%ec%9a%94%20%ec%a0%84%eb%9e%b5%c2%b7%ec%a0%95%ec%b1%85%ec%9a%a9%ec%96%b4%20%eb%b6%84%ec%84%9d_%ec%b5%9c%ec%a2%85.pdf> (검색일: 2023.11.30.).

김정은의 ‘건설정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건설은 곧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다.^{3/} 북한은 김정은 시대를 ‘건설의 대번영기, 새로운 문명개화기’로 규정했다.^{4/} 한편 도시 건설의 붐은 이동성을 증가시켰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 철근, 내장재, 인력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건설에 필요한 요소들의 생산과 이동뿐만 아니라 주택의 거래는 이윤의 축적, 자본의 이동, 상품과 정보의 흐름과도 연동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건설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 시장과 정치가 만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가 정책 주도의 ‘건설’은 도시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었다. 기존의 자본이 시장 거래 중심의 ‘상업자본’이 주였다면, 건설이 활성화되면서 건설 투자 및 분양, 건설자재 수입 및 공급, 건설 인력,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윤을 챙기는 건설자본, 부동산자본, 투기자본 등이 생겨났다. 도시를 둘러싼 정치가 ‘건설’과 시장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도시정치(urban politics)’는 주택, 교통, 의료서비스 등과 같이 도시 주민들이 집합적으로 소비하는 수단들에 대한 공급을 두고 국가와 지방 정부의 정책적 갈등, 국가 또는 지방 정부와 주민들과의 갈등,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을 뜻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도시 정치는 국가가 도시의 주택 공급이나 교통시스템 구축, 의료서비스 제공 등과 같이 집단적 소비 수단, 공공의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개입하는지, 이를 둘러싼 여러 주체들의 전술적 행태, 상호작용, 권력관계 등에 관심을 갖는다.^{5/}

3/ “신년사,” 『노동신문』, 2016.1.1.

4/ 홍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도시: 변화와 지속,” 『아시아 브리프』, 2권 48호, 2022.12.5., p. 2, <https://snuac.snu.ac.kr/2015_snuac/wp-content/uploads/2015/07/%EC%95%84%EC%8B%9C%EC%95%84%EB%B8%8C%EB%A6%AC%ED%94%84_1-87.pdf> (검색일: 2023.11.30.); “‘건설이 국력’ ... 북 스카이라인 바꾼 김정은의 ‘도시 사랑,’” 『한겨레』, 2019.4.10.

도시정치의 개념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시스템을 전제로 한 도시를 둘러싼 정치의 다이내믹을 포착하는 것이라면, 이 개념을 북한에 적용할 경우 개념적 변용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 주택의 건설, 공급, 소유, 배정 모두를 국가가 직접 관장한다는 점에서 국가 주도적 정치과정이 도시정치 전반을 주도한다. 이와 관련한 주체들도 제한적 측면을 갖는다.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로비스트, 건설 및 분양업체, 여론조사업체, 지방의회, 도시행정이 등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가 있지만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건설을 결정하는 중앙 지도부의 결정, 도시를 통치의 대상으로 정치적 경관화하는 방식, 지방단위로 하달되는 정치적 과정, 지방단위에서 건설 목표를 채우기 위한 정치적 과정, 건설을 둘러싼 돈주들의 역할 분담, 지방 감독기관과의 정치적 유착 등의 과정은 ‘정치’로 점철돼 있다.

2. 정치적 기획으로서 도시건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현지도도 활동에서 두드러진 것은 도시를 미학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지도자상 구축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에서 대규모 토목 건설, 주택 건설은 정치적 기획 속에서 이뤄졌다. 가령 평양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특정 시기, 일정한 패턴과 주기를 갖고 이뤄졌다. 김일성의 60회(1972), 70회(1982), 80회(1992)회 생일 및 당 창건 5, 10년 등 정주년에 맞춰 이뤄지는 패턴을 보인다. 물론 남북한 체제 경쟁 차원에서 1980년대

5/ Kevin Ward and David Imbroscio, "Urban Polit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5, no. 4 (2011), pp. 853~871.

말 사회주의체제 전환, 한국의 서울올림픽 개최 등에 맞서 북한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목적의 건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과시적 건설도 1992년 통일거리 건설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다. 1990년대 초 발생한 경제난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 구소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원유 수급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비료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상황의 악화로 농업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식량난이 발생했다. 이후 2008년 ‘평양 10만호 건설 사업’은 16년 만에 기획된 대규모 주택 건설이었다. 2008년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물밑에서 김정은으로의 후계과정의 이뤄지던 시기란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있다. 이 건설사업 역시 완공을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맞춰 추진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주택 건설의 ‘붐’을 조성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미 진전돼 있던 시장화와 오랫동안 위축돼 있던 도시의 주택 욕구가 맞물리면서 건설 붐이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이후 북한의 대규모 주택 건설, 거리 조성사업은 핵무기 고도화에 따라 강화된 대북제재의 ‘무용론’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북한체제의 건재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대외적 과시 목적이 강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은 2017년 4월 러명거리 완공식이다. 당시 북한 당국은 외신기자들에게 ‘빅 이벤트’를 예고하고 취재 참석을 홍보한 바 있다. 이날 완공식 행사장엔 김정은이 처음으로 외신 언론 앞에 직접 모습을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행사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로 압박해도 북한체제는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였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핵무기 고도화의 의지, 강력한 리더십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대규모 건설이 기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6/} 물론 대내적 주택 수요를 고려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통치와 대외전략 차원의 정치적 메시지가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평양시 대규모 주택건설 및 거리 조성, 1970~2023년

건설사업명	기간	비고
천리마/서성거리	1970	5, 8, 10, 12, 15층 아파트
비파거리	1971	탐식, 평천식 2~3층 연립주택 *김일성 60회 생일 기념
대통로	1980	20, 30층
창광거리 1단계	1980	
문수거리	1981~1983	*김일성 70회 생일 기념
창광거리 3단계	1984	
버드나무거리	1984	
천리마거리 2단계	1984~1987	
북새거리	1984~1987	
창광거리 2단계	1985	
만경대/동성구역	1988	
순안구역	1988	
광복거리	1985~1989	12~30층
안상택거리	1985~1989	10~30층
광복거리 2단계	1990~1992	*김일성 80회 생일 기념
통일거리	1990~1992	*전승(정전) 40돌 기념
만수대거리	2008	45층 아파트, 13개월 완공
평양 10만호 건설사업 시작(2010)		
창전거리	2012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은하과학자거리	2012.7.~2013.9.	7만 5천 평, 1,000세대, 14개월 소요
김일성대학교육자 살림집	2013	
체육인살림집	2013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014.3.~2014.10.	당 창건일 완공 목표, 11만 7천 평, 24개월, 7개월 소요
김책공대교육자살림집	2014.3.~2014.10.	당 창건일 완공 목표

6/ “자력자강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경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려명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노동신문』, 2017.4.14.; “통일부 “北 여명거리, 체제 결속·건재 과시 의도,” 『연합뉴스』, 2017.4.14.

건설사업명	기간	비고
미래과학자거리	2014.4.~2015.11.	27ha, 19개동, 19개월
려명거리	2016.4.~2017.4.	90ha, 114개동, 12개월 소요, 외신공개
송신·송화지구 살림집	2021.3.~2022.4.	17만 평, 160여동, 고층살림집, 공공기관
경루동 800세대 살림집	2021.3.~2022.4.	보통강다락식주택구, 김일성 5호주택 철거
대평지구 살림집	2021.2.~2023.5.	약 6만 4천 500평, 56개동, 13개월 소요
화성지구1단계 살림집	2022.2.~2023.4.	45만 3천 750평, 총 265개동, 14개월 소요

출처: 홍민,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38을 기반으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을 참고하여 필자 수정·보완.

이런 대규모 주택건설 및 거리조성 기획은 김정은 집권 초반에 해당하는 2012~2017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김정은 주도의 건설이 집권 초반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 성과를 쌓는 주요 기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3년 8개월 사이 대규모 주택 건설, 관광지구 개발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은 중단되거나 공기가 연장되면서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 2016~2017년 강화된 고강도 대북제재로 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경기가 둔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다시 정치적 메시지로 등장한다.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평양 5만 세대 건설 프로젝트’가 발기된다.^{7/} 코로나19, 대북제재, 자연재해 등 ‘3중고’에 직면한 속에서도 대규모 건설을 다시 재개한 것은 인민생활 향상에 힘쓰는 애민주의, 인민친화적 정치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대미 장기전을 선언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자력에 의한 정면돌파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7/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1.1.9.

그림 1-1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출처: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리상이 응축된 인민의 새 거리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테이프를 끊으시었다.” 『노동신문/news1』, 2023.4.17.

3. 도시 경관의 스펙터클 창출과 주민 결속 기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두드러진 통치 코드 중 하나는 ‘세계적 추세’를 쫓는 지도자의 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적 추세’는 문명화된 도시들이 갖는 도시적 세련됨과 현대화된 건축 양식을 좇아 복한 도시의 문명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1990년대 경제난으로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며 낙후와 퇴행으로 점철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나 하려는 듯 김정은은 단번의 도약, 국가 이미지를 일신하려는 욕구를 도시에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일 먼저 추진된 평양국제비행장 건설, 연이어 전개된 대규모 거리 조성, 평양시 구역별 스카이라인 기획, 대동강 수변 경관에 대한 관심, 주요 도시에 입체올동영화관 및 청년 공원 조성, 관광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 건물 조명과 야경의 강조 등은 모두 도시 외관에 대한 지도자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다.^{8/}

거리 조성 및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대내 결속의 차원과도 연결된다.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아파트 건설 관련 보도는 극적인 형식으로 묘사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완공 목표를 당 창건일이나 김일성 탄생일에 맞춰 설정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설 서사(construction narrative)를 구축해 왔다. 통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촉박한 공사 기간에 각계에서 동원된 인력이 압축적으로 완공을 이뤄내는 과정을 서사적 구조로 보도함으로써 기념일의 상징성을 높이고 완공을 향한 결속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방식이다. 국가적, 전 사회적 관심 테마로 연일 모든 매체가 건설 현장의 미담을 보도하고 지도자의 현장 방문 사진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마치 한편의 건설 드라마를 연출하는 방식이다.

4. 건설 이면의 도시정치

북한 지도부의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은 전국적 건설 붐, 주택 거래 열풍으로 확산됐다. 평양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추진은 북한 주요 도시에서의 주택 건설 추진에 대한 당국의 호의적 승인, 인가 분위기를 만들었다. 각 도의 당조직과 행정조직은 지도부로부터 하달되는 주택 건설 목표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크게 중앙의 기획과 목표 할당에 따른 건설 기획, 민간 자본이 건설 및 분양 이익을 챙기기 위한 기획

8/ 홍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도시: 변화와 지속,” p. 3; 홍민, “북한의 도시 변화,” 한반도 인프라포럼 Webzine, vol. 12, 2023.12.12., <https://kpif.or.kr/webzine/2023_12_m02_1/> (검색일: 2023.12.15.).

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기획되고 할당된 건설의 경우, 해당 지방의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브로커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건설에 참여할 물주(자본)를 모집하여 건설 승인을 내주고 건설 목표량을 채우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건설된 아파트의 일부만 국가 명의로 하고 나머지는 건설에 투자한 물주들이 분양하여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지방당과 인민위원회 입장에서선 중앙에서 하달한 목표량을 달성하는 성과를 챙기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다.

다른 하나는 민간의 물주들이 연합하여 지방 당기관과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설 허가권을 받아내 추진하는 건설이다. 건설 부지는 지방 행정기관을 통해 공장이나 기업소 노동자 주택 용도로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자재, 인력, 시멘트, 강재 등 건설에 필요한 요소들을 각각 물주들이 담당하고 도의 건설 감독기관의 승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낸다. 건설 시작과 함께 부동산 브로커들을 통해 분양이 이뤄진다. 주택에서 일부 명의만 해당 명의의 공장·기업소에 두고 나머지는 투자 물주들이 분양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런 국가 또는 민간 주도의 아파트 건설은 국가(지방) 승인, 민간 자본, 건설자재업자, 부동산 브로커 등의 연계된 ‘건설이익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나 지방 당국은 건설 성과, 민간자본은 투자 수익, 건설자재업자는 판매 수익, 부동산 브로커는 중계 수익 등을 챙기면서 상호 윈-윈하는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런 구도가 일반화되면서 전국적 건설 붐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건설 붐은 시장 활성화, 시장 네트워크의 확장과도 연동돼 있다. 건설 붐은 관련 자재, 인력, 시멘트, 철근, 인테리어, 배관 등을 공급하는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2017년 고강도 대북제재로 건설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가기 전까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건설사업은 지도자의

통치 성과 과시, 주민의 주택 수요 부응, 지방 당 및 행정기관의 성과 챙기기, 민간자본 및 건설자재업의 수익 등이 결합된 하나의 도시발전모델로 기능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金正은의 기대와 달리 협상 실패로 끝나면서 대내외 정책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대외적으로 대미 장기전, 대남 배제전략을 채택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 정면돌파 등의 구호가 등장했다. 미국의 협상 자세와 섀범이 변화되기 전까지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을 향한 장기전을 선포한 것이다. 고강도 대북제재의 지속 속에서 지도부의 도시건설 계획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에 평양 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진 대규모 거리 조성이나 아파트 건설에서 평양 외곽이나 지방 도시로 건설지를 대폭 이동시킨 것이다. 일단 평양 중심 구역 내 유희부지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 대미 장기전과 대북제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평양 중심의 대규모 건설로 나타날 수 있는 지방 도시나 농촌의 상대적 박탈감, 불만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방이나 농촌 건설을 강조하는 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애민정치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일단 건설에 필요한 중앙의 재정 지원은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지방 도시나 농촌에 목표량을 부여하고 자체 역량으로 건설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평양 외곽과 지방 도시 및 농촌지역에 할당된 대규모 살림집 건설은 평양의 경우 수도방어군단을 비롯한 평양 인근 주요 부대들의 병력, 지방건설은 지방 주둔 부대 병력이 동원돼 추진되고 있다. 건설 속도와 양적 목표의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산 및 건설 관련 가용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지방 건설 동원, 무기 생산을 위한 군수생산 동원, 인민경제 공장·기업소

가동을 위한 노동력 투입 등 노동행정에서 일정한 제약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9/}

5. 시장화와 도시의 변화^{10/}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는 도시경제 하부구조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도시의 교통망과 운수의 경우 시장 유통의 편리성과 규모에 맞춰 새롭게 정비하고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령 시장 유통이 활발한 도매시장이 위치한 도시들에선 기존 철도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설하여 지역 간 시장을 연결하는 운송체계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규모화는 현상이 발견된다. 쉽게 말해 도시 간 시장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강화된 것이다. 가령 평성시의 경우 평성역의 역사를 리모델링 및 확장하여 이용객의 규모에 맞게 편리성을 제고했다.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대중시설의 증설, 역전과 도시 내 시장을 연결하는 무궤도차 및 버스 시설의 증설 등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11/} 이런 변화만큼 사람과 물자 이동의 신속성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시장의 상품 흐름과 수요에 부응해 정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력부문 역시 시장 활동 수준에 맞게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시장 활동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자구적으로 소규모 전력시설을 갖추는가 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시장과 연계된 기업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 공급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9/ 홍민, “북한의 도시 변화.”

10/ 본 절은 홍민, “북한의 도시 변화”를 수정·보완하여 집필하였다.

11/ Google Earth Pro 위성지도를 참조하여 필자 분석.

두고 있다. 국가의 기업 전력공급은 결국 시장 활동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와도 맞물려 있다. 통신 역시 시장화의 중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상점 소액 거래의 전자결제 시스템, 핸드폰을 통한 상거래 및 시장 정보 공유가 두드러진다. 통신은 시장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작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둘째, 기업의 생산과 시장의 유통·소비 사이의 상호 연계성이 보다 강화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 활동과 시장 활동 사이의 연결성이 강해져 양자를 과거와 같이 계획과 시장 차원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기업의 상품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와 시장의 유통 네트워크가 서로 연계 및 교차하면서 큰 흐름에서 보면 시장 교환의 영역 안에서 하나의 시스템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장·기업소 생산물의 도시시장으로의 유입, 시장 네트워크를 통한 공장·기업소 필요 물자의 구매 등 양방향적인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시에 입지한 산업시장은 공장·기업소에서 생산한 기계 및 장비, 부품, 부속 등을 기업 간, 기업과 시장 간 거래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셋째, 시장이 도시의 공간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경우다. 상품, 정보, 기술 등이 이동하는 시장 동선이 발달하면서 도시시장 입지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령 북한 당국이 허가한 종합시장의 입지가 과거에는 도심 변두리나 도심 도로에서 이격된 장소에 주로 위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2017년 이후 도시의 정치행정기구가 밀집해 있는 도심으로 점차 이동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과거 시장 활동이 비사회주의적 현상, 부끄러운 행위로 간주되었다면, 이제 시장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

12/ 홍민 외,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 15.

인 영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 당국 입장에서 재정을 확충하는 주요 수입원이 됐다. 이제 시장 접근성이 주택 거래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에 가까울수록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인프라 개선 및 주택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소재지급의 중대형 도시에서는 전통적인 공업지구를 상업지구화하거나 신규 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3/}

지난 30여 년에 걸친 시장화, 도시 공간 변화는 도시성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과거부터 오랫동안 국가 정책에 의해 전형적인 중화학공업 도시로 육성됐던 도시가 시장화를 통해 점차 경공업 및 시장 유통 중심의 도시로 변화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령 청진시의 경우 과거 1960~1970년대 천리마시대 제강, 조선, 화학, 섬유 등 중화학공업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1990년대 이후 경공업 및 시장 유통이 활발한 도시로 변모했다. 북한 당국의 청진시 개발계획의 방향도 국제비즈니스, 관광, 물류, IT, 경공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실상 전통적인 도시성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6. 수행적 도시, 평양의 다중성

‘수행적 도시’(performative urban)는 필자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수행성’ 개념을 도시이론 차원에서 재구성하여 만들었던 새로운 개념이다.^{14/} 버틀러의 수행성은 젠더가 고정된 어떤 질서나 구조로 존재하는 ‘명사’가 아니라 각 행위자의 수행을 통

13/ 홍민·차문석·김혁,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2).

14/ 홍민, “역사적 다양체로서 사회주의 도시의 이해,” 북한도시사연구팀,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연구방법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p. 43.

해 나타나는 효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이런 수행성(performativity)^{15/} 개념은 페미니즘 논의 이외에도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활용, 재개념화됐다. 특히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Actor-Networ Theory: ANT)에서 수행성 개념을 확장적으로 사용한다. ANT는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속성이 결합하면서 제3의 행위성이 발현되는 것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링이라고 본다. 이런 네트워크링이 단단해지고 안정화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일상화, 상식화, 표준화되는 것과 같다. 내부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하나의 사물, 상식, 표준으로 단순화되는 ‘접힘’(folding)을 ‘블랙 박스화’(black boxing), ‘번역’(translation)라고 설명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국가나 도시에 투영하면, 국가는 기구, 제도, 담론, 인물 등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네트워킹, 번역되고 수행되어지는 동사적 행위로 볼 수 있다. ANT 논자들은 어떻게 여러 인간 또는 비인간 행위자들이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상식, 표준, 구호 아래 모여 있게 되는가를 묻는다.^{16/} 하나로 단일체로 표상되는 국가는 사실 여러 인간-비인간 행위자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강화하는 과정, 즉 ‘번역의 행위’로 점철된 수행적 현실인 것이다.^{17/} 그것은 다른 행

15/ 버틀러의 수행성은 페미니즘 논의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연극성이나 연행성, 혹은 연기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젠더가 무대 위에서 배우의 연기처럼 언제나 행위로 있는 가변적인 구성물임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수행성은 연극적 행위라는 의미도 있지만, 언어학에서 행동의 효과를 갖는 언어, 즉 수행문과도 관련된다. 조현준,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p. 11.

16/ Michel Callon and Bruno Latour, “Unscrewing the big Leviathan: How actors macro-structure reality and how sociologists help them do so,” in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 eds. K. Knorr Cerina and A. V. Cicourel (Boston, MA: Routledge, 1981), p. 277.

17/ Michel Callon, “Four models of the dynamics of science,” in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ds. Sheila Jasanoff et al. (Thousand Oaks, CA: Sage, 1995), p. 59.

위자나 세력을 대신하여 말하거나 행하는 권위, 그들을 특정의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상식이나 표준, 법률 만들기과 같은 일련의 ‘번역’ 과정이다. 따라서 국가는 추상적이거나 또는 기구적인 실체,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담론, 제도, 기구, 기술, 과학 등과 같은 무수히 많은 사회-기술적 연결망의 단순화, 압축, 접힘(folding)을 통해 세상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번역하는 수행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18/}

도시도 수행성의 차원에서 인식이 가능하다. 도시를 물리적으로 고정된 실체나 역사적 경험의 퇴적체, 국가 행정의 조직화 등으로 보기보다는 도시를 다양한 시간과 행위성, 세력을 달리하는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부수는 과정, 사회-기술적 네트워킹 차원에서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행적 도시’라는 개념은 도시가 ‘어떤 것이 된 것(is)’이 아니라 ‘행하는(do) 것’, 일련의 행위들이며, 명사가 아니라 동사, ‘존재’(being)가 아니라 ‘행하기’(doing)라고 보는 것이다.^{19/} 도시는 고정된 실재로서 또는 고정된 정체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행의 연속 속에 있는 다중적인 실재들(realities)인 것이다. 따라서 수행적 도시에서 말하는 도시는 도시를 둘러싸고 도시가 어떠해야 한다는 일련의 담론적 투쟁, 정치적 존재 양식·상식·경관을 생산하고 경관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로 구성되며, 다양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힘 관계가 만들어낸 도시에 일정한 레짐(regime)을 의미한다.^{20/}

18/ 홍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북한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2013), pp. 147~148.

19/ 사라 실리 저, 김정경 역,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서울: 엘피, 2007), p. 113, 재인용: 위의 글, p. 148.

20/ 홍민, “역사적 다양체로서 사회주의 도시의 이해,” p.18.

그러나 도시의 수행성이 단순히 특정 세력의 단단한 네트워크, 번역의 결과로서 일방향적인 권력 수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특정 세력이 의도한 공간 장악이라는 전략적 장치가 구현된 세계로만 보지 않는다. 수행성 안에는 늘 차이와 재전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상식과 표준을 따르나 실제 일상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직면한 상황에 맞는 재전유로 점철된 과정이기도 하다.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상식과 표준을 비틀거나 교묘하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전유(re-appropriation)는 같은 수행문을 따라 읽지만 악센트와 음조, 속도와 강약, 강조 등을 통해 수행자가 텍스트를 재전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의 정치 또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21/} 권력의 가시성 차원에서 도시에 대한 거대한 획일화, 감시화라는 도시성이 한쪽에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그런 획일화된 도시를 걸으며 끊임없이 도시를 개개인의 사적 경험과 실천으로 재전유하며 온전히 권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일상의 도시성이 있다.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들 도시성이 공존하는 과정을 ‘수행성’ 차원에서 포착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르차(Alexei Yurchak)이 소비에트 일상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데올로기적 진술이 갖는 ‘의미’와 ‘행위’ 차원의 이중성, 이 둘의 상호 구성적 관계가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shift)을 갖는다고 보듯이 사회주의 도시는 의미와 행위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수행되는 것이다.^{22/}

21/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4), pp. xiv~xv.

22/ Alexei Yurchak,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 29, 재인용: 홍민,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120.

7. ‘통치’의 경관화, 평양의 다이어그램

평양은 ‘도시정치’의 중심에 있다. 도시 경관을 통치 차원에서 조형해 내는 일종의 경관 정치다. 김정은 집권 이후 ‘대동강 르네상스’라 부를 만큼 평양 중심부에 고층의 아파트, 놀이시설, 운동시설, 고급식당들이 들어섰다. 선전의 차원에선 주민들을 위한 애민으로 포장하지만, 통치 차원의 전시적 도시 경관 조성이다. 일종의 ‘통치의 경관화’로 볼 수 있다. 이 경관화 속에는 일정한 형태적 다이어그램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건설에서 그 형태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자본주의 도시와 비교하면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본주의 도시는 도시의 구획과 면적을 설정하고 그 공간을 건축물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조성한다. 대체로 아파트 경계를 구분하는 펜스가 쳐지고 주거 블록이 만들어진다. 블록 안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상가가 입주한다.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고 외부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한다. 반면 평양의 아파트는 전통적으로 ‘거리’를 축으로 배열된다. 거리 축을 따라 아파트 건물이 늘어서고 중간중간 보행자를 위한 골목길이 놓여진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쉽게 발견되는 경계나 블록은 설치되지 않는다. 보행자들과 거주자들은 아파트 건물과 그 사이에 조성된 골목길 사이로 보행할 수 있다. 누구나 아파트 건물 사이를 흘러가듯 걸어 갈 수 있다. 물론 시기별로 조성 양식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거리 조성 디자인에 따라 건물 입면을 통해 표현하는 리듬감, 입체감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조성은 면적이 아니라 거리의 축을 통해 흐름을 만드는 패턴이다.

그림 1-2 평양 만경대구역 광복거리 아파트 배치



출처: LH제공 평양시 3D 지도

단순화하면, 평양 아파트 조성의 형태적 특징은 열린 개방성에 있다. 자본주의 도시가 면적 중심이라면, 평양은 거리 축선에 따라 보행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심을 둔다. 이런 차이는 공간과 토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면적 중심의 ‘채움’ 방식은 토지 소유를 중심에 놓는 사고, 소위 자본의 토지화 논리에 있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토지나 건축은 토지 가격, 획득할 지대 중심으로 발생된다. 단위 면적당 최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차원이다.

반면 북한에서 도시의 토지와 건축물은 국가를 통해 통제·관리된다. 특히 평양시는 최고지도자가 직접 토지이용을 관리한다. 도시계획은 작은 변화조차도 지도부의 승인 사항이다. 소위 말하는 지도자의 ‘결심’과 ‘방침’ 없이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하다. 쉽게 비교하면 지대 수익의 관점이 아니라 지도자의 통치상의 필요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평양 안에서 이뤄지는 거리 조성 and 건축은 통치자가 자신의 통치 성과를 드러내는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 자신의 통치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구현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미학적으로 관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텍스트와 같다. 도시 진입로 처리, 입면의 역동성, 스카이라인의 ‘리듬’과 ‘입체성’ 등에 각별한 관심과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철저하게 도시를 얼마나 잘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통치자의 관점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 건설은 ‘수직적 고층화’, ‘수평적 입체화’, ‘확장적 재개발’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최대한 높이 올리면서 수평적으로 단조롭지 않게 입체감을 부여한다. 또한 중심구역의 제한성에서 벗어나 외곽 낙후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시가지를 확장하는 일련의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도시 건설은 도시 조형이란 측면에서 시각적 쾌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관 조성은 통치자의 관점에서 도시를 미학적으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가시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거주 주민들의 다기한 삶의 영역을 고려한 생활건축적 다양성은 들어설 곳이 없다. 한편 거리 축을 중심으로 보행의 편리와 흐름을 만들어 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개인의 사적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골목과 블록,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속을 경험하는 개개인의 사적 공간 전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해 통치자는 도시를 최대한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시성의 영역으로 조형해 내려하지만, 정작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사적 영역은 위축되고 사라지게 된다. 통치자의 가시성 속에서 정작 개인이 안주할 공간은 사라지는 것이다. 통치 차원의 스펙터클한 조망, 기념비적 연출 속에서 도시 주민과 보행자들은 거대한 건축적 오브제 속에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다.

결국 도시를 건설을 통해 조형한다는 것은 누구의 관점에 스케일화 되느냐의 문제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도시 자체를 통치의 결과로 조형하려는 도시스케일의 차원이지만, 정작 인간 개개인의 삶의 영역이 존중되는 휴먼스케일에 대한 고려는 미약하다.

Ⅱ. 천리마와 만리마의 공존: 평양 살림집 건설

김 혁 (농어촌연구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천리마와 만리마의 공존: 평양 살림집 건설^{23/}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북한은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문명한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강조하고 평양을 선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건설에 필요한 건설인력,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 국가적 건설역량을 집중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 살림집 건설”은 김정일의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유훈관철을 위한 창전거리 사업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 2012년 창전거리 완공 후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평양시 대규모 살림집 건설 성과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평양 살림집 건설은 2010년대를 지나 202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확대되어 나타난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 동안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제시^{24/}하고

^{23/} 본 장은 2023년 12월 12일 ‘2023 KINU 북한도시포럼’에서 발표한 “천리마와 만리마의 공존: 평양 살림집 건설”을 수정, 보완한 내용이다.

^{24/}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이를 관철하기 위해 1년에 1만 세대 살림집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2021년 5개년계획 달성을 위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송신-송화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 화성지구 1단계, 경루동, 대평지구 준공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현재 서포지구와 화성지구 2단계 건설이 추진 중에 있다.

김정은 체제의 평양 살림집 건설은 북한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주민들을 결집시키는 대표적인 “건설정치”이다. 특히 살림집 건설은 김정은 체제의 위민정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정치 사업이다. 평양시 건설 사업을 통해 수도 시민들에게는 특수성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다수의 북한주민에게는 부러움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11년간 추진된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체제 건설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의 살림집 건설 동향은 주요 건설대상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다수의 일반 살림집 건설 동향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 살림집 건설 동향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건설정치 성과와 한계를 전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평양시 주요 거리 및 살림집 건설 정책 방향과 제도를 검토해 살림집 건설의 주체에 대한 기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서 나타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1.1.9.

나는 주요 건설대상과 달리 다수의 비계획적 형태의 파편화된 살림집 건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둘째, 평양시 살림집 건설 동향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대규모로 조성되는 살림집 건설현황을 주요 건설대상으로, 그 외의 건설을 일반건설로 구분해 접근할 것이다. 그 이유는 위성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국가적 건설 역량이 집중된 사업대상지역과 건설역량이 드러나지 않는 단편적이고 비계획적인 일반건설을 나누어 살펴보면, 건설기간, 건설규모 등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구별, 구역별 특성에 따른 살림집 형태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구별 특징, 구역별 특성에 따라 평양시 내에서도 그 위상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른 공간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평양시 살림집 건설 동향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건설정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다.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의 살림집 건설을 대상으로 한다. 평양시의 살림집 건설범위는 크게 2010년대를 1기로, 2020년대를 2기로 나누어 볼 것이다. 1기의 경우 특정분야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 관심이 발현된 건설이 대부분인 반면, 2기의 경우 평양시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시사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방법은 1차적으로 『노동신문』, 『오늘의 조선』,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등 북한에서 생산되고 공개된 1차 자료와 평양 살림집 건설 관련 연구자료(2차 자료)를 검토한다. 그리고 검토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위성영상(Google Earth Pro)을 활용해 주요 건설대상을 검증한다. 특히 일반건설은 문헌에서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음의 <표 II-1>과 같은 분류기준을 설정해 접근함으로써 본 연구의 질을 제고한다.

표 II-1 위성영상 분류기준 및 형태

조사 대상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완공된 살림집 추적
조사영상 및 기간	Google Earth Pro, 2000~2023.4.16.
층수 구분	단층
	저층(5층 이하)
	중층(6~10층)
	고층(11~20층)
건축 구분	초고층(21층 이상)
	신축(거주지 외 부지, 거주지 내의 사업소부지, 공터일 경우)
	재건(건설부지의 기존용도가 거주지일 경우)
	개축(기존건물 증축일 경우)
건설 상태	착공
	완공
	신증(신축중)
	재증(재건축중)
동수 구분	개증(개축중)
	지붕의 공유, 착공당시 건물 기초의 분리 유무로 구분

주: 주요 건설대상은 영상분류기준 및 형태를 따르지 않고 북한이 발표내용을 검토 후 분류 및 적용
출처: 필자 작성.

2. 평양시 살림집 건설 정책과 제도

가. 김정은 체제의 주체건축사상과 건설정책

2013년 건설부문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 강습회에서 김정은의 서한을 통해 등장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은 인민의 지향과 요구, 인민 편의,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체성을 견지한 조건에서의 민족성

과 현대성을 결합해 세계적 수준을 증가하고 백년대계를 보장하는 것이 주체건축사상의 핵심이다.^{25/}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건설정책을 ‘사회주의건설의 대변영기’로 규정하고 건설역량을 집중해 짧은 기간에 건설성과를 보여준다는 전략이다. 즉 김정은 체제의 건설정책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사회가 ‘문명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실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대표적인 정치 사업이다. 특히 발전의 실체를 건설 분야에서 인민대중이 공감하고 인민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살림집 건설로 삼은 것에서 정치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북한은 ‘문명한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강조하고 평양을 건설사업의 중심, 전국의 모범사례, 북한 주민이 미래에 겪게 될 선경도시로 강조한다. 즉 평양 살림집 건설은 북한 주민들에게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경도시이며, 계획도시로 주체건축(민족, 사상예술성)의 핵심이 표현된 선진적인 대상인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건설정책은 살림집 건설의 변화와 마주하게 된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살림집 건설은 일률적이고 통일적인 양식을 지향했다. 다시 말해 대로변을 따라 조성된 아파트, 그 사이에 가려진 단층집(하모니카집)들과 일률적이고 제한된 건축양식, 낮은 층수의 아파트가 대표적이었다면, 김정은 체제의 살림집은 현대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건축양식과 함께 높은 층수를 보여주는 정치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25/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은 2013년 김정은 위원장이 제1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2022년 제2차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재차 강조되었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노동신문』, 2013.12.7.;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발전을 선도해나가자: 제2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노동신문』, 2022.2.8.

나. 평양시 건설제도와 건설의 특징

평양시 건설은 기본적으로 중앙(내각 산하 평양건설위원회) 건설과 지방(평양시 인민위원회) 건설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차원에서 추진되는 건설은 국가경제발전계획으로 수립된 평양시 주요 건설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건설은 그밖에 평양에 필요한 살림집 수요에 따라 평양시 인민위원회 산하 건설지도국이 주도하는 건설이다.

평양시관리법 7조는 평양시를 기본적으로 중심구역과 주변구역으로 나누며, 중심지역은 만수대를 기준으로 하고 주변지역은 중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보호지대는 중심지역을 보호하고 주민의 문화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경영, 교통, 농업생산시설과 농촌마을을 제외한 새로운 대상을 배치 및 건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10조). 평양시관리법 11조 위성도시 건설은 인구집중을 조절하고 경제, 사회적 봉사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며, 12조의 농촌지역은 도시의 수요공급을 위한 농축산물생산기지, 보장기지로 세분화하고 있다.^{26/}

평양시 건설 총계획은 내각의 승인을, 위성도시건설 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14조)하고, 살림집 건설은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살림집 수요에 맞게 건설을 계획적으로 보장(17조), 중심지역에 건설하는 중요대상의 건설명시서와 건설허가는 내각이(평양건설위원회), 그 밖의 건설대상의 건설명시서와 건설허가는 해당 건설감독기관(평양시 인민위원회)이 하도록 규정(18조)하고 있다.^{27/}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 (서울: 국가정보원, 2022), p. 184.

27/ 위의 책, p. 187.

평양시관리법에 나타난 살림집 건설 내용을 종합해보면 2008년 제시된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창전거리),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중시 정책에 따른 살림집 건설, 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 5만 세대 살림집 건설대상은 모두 위성도시 건설로써 당이 제시한 결정에 내각의 건설허가에 따라 중앙건설역량이 집중되는 대상이며, 이외 확인되는 살림집 건설은 평양시 인민위원회가 주도하는 위원회 산하의 소규모 건설역량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양시 건설에서도 기본적으로 중앙건설과 지방건설의 건설역량에 따라 건설규모와 범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평양시 살림집 건설을 주요 건설대상과 일반건설로 나누어 접근함으로써 건설의 주체에 따라 건설성차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평양시 살림집 건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28/}

가.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과 대상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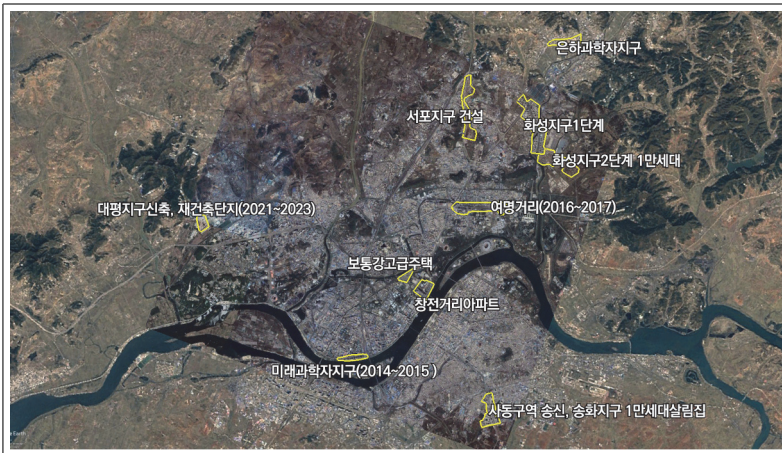
(1) 주요 건설대상 범위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상건설’을 말한다. 여기서 ‘대상건설’은 “국가경제발전계획기간 달성해야 할 종합건설 목표에 포함된 개별적, 연도별 건설목표”를 의미한다.^{29/} 평양시 살

^{28/} 본 절은 『노동신문』 및 구글 어스 프로(Google Earth Pro) 위성분석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외의 참고자료는 별도의 각주로 표기하였다.

림집 주요 건설대상은 2009년부터 추진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창전거리계획), 2012년 김정은 집권 후 과학기술중시 정책에 따라 추진된 과학자 살림집과 과학자거리 건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2021~2025)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포함된다.

그림 II-1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 위치(위성과학지구 제외)



출처: Google Earth Pro. 필자 편집.

(2) 주요 건설대상 의미

평양시 살림집 주요 건설대상은 북한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경도시, 계획도시라는 점에서 건설정치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상건설은 대규모로 조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살림집 건설에 대한 유훈관철(창전거리)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따른 과학자 주거안정화를 위한 살림집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과거 북

29/ 조선의 오늘, “조선말대사전,” <https://dprktoday.com/kor_dic/index.php?page=1> (검색일: 2023. 8. 20.).

한사회에 팽배하던 ‘인텔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변화이다. 이후 2020년대 들어서면서 살림집 건설이 그동안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위성 도시 건설로 추진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나.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별 현황

(1) 창전거리 살림집

창전거리는 중구역 만수동과 경상동으로 이어지는 거리에 조성된 건설사업으로 2008년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건설역량의 분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하다가^{30/} 2011년 5월 착공해 2012년 6월 20일 완공^{31/}되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먼저 조성된 평양시 살림집이다.

창전거리 전체 개발부지 규모는 약 24.5ha(약 7만 4,112평), 총 살림집 규모는 14개동으로 초고층(45층) 3개동, 고층 11개동(35층 2개동, 30층 2개동, 25층 1개동, 20층 4개동, 14층 2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약 3만 명(가구평균 4.5인 기준, 약 6,660세대)^{32/}이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 건설기간은 13개월로 파악되었다.

30/ 2008년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로 2009년부터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 2동, 도제동, 정오동, 동산동과 형제산구역 서포2동, 만경대구역 등 여러 지구의 대규모 중층, 고층형 살림집건설이 착공되었으나, 건설에 지지부진하면서 건설목표를 2만5천세대로 축소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평양 미래 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창전거리,” <https://nkinfo.unikorea.go.kr/nkp/knownldg/view/knownldg.do?jsessionid=g-1hY1ycWBIWBb9LJIE7ec3fCUivKDFxBs5zdyS_ins22?menuId=NK_KNWLDG_DICARY&knownldgNo=167> (검색일: 2023.10.9.).

31/ “北, 만수대지구 창전거리 준공식 거행,” 『통일뉴스』, 2012.6.21.

32/ “북한판 재개발 ‘창전거리’ 완공,” 『KBS』, 2012.6.30.

그림 11-2 창전거리 변화모습



출처: Gogogle Earth Pro; “세월이 갈수록 절절해지는 그리움,” 『노동신문/news1』, 2020.12.13.

(2) 은하과학자거리 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는 룡성구역 은하동 위치한 김정은 집권 이후 착공한 평양시 첫 대규모 살림집 건설 사업으로 2012년 7월경 착공해 2013년 9월 11일 완공했다. 은하과학자거리 살림집은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이 반영된 첫 사례인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방문하고 수백 세대 규모에서 1,000세대로 키울 것을 직접 지시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지역이다.^{33/}

은하과학자거리 건설부지 전체 면적은 24.8ha(약 7만 5천 평), 총 건설동수는 7층 높이의 21개동이 조성되었고, 전체 세대규모는 1,000여 세대^{34/}이며, 건설에 걸린 기간은 총 14개월로 추정된다.

다만, 은하과학자거리 살림집 총 21개동 중 10개동은 2000년부터

33/ 김경호, 『보금자리에 비긴 사랑의 세계』 (평양: 평양출판사, 2022), p. 12.

34/ 평양출판사 편, 『여기가 평양입니다』 (평양: 평양출판사, 2021), p. 67.

착공된 것으로 은하과학자지구 건설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완공된 상태였던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제 은하과학자지구살림집은 김정은 집권 이후 11개동이 새로 건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3 은하과학자거리 변화모습



출처: Google Earth Pro.

(3)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살림집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은정구역 과학동에 위치한 국가과학원 위성과학자들을 위한 주택지구로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두 번째 과학자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3월 5일에 착공해 2014년 10월 17일 완공했다.

건설부지 전체 면적은 38.9ha(약 11만 7천 672평), 높이 7층 규모의 24개동이 건설되었으며, 전체 세대수 규모는 약 1,344세대, 건설 기간은 약 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1-4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변화모습



출처: Google Earth Pro.

(4)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는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2동에 위치한 대동강 호안도를 따라 조성된 주요 건설대상으로 과학기술중시정책에 따른 과학자 주거환경 개선의 3번째 대규모 살림집건설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미래과학자거리는 김책종합대학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으로 2014년 5월, 대동강 호안도로 서쪽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착공을 하였으나, 2015년 2월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호안도로 대동강반까지 2단계를 추가로 건설할 것을 지시하면서 2015년 11월 3일 확장 준공되었다. ‘미래과학자거리’라는 명칭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5/}

미래과학자거리는 전체 부지규모가 27ha(81,675평)에 달하며, 40층에서 53층에 달하는 초고층 살림집 6개동, 12층에서 35층 사이 고층 살림집이 13개동이 구성되어 총 19개동의 살림집이 건설되었다.

그림 II-5 미래과학자거리 변화모습



출처: Google Earth Pro; “수도 평양을 더욱 웅장화하려는 전변시키시는 위대한 령도” 『노동신문 /news1』, 2021.11.23.

(5) 려명거리 살림집

려명거리는 2016년 4월 3일 착공 이후 12개월만인 2017년 4월 13일 완공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3월 중순 건설현장 방문 해 조감도를 보고 미래과학자거리보다 더 높은 초고층 건물을 지을 것을 지시하고 해당 거리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면서^{35/} 려명거리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자료에는 려명거리에 조성된 살림집 건설은 전체 부지 90ha 규모에 40여동의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 신규건설과 70여동의

35/ 김경호, 『보금자리에 비긴 사랑의 세계』, p. 20.

36/ 위의 책, pp. 17~18.

살림집을 개건하는 사업으로 전체 110여동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려졌다.^{37/}

위성영상 분석결과 해당 려명거리 건설지구 규모는 약 60ha(김일성종합대학 일부 부지 제외)에 달하며, 살림집 건설은 70층을 비롯한 초고층 살림집 5개동(40~70층), 고층 66개동(10~35층), 중층 20개동(6~8층)이 건설된 것으로 파악되어 총 91개동(2013년 완공된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2개동 제외)의 살림집이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표한 자료와 위성영상의 분석결과와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살림집 건설에 따라 조성되는 기반시설, 서비스시설, 공공시설의 포함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11-6 려명거리 변화모습



출처: Google Earth Pro; “우리 당이 펼친 건설의 대변영기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숭고한 리념으로 빛난다,” 『노동신문/news1』, 2022.1.18.

37/ 위의 책, p.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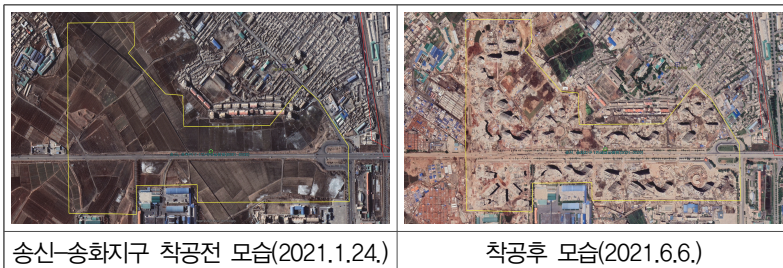
(6) 송신-송화지구 살림집

송신-송화지구 살림집 건설은 김정은 집권 이후 살림집 건설 2기에 해당되는 위성도시 건설이다. 2021년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평양 5만 세대살림집 건설의 1단계로 제8기 2차 전원회의에서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구체화되면서 추진되었으며, 2021년 3월 23일 착공해 2022년 4월 11일 완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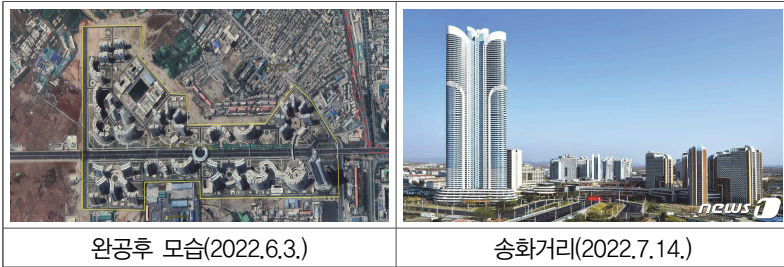
송신-송화지구는 사동구역 송화동과 송신동 사이 위치해있으며, 전체 부지는 약 56ha(약 17만평), 160여 동의 초고층, 고층살림집, 공공건물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80층 초고층 살림집 건설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38/}

위성영상을 통해 조사한 결과 송신, 송화지구 건설면적은 56ha로 공공건물을 제외한 살림집 총수는 106개 동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80층 초고층 1개동, 20~31층까지 96개동, 18~19층 6개동으로 추정된다. 총 건설기간은 1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II-7 송화거리 변화모습



38/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숙원이 떠올린 인민의 리상거리: 송신, 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건설이 훌륭히 완공되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이 빛나게 결속된데 대하여,” 『조선의 오늘』, 2022.4.13.



출처: Google Earth Pro; “인민의 드팀없는 확신: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반드시 훌륭한 실체로 전환된다.” 『노동신문/news1』, 2022.7.14.

(7) 경루동 800세대 살림집

경루동 800세대 살림집은 2021년 3월 착공해 2022년 4월 13일 완공되었다. 2021년 김정은의 지시로 기존의 김일성 ‘5호저택’을 철거하고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 등 언론, 방송, 교육, 과학계 종사자를 위한 보통강다락식주택구를 건설한 것으로 주요 평양 ‘대상건설’로 홍보한다.^{39/}

경루동 800세대 살림집 건설의 전체 개발부지는 약 14ha(약 4만 2천 350평), 10층 이상 고층살림집 9개동, 4층에서 9층 사이 중층, 저층 다락식 복합살림집이 51개동으로 전체 60개동의 살림집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총 건설기간은 1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39/ 김경호, 『보금자리에 비긴 사랑의 세계』, pp. 24~26.

그림 II-8 경루동800세대 변화모습



출처: Google Earth Pro: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루동에 일떠선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구를 돌아보시었다.” 『노동신문/news1』, 2022.4.3.

(8) 대평지구 살림집

대평지구 살림집 건설은 만경대구역 삼흥1동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동안 크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2023년 5월 준공식이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주요 건설대상으로 주목받았다.^{40/}

대평지구 살림집 건설은 2021년 2~3월 사이 평양시 차원의 소규모 건설로 추진된 이후 2022년에 들어서면서 건설사업 규모가 2.5배 이상 확장되고 중앙급 건설지원이 이루어지면서 2023년 5월 21일 완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평지구 전체 건설부지 규모는 약 21.3ha(약 6만 4천 500평), 고층 15개동, 중층 26개동, 저층 15개동으로 총 56개동이 조성되었다. 건설기간은 전체 약 38개월(2020.3.~2023.5.21.)로 추정되며, 건

^{40/} “새시대 평양변영기에 또다시 솟아난 인민의 보금자리,” 『노동신문』, 2023.5.22.

설역량인 집중된 2022년 5월 이후로 계산할 경우 약 13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그림 11-9 대평지구 변화모습



출처: Google Earth Pro; “새시대 평양변영기에 또다시 솟아난 인민의 보금자리,” 『노동신문 /news1』, 2023.5.22.

(9)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

화성지구 1단계 지역은 평양시 화성구역(전 룡성구역)^{41/} 화성1동, 화성2동, 화성3동, 청화1동, 금룡1동에 건설된 1만 2천세대(추가 포함)의 대규모 살림집 건설지구로 도시형성안 1,630여건, 건설역량을 총집중한 대표적인 주요 건설대상이다.^{42/}

화성지구 1단계는 2022년 2월 12일 착공해 2023년 4월 16일 준공했으며, 건설부지 전체 면적은 송화거리의 3배에 가까운 15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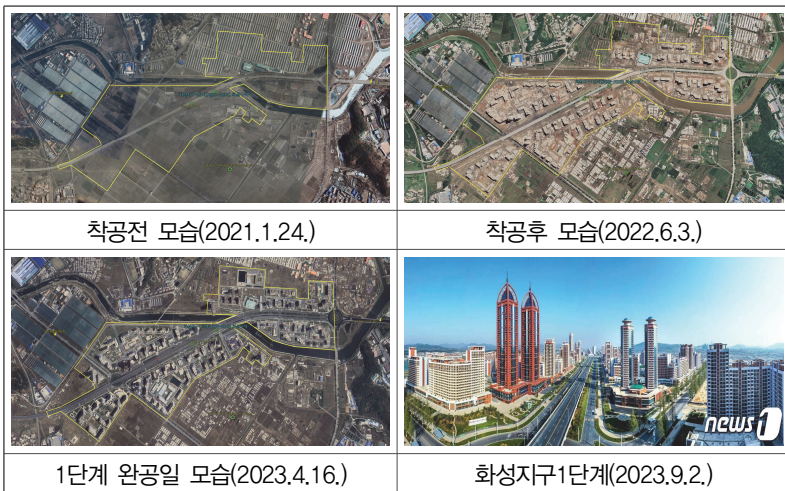
41/ “평양시 화성구역의 거리, 동이름을 정함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3.1.17.

42/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평양변영기에 창조된 또 하나의 건설기적-당중앙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군민건설자들이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건설을 훌륭히 완공한데 대하여,” 『노동신문』, 2023.4.19.

ha(45만 3천 750평)이다. 살림집 층수는 40~60층 초고층 살림집 4개동, 10~35층 고층 살림집 239개동, 6~8층 중층 살림집 25개동 등 총 265개동의 살림집이 건설되었다.

화성지구 1단계는 초기 1만 세대건설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22년 10월 살림집 건설공사 마감단계에서 2,000여 세대의 살림집을 추가로 건설하는 과제가 제시됨에 따라 당초목표와 건설기간이 증가해 총 1만 2,000세대 규모에 건설기간은 14개월이 소요되었다.

그림 II-10 화성지구 1단계 변화모습



출처: Google Earth Pro; “강대한 내 나라 길이길이 빛내가리.” 『노동신문/news1』, 2023.9.2.

다.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 추진성과

(1)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 성과

2010년대 평양시의 대표적인 건설대상은 2012년 창전거리, 2013년 은하과학자거리, 2014년 위성과학자거리,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2017년 려명거리이다. 2010년대 총 건설 부지규모는 205.2ha

(약 62만평), 살림집 총 건설동수는 169개동, 총 건설기간은 65개월, 평균건설기간은 13개월, 총 세대수는 16,388세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이후 대북제재 강화, 2020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5개년계획으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가 수립되면서 저개발, 재개발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건설대상은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2022)을 시작으로 경루동 800세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2022), 대평지구(2023),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 1단계 1만 2,000세대(2023) 건설을 완료하고, 현재 서포지구 새거리와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 중에 있다. 2020년대 총 건설부지는 223.3ha(약 67만5천 평), 살림집 건설규모는 487개동, 총 건설기간은 78개월, 평균 건설기간은 19.5개월, 총 세대수는 2만 4,200세대(5만 세대 건설목표의 48.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현재 주요 건설대상 종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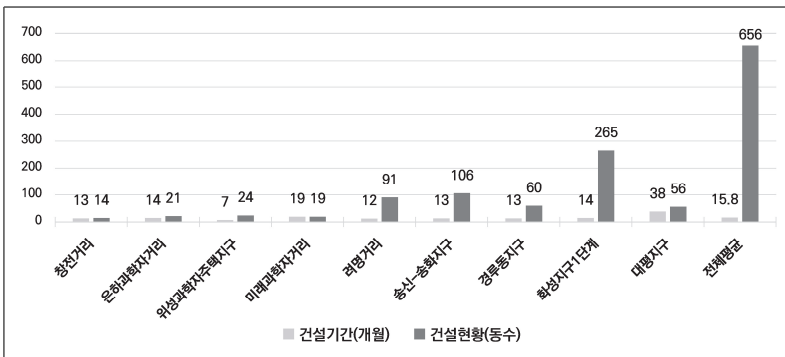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평양시의 주요 건설대상 부지면적은 428.5ha(약 130만평)에 달하고 건설 중에 있는 서포지구(73.3ha), 화성지구 2단계(64.5ha)를 포함할 경우 전체 566.3ha(약 171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완공된 총 살림집 건설 동수는 656개동, 세대수 규모는 약 40,588세대, 건설기간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2 김정은 집권 이후 완공된 주요 건설대상 현황

	지구명	건설기간(개월)	건설현황(동수)	세대수
2011~ 2017	창전거리	13	14	6,660
	은하과학자거리	14	21	1,000
	위성과학자주택지구	7	24	1,344
	미래과학자거리	19	19	2,584
	려명거리	12	91	4,800
소 계		65	169	16,388
2021~ 2023	송산-송화지구	13	106	10,000
	경루동지구	13	60	800
	화성지구1단계	14	265	12,000
	대평지구	38	56	1,400
소 계		78	487	24,200
합 계		143	656	40,588

출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보도 및 Google Earth Pro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필자 작성.

그림 II-11 평양시 지구별 건설기간 및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 살림집 건설이 본격화된 초기 8년(2012~2019)을 평양 살림집 건설 1기, 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본격화 되는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2기로 나누어 보면 1기와 2기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난다. 건설 1기는 그동안 북한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과학자,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경시로 위축된 ‘인텔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살림집 건설정책으로 인텔리의 위상을 높여주고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 2기에는 위성도시를 건설해 평양시 중심지역 인구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소외된 평양 외곽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애민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살림집 건설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양 살림집 건설 1기(2012~2019)에 추진된 건설규모는 169개동, 부지면적 205.2ha에 그치는 반면, 평양 살림집 건설 2기인 현재(2021~현재)까지 3년간 추진된 건설은 487개동, 241.3ha로 건설규모가 2.8배에 달하고 건설속도는 2배가 빨라졌으며, 건설부지 면적은 1.17배로 평양시 살림집 건설이 2020년대 들어와 가속화되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23년 12월 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건설 중인 서포지구에 대해 새로운 동과 거리를 내왔으며, 동은 전위1동, 전위2동으로 구분하고 거리는 모란봉구역 서산 4거리에서 북쪽으로 4.3km 거리인 삼봉다리까지로 규정하는 등 위성도시에 대한 행정단위의 위상을 높여주는 조치들도 함께 추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43/}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평양시 서포지구에 새로 동, 거리를 내움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3.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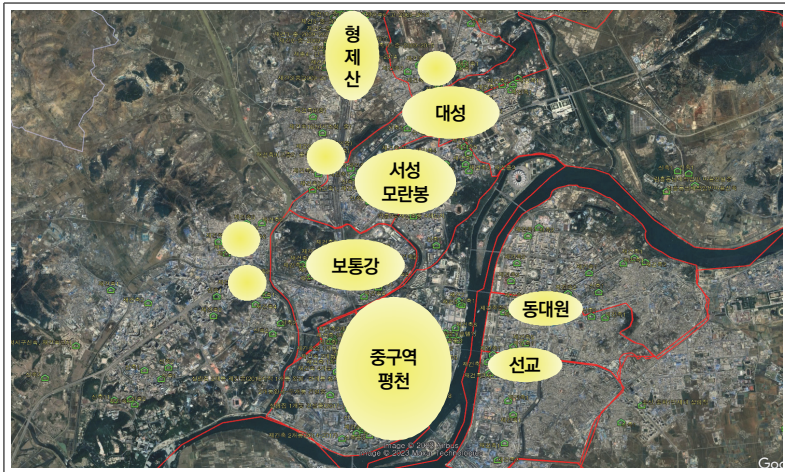
4. 평양시 살림집 일반건설 현황

가. 평양시 일반건설 개요 및 동향^{44/}

(1) 평양시 18개 구역 살림집 건설개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주요 건설대상 이외에 다수의 아파트들이 조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시 18개 구역 살림집 건설은 평양시 인민위원회의 건설역량에 따라 허가되고 추진되는 건설 사업으로 주요 건설대상과 달리 소규모 부지에 소규모 동수가 조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II-12 평양시 중심부 살림집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 필자 편집.

〈그림 II-12〉에서 나타난 것처럼 평양시 전체에 대규모 건설보다는 소규모 건설이 산발적으로 추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

^{44/} 평양시 일반건설 개요는 2023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설위치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요 건설대상과 달리 평양시 자체의 살림집 수요에 따라 건설이 허가되고 자체의 건설역량(평양시 지방공업 공장, 기업소, 건설대대, 보안부 등 인력공급)과 건설주, 돈주의 협력으로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가 추진된 결과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서 상업성이 떨어지는 농촌살림집은 국가 주도의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반건설과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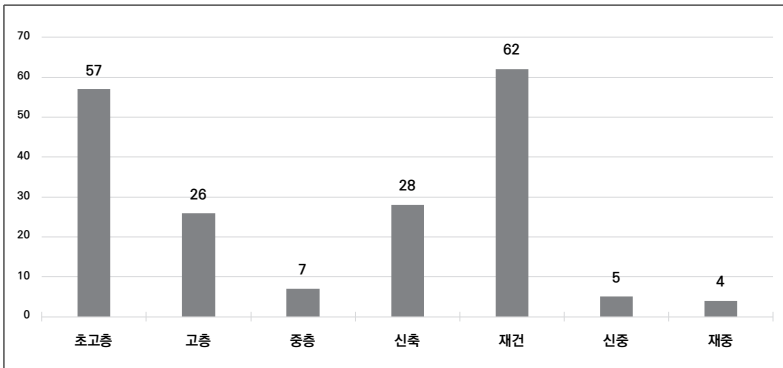
평양시 18개 구역 중 농촌살림집만 조성된 순안구역을 제외한(순안구역과 타 구역의 농촌살림집은 별도정리) 17개 구역의 아파트 건설 동향을 구역별로 나누어 말단행정단위로 접근함으로써 건설대상의 위치, 환경, 산업적 특징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나. 평양시 구역별 아파트 건설현황

(1)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구역은 동쪽은 중구역, 북쪽은 보통강구역, 서쪽은 만경대구역, 남쪽은 대동강과 접해 있으며, 평양시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산업지역으로 평천식료공장, 김정숙제사공장,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조차장 등 주요 공장기업소들이 밀집해 아파트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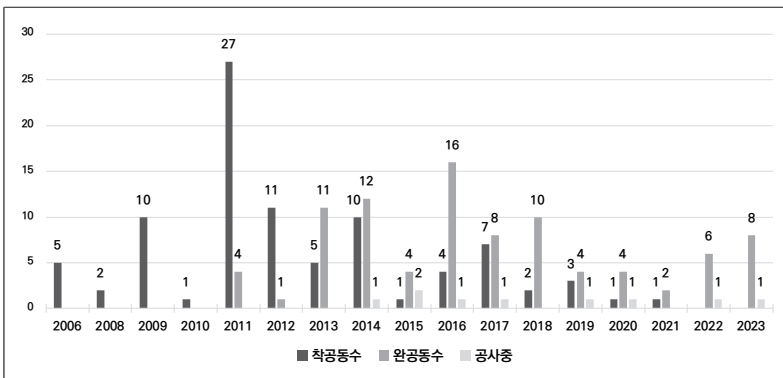
그림 II-13 평천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평천구역 아파트 건설현황을 보면 총 건설동수는 90개동으로 이 중 초고층이 57개동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고층이 26개동, 중층이 7개동이다. 아파트 건설부지는 신축보다 재건축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은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기반하여 주민들의 높은 살림집 수요가 있으며, 이것이 재건축율과 초고층살림집 건설로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14 평천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평천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을 보면 2011년 이후 착공과 완공 동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파트 수요에 따른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평천구역 시기별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2006년 착공해 2011년 완공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착공부터 완공까지 건설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건설의 상당수가 초고층임을 감안할 때 평균 건설기간 4.25년은 건설주들의 집중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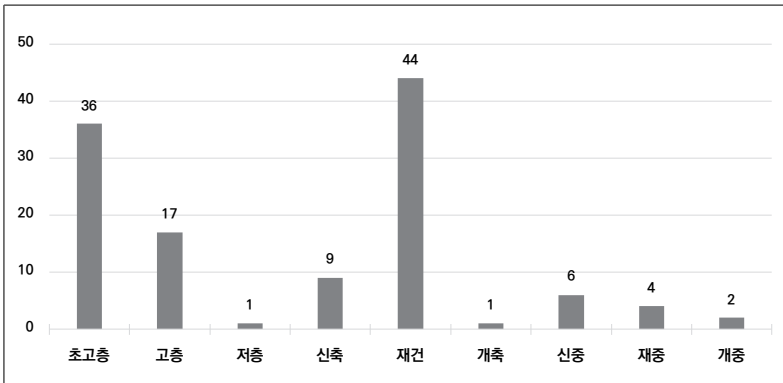
평천구역의 건설은 2014년 평천구역 안산1동 21층 아파트 붕괴사고^{45/} 이후 2015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까지 계속해서 아파트가 완공되었다. 또한, 대북제재 강화, 북미회담 중단, 코로나 19 확산으로 건설동향이 정체되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천구역 아파트 수요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평양시 중구역

평양시 중구역은 북쪽 모란구역, 남쪽 평천구역, 서쪽 보통강구역과 접해 있는 평양의 중심부로 인구밀도가 높고 주요 정치, 행정 등 권력기관들이 집중된 지역이다. 특히 인민극장, 만수대거리, 김일성광장, 평양체육관,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 만수대의사당, 호텔, 은행, 백화점 등 정치, 문화예술, 체육, 서비스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평양을 대표하는 중심지역이다.

45/ “살림집건설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일군들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하고 수도시민들에게 사과,” 『노동신문』, 2014.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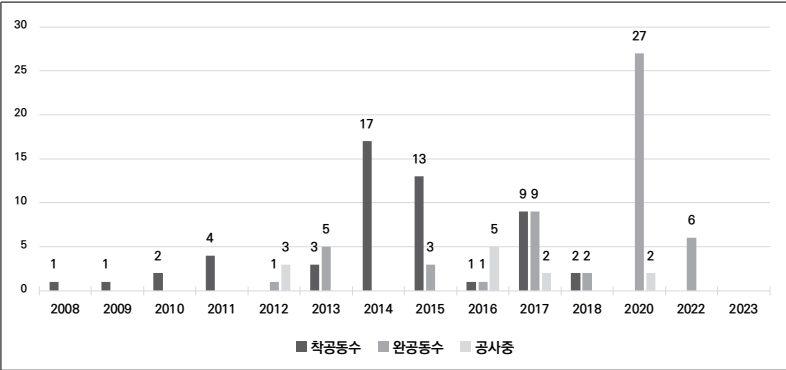
그림 II-15 중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중구역 아파트 건설은 초고층 36개동, 고층 17개동을 포함하여, 총 54개동이 완공되고 12개동이 건설 중에 있다. 건설부지는 일부 기업소 부지에 9개동 아파트를 새로 건설한 것 외 대부분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건설했으나, 개축과 개축 중에 있는 3개동이 확인되어 건축의 질적인 문제도 상존한다. 중구역에서 아파트 건설이 활발한 지역은 역전동, 외성동, 경림동으로 대동강 경관을 따라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다만 그동안 활발했던 살림집 건설동향과 달리 추가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부지나 재건축 대상지구가 부족해 향후 살림집 건설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16 중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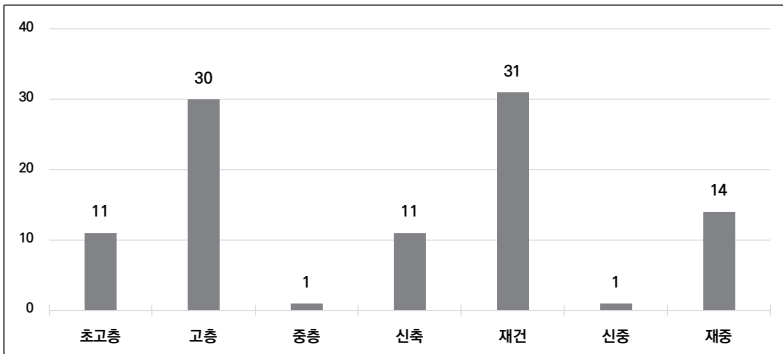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중구역 아파트 건설동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2014년, 2015년, 2017년에 착공수가 높게 나타나고, 2018년 이후 새로운 착공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3.37년으로 평양시 전체에서 가장 빠른 건설기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평양의 중심지인 동시에 정치적 위상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설대상에 대한 제약, 건설부지에 대한 허가문제, 위상에 맞는 어려운 건설조건으로 착공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3) 평양시 서성구역

서성구역은 평양시 모란봉구역 서쪽, 형제산구역 동쪽, 북쪽의 서포지구와 접하고 3대혁명전시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봉화예술극장 등 주요 정치적 상징물과 미래상점, 종합봉사기지,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가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의 살림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고층과 초고층 살림집 건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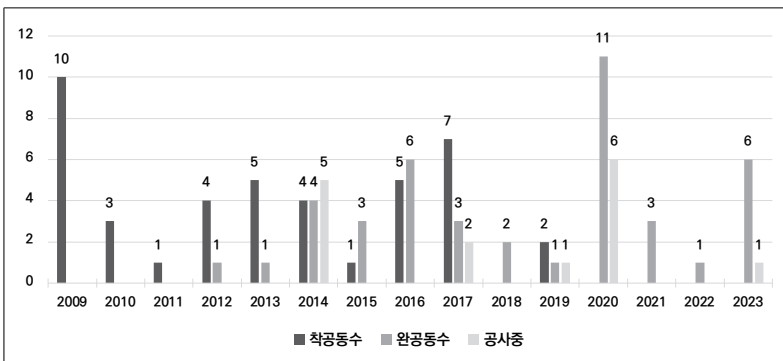
그림 II-17 서성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서성구역 아파트 건설은 총 42개동이 완공되고 15개동이 건설 중에 있다. 완공된 아파트의 층수는 고층 30개동, 초고층 11개동, 중층 1개동으로 구역의 남쪽인 하신동, 중신동, 상흥동, 장산동 지역에 초고층이 집중되어 있으며, 북쪽 장경동 지역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로 건설되었다. 아파트 건설부지는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곳에 재건축하는 모습이 다수 확인되고 신축은 서천동 기업소부지, 북부 화성지구와 접해있는 외곽의 잉여부지에 조성되었다.

그림 II-18 서성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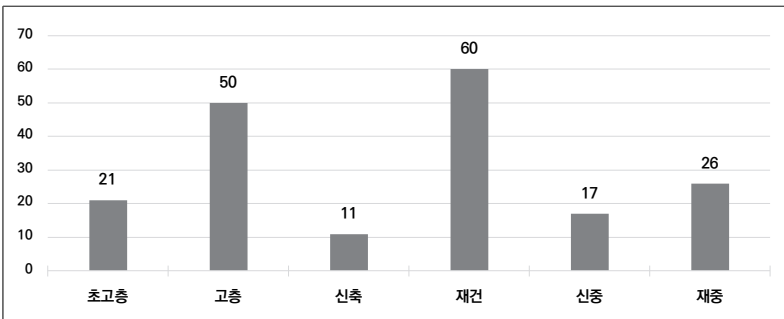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서성구역의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에서 착공 동수는 특정시기에 집중되기보다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완공 동수도 김정은 집권 이후 계속해서 확인된다. 초고층보다는 고층이 다수를 차지해 건설기간이 4.73년으로 길지 않으며, 2019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이후 중구역과 마찬가지로 착공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정채된 건설을 완공하거나 건설 중인 모습이 최근까지 확인된다.

(4) 평양시 모란봉구역

모란봉구역은 남쪽으로는 보통강구역, 북쪽으로 대성구역, 서쪽으로 서성구역과 접해있으며, 천리마동상, 개선문, 김일성경기장, 인민군교예극장, 4.25문화회관 등 사회, 문화 시설과 조중우의탑, 중국대사관이 위치해 지리적 위상이 높은 지역에 포함된다.

그림 11-19 모란봉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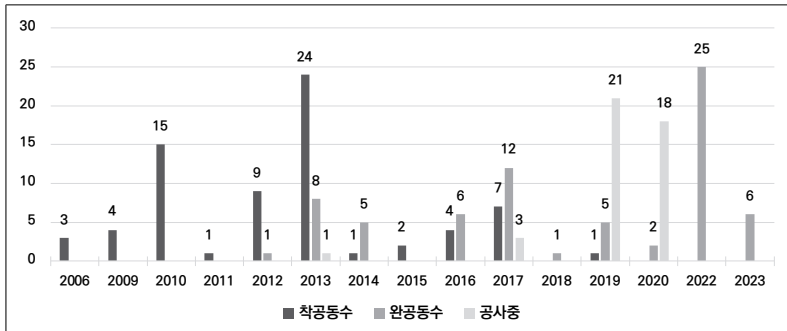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모란봉구역 아파트 건설현황을 보면 고층 50개동, 초고층 21개동으로 총 71개동이 건설되었고, 저층이나, 단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축기반은 전체 71개동 중 60개동이 재건축으로 노후화된 저층, 중층 아파트들을 허물고 고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공사도 전체 43개동이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아파트 공사가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은 모란봉구역 인흥1, 2동 지역으로 전체 건설의 2/3가 해당 지역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20 모란봉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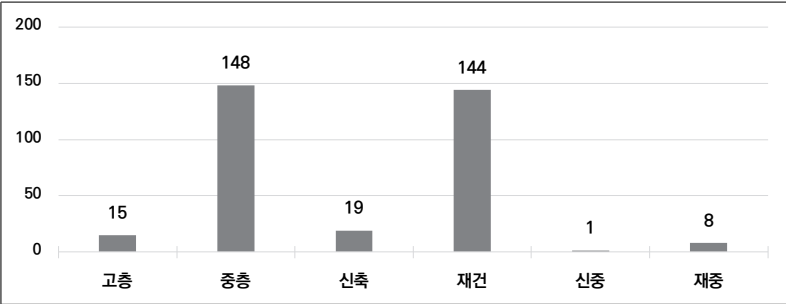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모란봉구역의 착공 동향은 김정은 집권 이후 높게 나타나고 공사 중인 아파트도 상당 부분 확인되었으며, 착공 대비 완공까지 평균 건설기간은 4.8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공 동향은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났으며, 2018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완공 수가 침체되다가 2022년부터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구역 중심인 진흥동을 중심으로 단층집이 다수 확인되어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평양시 형제산구역

형제산구역은 동쪽의 서성구역, 북쪽의 순안구역, 룡성구역, 남쪽 만경대구역과 접해있으며,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군부대, 대학을 제외하면 농축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정치, 행정, 문화, 예술 관련 기관은 없으나, 서포지구를 중심으로 위성도시 건설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향후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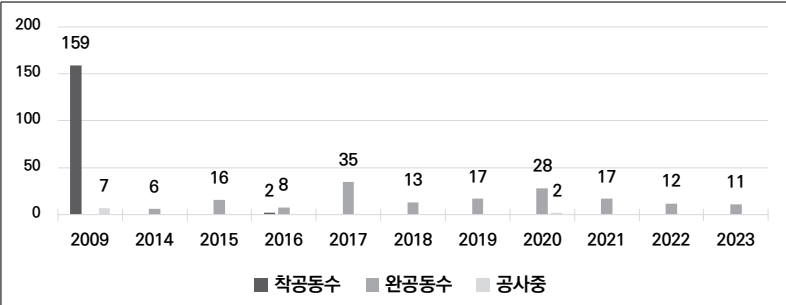
그림 II-21 형제산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형제산구역은 평양시 내 구역 중 가장 많은 동수를 건설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대부분 중층(10층 이하) 아파트 건설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서포지구를 제외하면 총 163개동 중 중층 148개동, 고층 15개동이 완공되었으며, 건설 중인 아파트는 9개동으로 확인된다. 평양 중심부와 달리 외곽에 위치해 기존의 단층집(농촌마을형) 부지와 공장기업소 부지를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특징이며, 서포2동에 집중되었다. 향후 서포지구(전위 1동, 2동) 도시개발이 완성될 경우 구역의 중심지가 서포2동에서 서포지구(전위동)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II-22 형제산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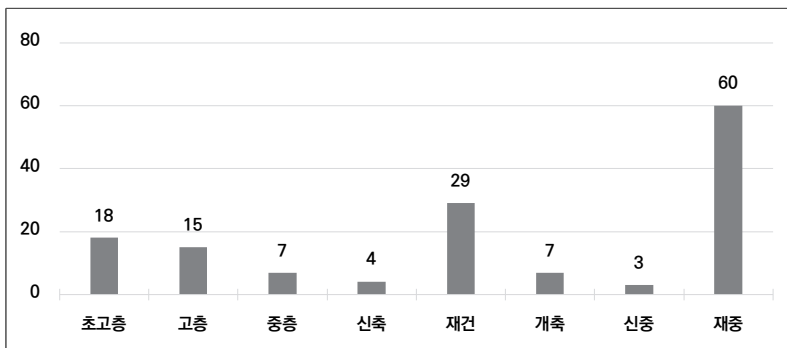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형제산구역은 김정일 집권기인 2009년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로 착공을 시작했으나, 5~7년 가까이 정체되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가 완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2009년 착공 당시 모습 그대로 방치된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형제산구역의 아파트 건설은 평균 9.62년으로 아파트 대부분이 중층임을 감안할 때 건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평양시 보통강구역

보통강구역은 평양시 구역 중에서 작은 편에 속하지만 평양의 동서남북 도로가 접하는 중심에 위치하고 조국전쟁기념관, 조선수예연구소, 보통강개수공사 기념관, 보통강체육공원, 정주영체육관을 비롯한 관광자본과 공업성(석탄, 금속 등), 국제통신, 출판(공업출판, 금성청년 등) 등 중앙산업, 경흥상점, 경흥식당, 류경호텔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물류산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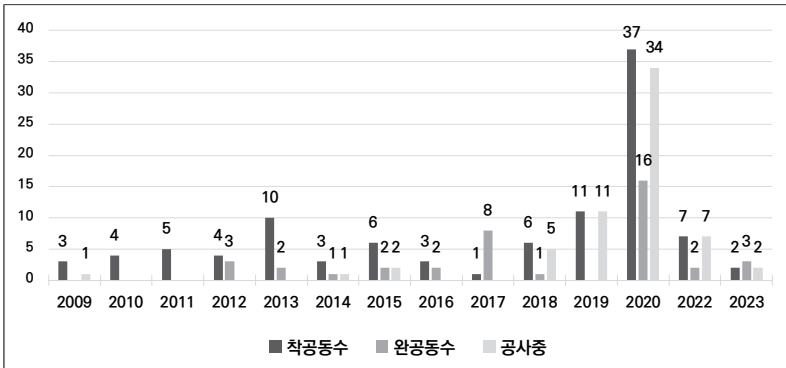
그림 II-23 보통강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보통강구역은 평양의 중심인 중구역과 북쪽으로 접해있고 주변 관광산업과 연계해 초고층 아파트 18개동, 고층 아파트 15개동, 중층 7개동 건설이 확인되어 총 40개동이 완공되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63개동에 달하고 다른 지역과 달리 2019년부터 착공동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까지도 착공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11-24 보통강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건설의 대부분은 보통강구역 중앙과 동쪽지구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남쪽은 물류산업지구로 주거지역이 없고, 동쪽과 북쪽을 중심으로 류경호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이 밀집해 있기때문에 기존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심각해 재건축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역의 산업지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건설동향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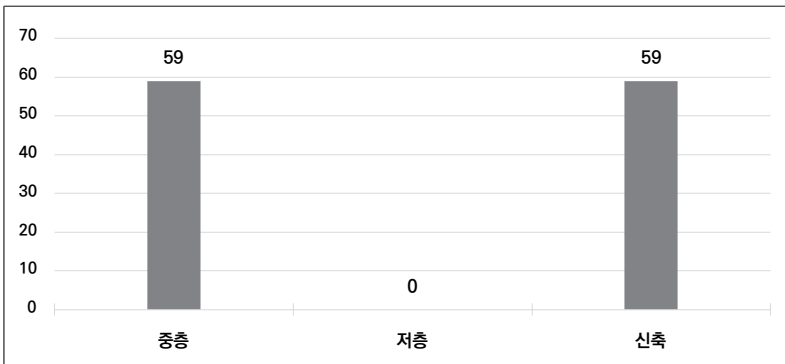
다만 주목되는 지역은 류경호텔과 정면에 위치하고 지난해 완공된 경루동 보통강고급주택과 보통강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신원동 지구이다. 신원동 지구에 건설부지 12.4ha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현재 진행 속도로 볼 때 향후 짧은 기간 안에 완공가능성 있다. 다만, 서포지구, 화성지구 2단계 등 중앙건설에

평양시 건설역량이 동원될 경우 신원동 지구의 건설 정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7) 평양시 은정구역

은정구역은 평양시 북쪽에 위치해 북쪽으로 평성시, 동쪽으로 삼석구역, 서쪽으로 룡성구역과 접해있으며, 국가과학원 위성과학자 지구와 별개로 과학2동과 배산동 지역에 신축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역의 규모가 작고 평양도심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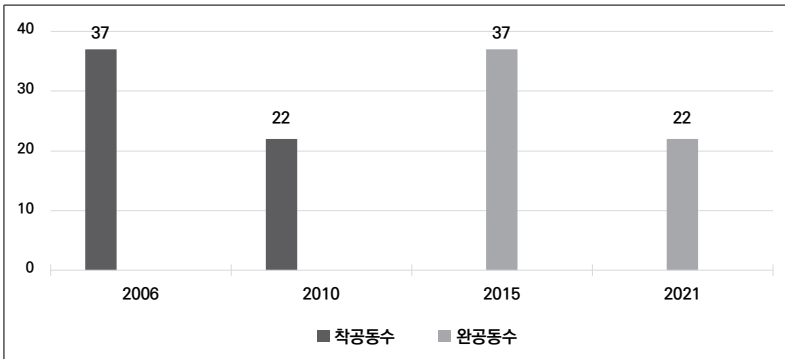
그림 II-25 은정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은정구역 아파트 건설은 총 59개동으로 모두 중층 아파트단지이며, 경작지에 새롭게 단지를 조성했다. 특정 산업을 제외하면 주요 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에서 아파트 수요가 제한적인 지역이다.

그림 II-26 은정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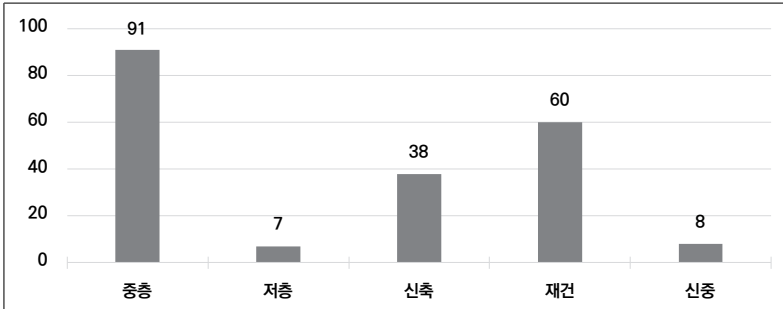
은정구역 아파트 건설동향을 보면 2006년부터 37개동, 2010년 22개동이 추가로 착공되고, 2015년 37개동(과학2동), 2021년 22개동(배산동)이 순차적으로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6층 규모의 저층수에 해당되고 건설 기간은 각각 9년과 11년이 소요되었다.

은정구역 아파트의 위치는 북쪽 위성과학자주택 단지과 1.3km, 남부물류 거점인 평성시 경계와 2.8km 거리에 있으나 평양시 도심과 약 20km 떨어진 고립된 지역으로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낮고 아파트 건설동향이 정체된 대표적인 구역 중 하나다.

(8) 평양시 룡성구역

룡성구역은 북쪽의 은정구역, 동쪽의 삼석구역, 남쪽의 대성구역, 서쪽의 화성구역, 서북쪽의 순안구역과 접해있으며, 은하과학자지구를 중심으로 북쪽의 룡추2동, 은하동, 룡궁동, 룡문동에 다수의 중층형 소형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구역에는 룡성배아링공장, 룡성식료공장, 룡성철도공장 등 관련 산업체들이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농업과학원, 평양남새온실농장,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평양버섯공장 등 농업과학연구가 활발한 지역이다.

그림 II-27 룡성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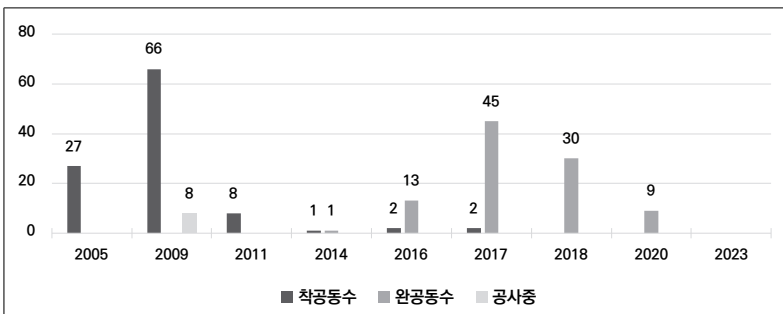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룡성구역 아파트 건설동향을 보면 2005년 27개동, 2009년 66개동, 2011년 8개동을 비롯해 총 106개동이 착공되었으며, 2014년 1개동, 2016년 13개동, 2017년 45개동, 2018년 30개동, 2020년 9개동이 건설되었다.

아파트 건설규모는 완공된 98개동 중 91개동이 6층 규모의 중층형 소형아파트, 나머지 7개동이 5층 이하의 저층형, 부지의 절반 이상이 기존의 주거지역, 나머지는 신규부지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은 규모임에도 건설기간은 평균 6.2년, 최대 12년이 소요되는 등 평양 중심지역 건설기간보다 길게 나타났다.

그림 II-28 룡성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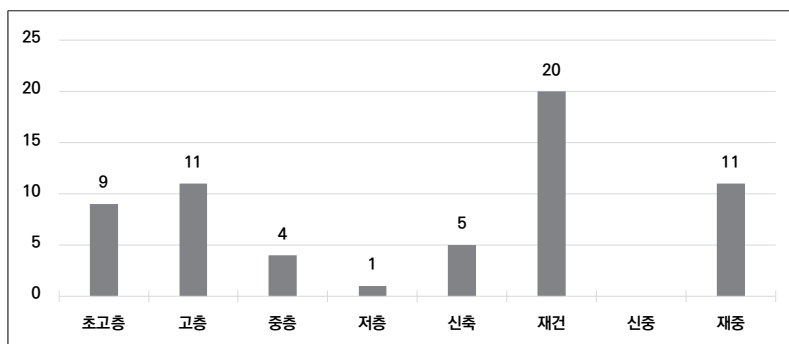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룡성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2018년 이후 착공동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완공동향도 시장화에 의한 건설업이 확산되던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집중된 이후 크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는 점이다. 구역의 인구밀집도가 분산되어 투자가 정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9)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구역은 김일성종합대학, 려명거리, 금수산기념궁전, 대성산 열사릉을 비롯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구역이며, 평양민속공원, 대성산성, 안악궁 등 역사적 유적과 평양동물원, 중앙식물원, 대성산유취장 등 평양의 문화생활 서비스가 높은 지역이다.

그림 11-29 대성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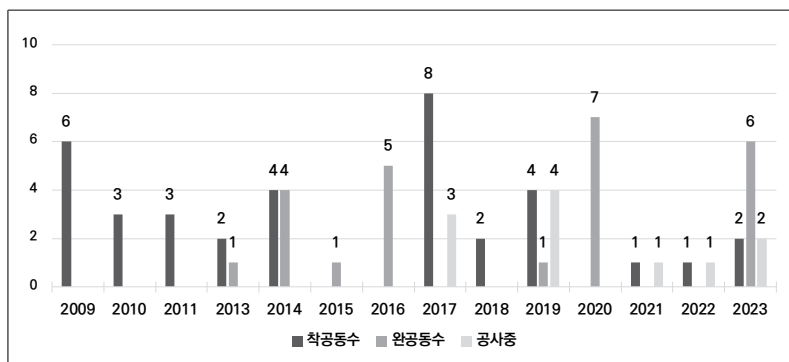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대성구역의 북쪽과 서쪽은 룡성구역과 형제산구역, 남쪽은 모란봉구역과 대동강, 동쪽은 삼석구역과 접해있다. 아파트 건설동향이 활발한 지역은 구역의 서쪽 려명거리의 배후지역인 룡흥동, 미산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룡흥1, 2, 3동 지역에 초고층과 고층이, 미산동에 고층과 중층형 아파트들이 건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파트 건설규모를 보면 초고층 9개동, 고층 11개동, 중층 4개동, 저층 1개동으로 총 25개동으로 대규모 건설보다는 소규모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기간은 평균 5.1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0 대성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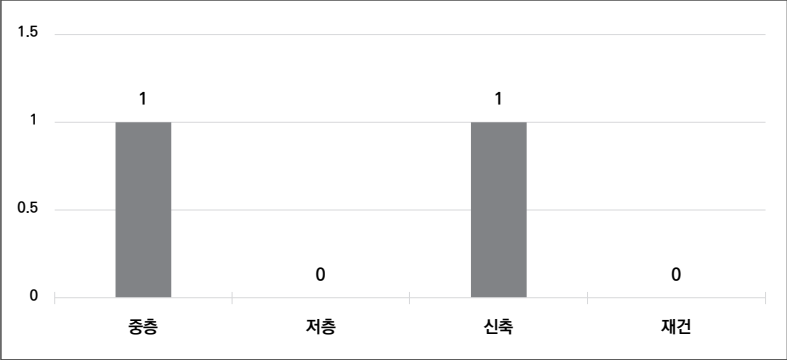
대성구역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다른 구역과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소규모 아파트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다가 2015~2016년에는 착공동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려명거리 건설로 인한 건설동향의 위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완공동향이 크게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대북제재 강화로 인하여 착공대비 완공이 정제된 결과로 판단되며, 그 결과 공사 중에 있는 건설동수가 총 건설동수 46개동의 24%(11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평양시 사동구역

사동구역은 평양시 주민들의 식생활을 보장하는 지대로 덕동, 대원, 석정, 오류, 장천 지역의 남새, 축산, 곡물생산이 발달한 대표적인 농업지대이다. 구역의 서쪽 끝 인구밀집 지역에는 대동강맥주공

장, 평양버섯공장, 송신무궤도전차사업소를 비롯한 목재, 건재 공장들이 위치해 있다. 또한 미림승마구락부, 항공구락부,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을 비롯한 특수교육지구들과 송신-송화 위성도시가 조성되는 등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II-31 사동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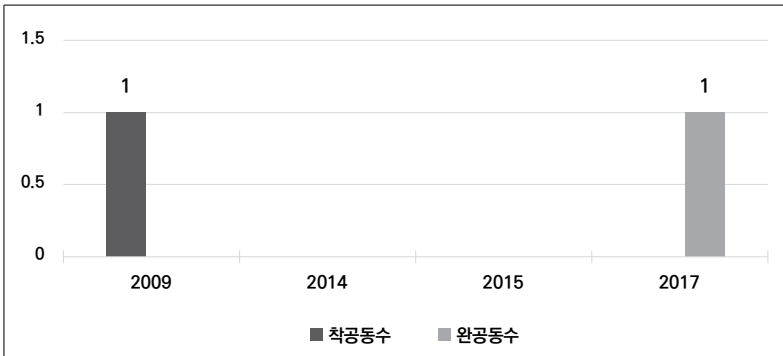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사동구역은 행정위치상 대동강 동쪽으로 황해북도 상원군과 접해 있고 남쪽은 력포구역, 서쪽은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선교구역, 북쪽은 대동강을 사이로 대성구역과 마주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평양시에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경지가 구역 면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 건설동향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사동구역 아파트 건설동향을 보면 2009년 착공한 중층(6층) 소형 아파트 1개동이 8년 만에 완공되었다는 점에서 평양시 내에서도 일반건설이 정체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I-32 사동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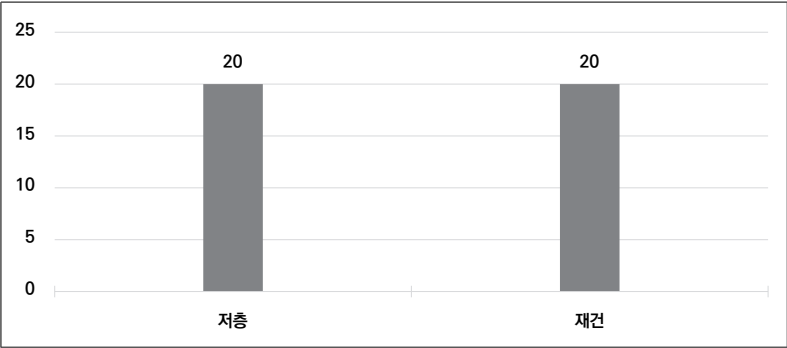
다만 사동구역의 경우 5개년계획으로 추진되는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 중 주요 건설대상인 송화거리 1만 세대 살림집이 2022년 완공되었고, 2015년에는 전국 주요 건설대상인 ‘농촌건설의 표준’ 장천남새농장마을이 완공되면서 중앙차원의 건설이 집중되어 향후 일반건설의 추가적인 확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 평양시 삼석구역

삼석구역은 평양시 북부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은 사동구역과 황해북도 상원군, 동쪽은 평양시 강동군, 서쪽은 룡성구역과 은정구역, 북쪽은 평성시와 접하고 있다. 사동구역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생산이 주산업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도시화가 정체된 지역으로 아파트 건설도 제한적인 지역이다.

삼석구역의 대표산업을 보면 대동강종합과수농장, 대동강돼지공장, 평양자라공장,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등 농업, 과수업, 축산업이 주를 이루며, 삼산탄광지구, 대성산종합병원, 장수원동양어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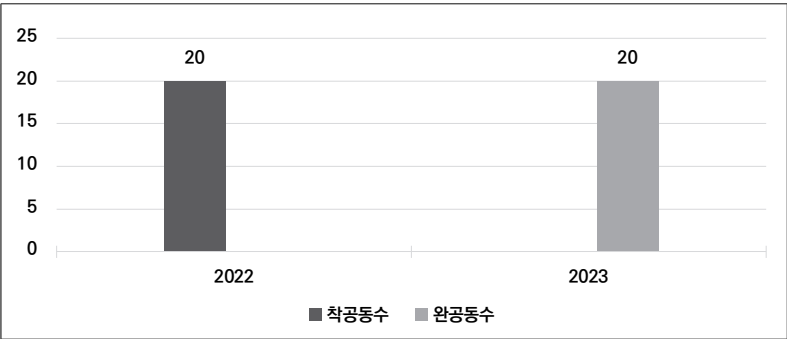
그림 11-33 삼석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삼석구역에 건설된 아파트는 저층(5층 이하) 소형아파트이다. 이는 삼산리 삼산농장 작업반 규모의 마을을 재건한 결과이며, 삼석구역에서는 유일하게 변화가 확인된 곳이다.

그림 11-34 삼석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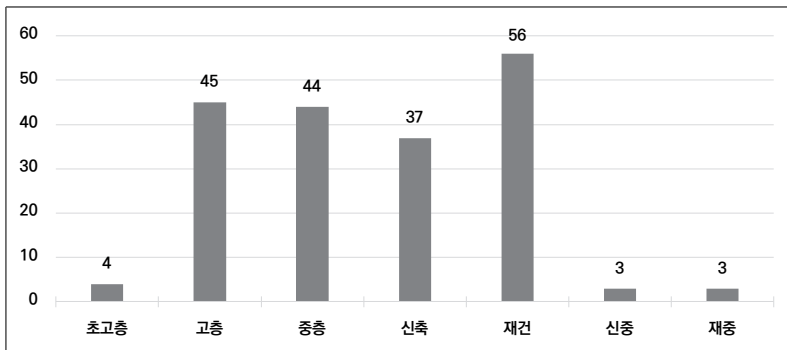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다만, 김정은 집권 전후를 기점으로 대동강종합과수농장, 대동강 과일종합가공공장, 대동강돼지공장, 평양자라공장 등이 조성되면서 과수, 축산업 정책의 강화에 따라 향후 일반건설의 소규모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12)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구역은 동쪽의 보통강을 경계로 보통강구역, 평천구역, 형제산구역, 서북쪽의 평안남도 대동군, 남서쪽의 남포시 천리마구역과 접해있다. 만경대구역은 김일성의 생가, 만경대혁명학원, 국가선물관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적 상징물과 태권도성지중심, 평양교예극장, 서산호텔, 량강호텔, 만경대유회장 등 체육시설, 봉사시설이 밀집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동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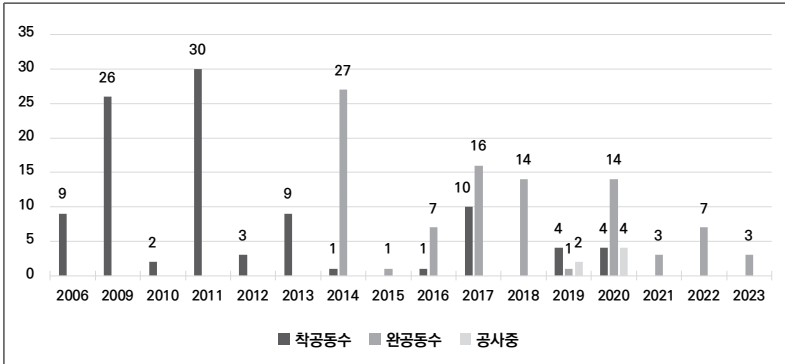
그림 II-35 만경대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만경대구역 아파트건설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와 중층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장훈동에 27~30층 초고층 아파트 4개동, 당상동, 장훈동, 선내동, 금성동, 서산동, 축전동, 칠골동, 광복동 지구를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 45개동, 금성동, 당상동, 대평동, 서산동, 칠골동, 장훈동을 중심으로 중층 아파트 44개동이 건설되어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93개동의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그림 II-36 만경대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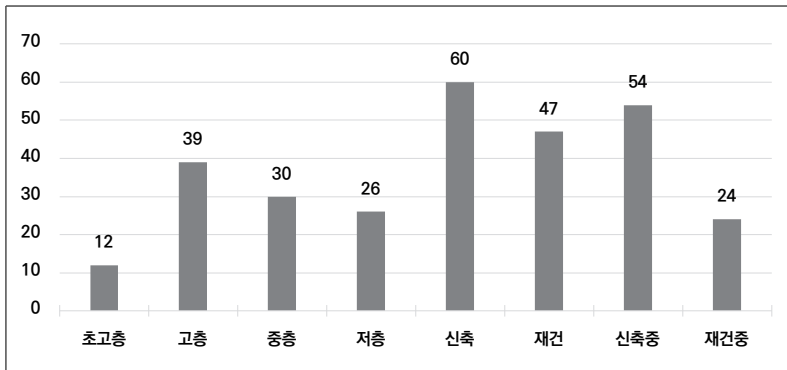
만경대구역의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이 강조된 이후 2009년, 2011년 착공동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규모 주요 건설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 주거단지 내에 아파트 재건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과 당시 투자가 활발하던 시기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에 착공했던 아파트 건설이 투자확대로 높은 완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기간은 건설규모와 만경대구역의 정치적 위상에도 평양시 건설기간 평균 6.67년보다 많은 7.21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서성구역, 모란봉구역 등 평양 중심 지역 건설기간 평균 4.45년보다 1.6배나 많은 건설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이른 시기 착공 후 정체되다가 김정은 집권 이후 건설주들의 투자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 최근 대평지구 완공으로 향후 추가건설이 전망되는 지역이다.

(13) 평양시 락랑구역

락랑구역은 평양시 대동강 남쪽에 위치해 동쪽의 력포구역, 선교구역, 대동강을 사이로 북쪽의 중구역과 평천구역, 서쪽의 만경대구역, 남쪽의 강남군, 황해북도 중화군과 접하고 있으며, 1990년대 통일거리 건설이 추진된 이후 살림집 건설이 정체되었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합작, 합영 기업소 투자가 확대되면서 살림집 수요 증가로 201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가 완공되는 모습들이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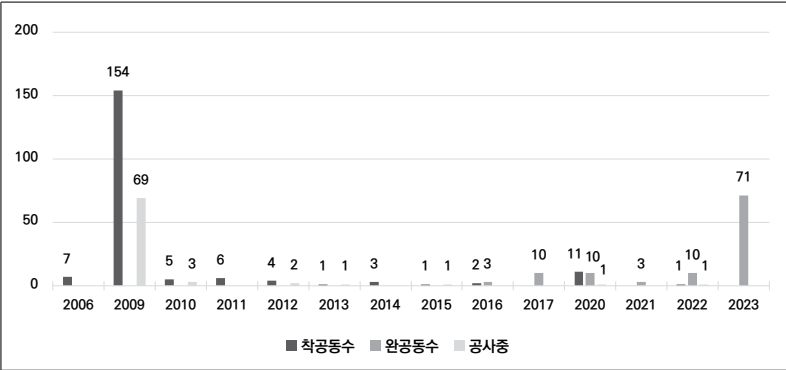
그림 II-37 락랑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아파트 건설에서 초고층 아파트는 청백2동, 동산-정오2동에 25층 아파트 12개동, 10~19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는 동산-정오2동 21개동을 포함해 39개동, 통일거리1동에 중층 아파트 11개동을 비롯해 30개동, 통일거리1동 저층 26개동이 건설되어 총 107개동이 완공되었다.

그림 II-38 락랑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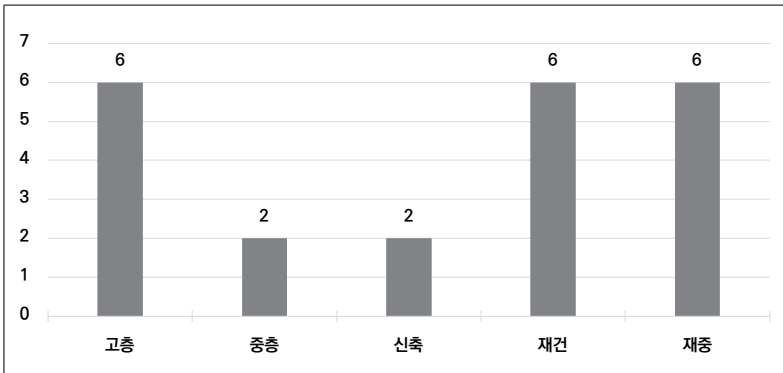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락랑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2015년까지 완공동향이 나타나지 않다가 시장화가 확산되던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023년에는 2009년 착공 후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던 71개동이 짧은 시간에 건설되는 모습을 보여 중구역, 서성구역, 모란봉구역 투자한계에 따른 건설투자여건이 락랑구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추정된다.

(14) 평양시 력포구역

력포구역은 북쪽에 사동구역, 서쪽에 락랑구역, 남쪽과 서쪽으로 는 황해북도 중화군과 상원군을 접하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상 주산업이 농업(과수, 논, 밭)으로 거주인구가 분산되고 아파트 수요가 낮아 아파트 건설동향이 정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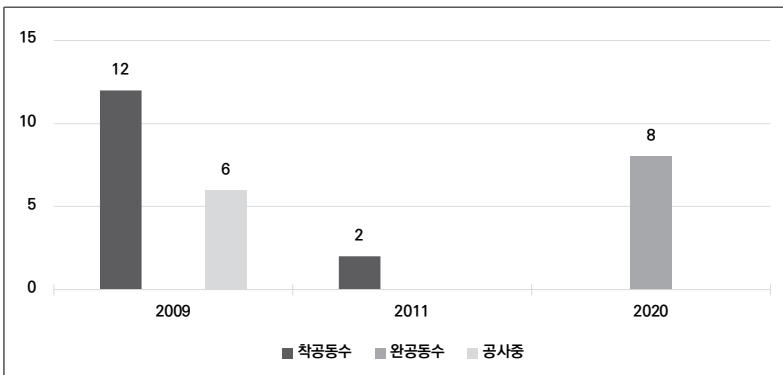
그림 II-39 력포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력포구역 아파트는 서북쪽 인구밀집 지역인 장진2동에 2009년 착공한 고층 아파트(15층) 12개동 중 6개동이 2020년에 완공되고 6개동이 2023년 현재 공사중(완공단계)에 있으며, 2011년 착공한 장진1동에 중층 아파트(7층) 2개동이 2020년 완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총 8개동이 완공되었다.

그림 II-40 력포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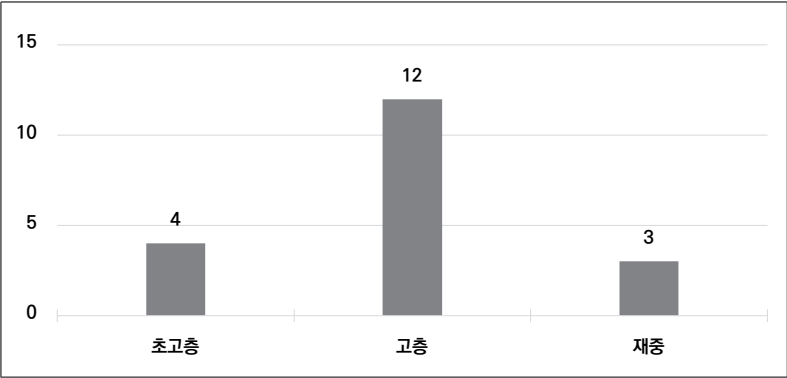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15) 평양시 선교구역

선교구역은 서쪽 대동강을 사이로 양각도와 중구역을 마주하고, 북쪽은 동대원구역, 동쪽은 사동구역, 남쪽은 력포구역과 락랑구역을 접하고 있다. 주요산업은 제사, 방직, 피복산업이며, 통일거리와 연결되는 청년거리를 기준으로 왼쪽은 공장이, 오른쪽은 단층형 살림집들이 대거 조성되어 있다. 선교구역은 김철주사범대학, 한덕수 평양정공업대학, 장충성당을 제외하면 구역 위상이 낮고 산업자체가 정제되어 있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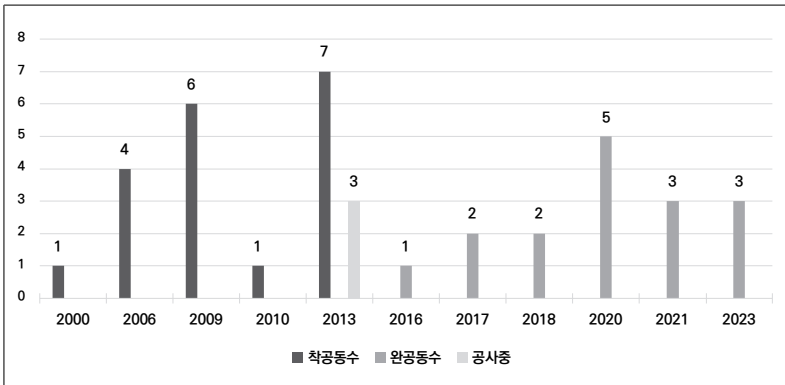
그림 II-41 선교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선교구역 초고층 아파트는 남쪽 산업1동에 위치한 22층 3개동 (2013년~2023), 선교3동의 20층 1개동(2009~2018)을 포함해 총 4개동이 확인되었으며, 선교3동 고층(18층) 1개동을 비롯해 선교1, 2동, 남신1, 2동에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총 12개동의 고층 아파트와 3개동의 아파트가 재건축 중에 있다. 총 완공동수는 16개동이다.

그림 II-42 선교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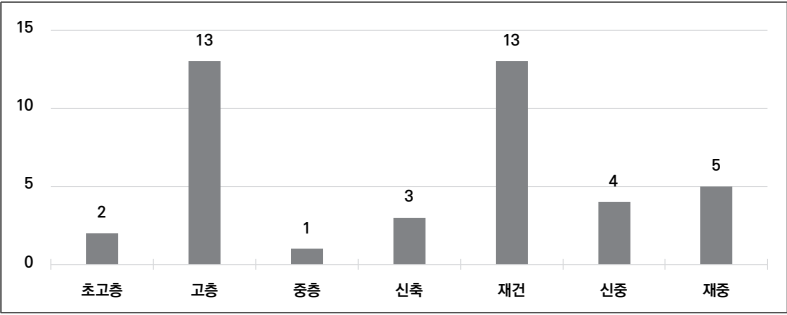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선교구역의 주요 산업은 방직공업, 방직기계, 일용품, 금속, 식품 등 경공업 분야에 집중되고, 구역면적(856ha)의 절반이상이 주거지역이다. 그러나 주거형태 상당부분이 1970~80년대 지어진 단층집이며, 구획화, 도시화가 정체되어 있어, 평균 건설기간이 11년, 최소기간 7년, 최대기간 20년이 소요되는 등 평양시에서 건설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살림집 건설에 대한 투자가 크지 않고 2013년 이후로는 착공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장기간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16) 평양시 동대원구역

동대원구역은 대동강을 사이로 서쪽 중구역, 남쪽 선교구역, 북쪽 대동강구역, 동쪽 사동구역과 접하고 있다. 대동강을 사이로 김일성광장과 마주한 주체사상탑을 비롯한 대동강공원지구, 동평양경기장 등 문화관광체육산업이 발달하고, 김형직사범대, 금성정치대, 체육대, 연극영화대, 미술대, 체육대 등 평양시 주요 고등교육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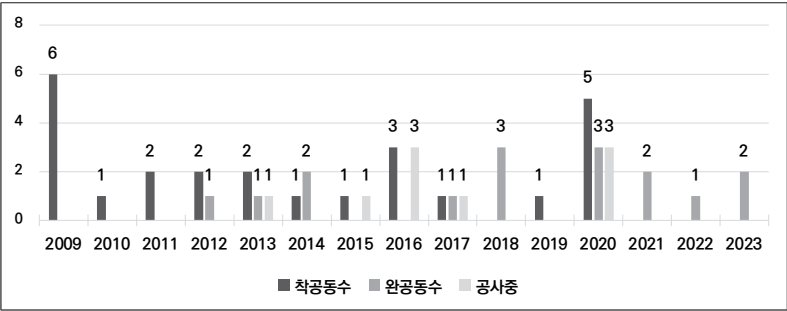
그림 II-43 동대원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동대원구역의 초고층(25층) 건물은 문신2동(2014~2020), 동대원2동(2019~2022)에 완공되었고, 2009년부터 2023년 4월 현재까지 문신1, 2동, 대신동, 신리동, 동대원1동, 동신3동에 13개동(13층~18층)의 고층 아파트와 중층 1개동을 포함 총 16개동이 완공되었으며, 9개동이 건축중(신축 4건, 재건축 5건)에 있다.

그림 II-44 동대원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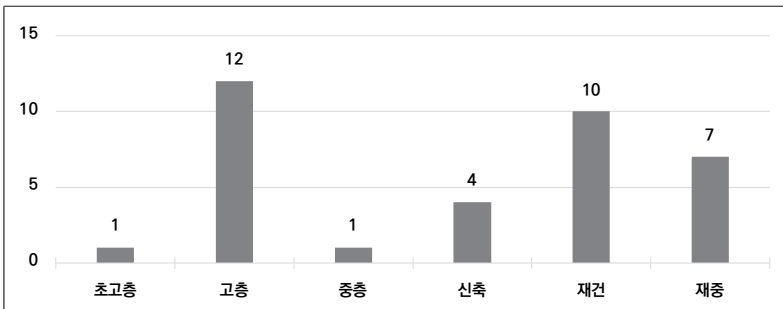
동대원구역은 대동강 건너편 중구역의 인민대학습당, 김일성광장과 동대원구역의 주체사상탑이 마주한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구획이 잘 정비되어 있고 고층 아파트 건설이 도심에 집중

되어 있으며, 건설기간도 평균 5.7년(최소 2년, 최대 9년)으로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평양시 대동강구역

대동강구역은 서쪽 대동강을 사이로 중구역 창전거리, 모란봉구역 능라도, 북쪽의 대성구역, 동쪽 사동구역, 남쪽 동대원구역과 접해있다. 대동강구역은 류경원, 볼링관, 동평양대극장, 노동당창건기념비, 대동강수산물식당,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관광문화산업이 발달하고 평양산원, 어린이병원, 고려의학종합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종합병원(건설중) 등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동쪽지역은 완구공장, 수지연필공장 등 학용품과 대동강타일공장을 비롯한 건재공업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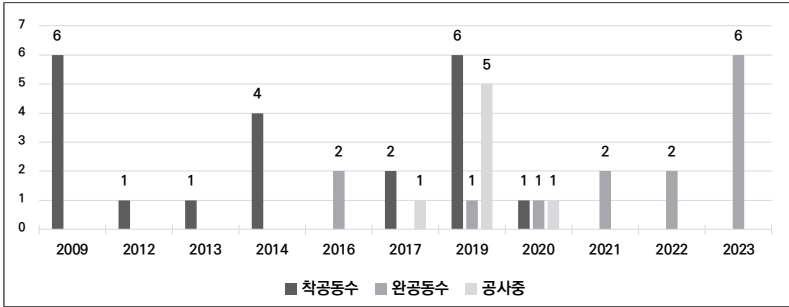
그림 II-45 대동강구역 아파트 건설현황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대동강구역은 옥류1동의 초고층(22층) 1개동(2009~2022)을 비롯해, 능라도2동, 문수1, 2동, 탑제2, 3동, 옥류1, 3동에 총 14개 동이 200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완공되었으며,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는 총 7동이 있다. 아파트 건설은 능라도와 창전거리가 바라보이는 옥류1, 2동과 능라도2동, 동쪽 외곽지역인 탑제동 지구에 편중되어 있다.

그림 II-46 대동강구역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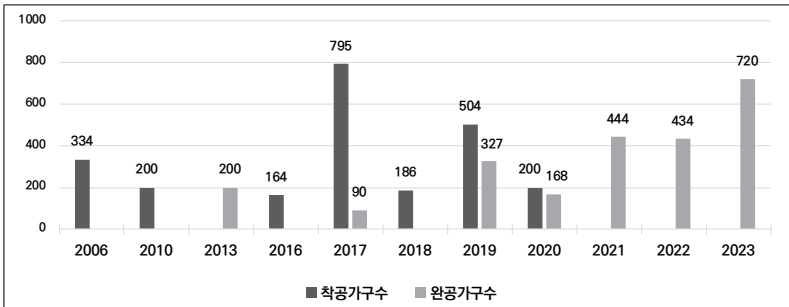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대동강구역은 능라도와 접해있고 주요 관광자본이 집중된 지역으로 외국관광객에 대한 국가적 위상을 고려해 도심지에 아파트들이 고층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기간은 평균 8.1년(최소 4년, 최대 14년)으로 상당한 건설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18) 평양시 순안구역

평양시 구역별 주택건설에서 순안구역은 유일하게 아파트가 아닌 농촌살림집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평양 서북쪽에 평안남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순안공항과 중앙양묘장, 타조목장을 제외하면 대표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이다.

그림 II-47 순안구역 시기별 살림집 건설동향(가구 수)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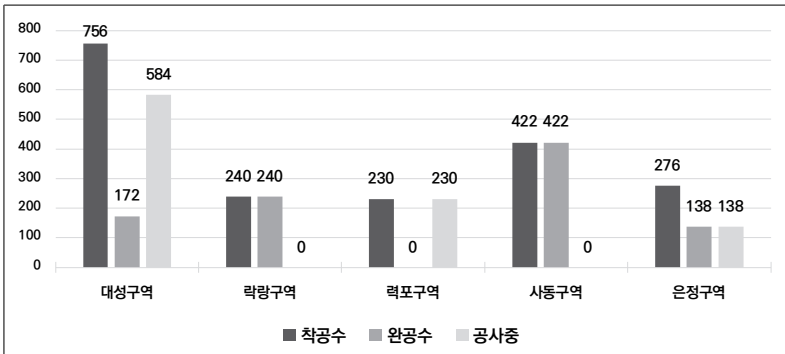
농촌살림집은 단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착공한 재경리(읍) 334가구 건설을 시작으로 오산리(읍) 200가구, 택암리(읍마을, 작업반마을) 471가구, 신리(읍) 186가구, 신양리(읍마을, 3개 작업반 마을) 396가구, 천동리(읍마을, 작업반마을) 490가구, 평리마을(1개 작업반) 156가구 등 2023년 현재까지 총 2,383가구가 새롭게 재개발되었다. 농촌살림집 건설은 평양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농촌건설 사업으로 개인의 투자가 제한적인 반면, 아파트 건설과 달리 건재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건설기간은 평균 4.23년으로 적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대표적인 특징은 2006년 시작된 재경리마을과 2010년에 시작된 오산리마을을 제외하면 장천남새농장이 모범사례로 강조된 이후인 2016년부터 리 단위 농촌마을 건설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시기 건설기간도 평균 1년 이상 단축된 3.1년으로 줄어들었고, 건설규모도 전체의 77.6%(1,849가구)에 달하는 등 김정은 집권 이후 순안구역 농촌마을 건설이 크게 확대되었다.

(19) 평양시 농촌마을 건설(순안구역 제외)

농촌마을이 건설된 구역별 가구 수 현황을 보면 착공 수는 대성구역, 사동구역, 은정구역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완공 수는 사동구역, 락랑구역, 대성구역, 은정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5개 구역의 농촌마을 건설 수는 전체 1,924가구(순안구역 제외)로 이중 완공한 가구 수는 972가구, 건설 중인 가구 수는 952가구로 확인되었다.

그림 II-48 구역별 농촌마을 건설 현황(가구 수)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주요 특징은 사동구역 장천남새농장마을이 2014년 처음 422가구에 착공된 이후 대성구역 2015년 68가구, 은정구역 96가구 등 여러 구역으로 점차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농촌마을 건설 정책의 본보기로 장천남새농장이 타 구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마을은 착공 후 평균 3년(최소 2년, 최대 6년)으로 도시의 아파트 건설동향과 달리 건설기간이 대체로 짧게 나타나고 착공대비 완공 수도 높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 건재가 적게 소요되고 공사가 단층, 저층형(2~3층) 살림집 건설로 이루어진 것에서 기인한다.

다. 평양시 일반건설 성과와 특징

(1) 평양시 일반건설 현황과 특성(농촌마을 제외)

평양시의 일반건설 동향은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주요 건설대상 사업이 소규모로 추진되던 2010년

대 1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건설업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대한 착공과 완공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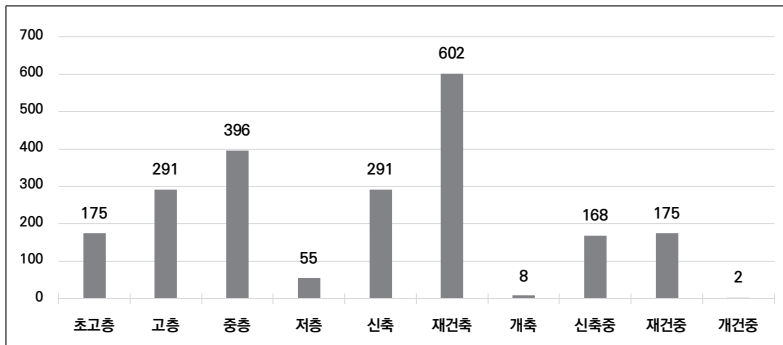
표 II-3 김정은 집권 이후 아파트 건설현황(17개 구역 건설동수)

완공건물 현황				건설중 건물 현황	
건축유형	동수	층수유형	동수	건축유형	동수
신축	291	초고층	175	신축 중	168
재건축	618	고층	291	재건 중	175
개축	8	중층	396	개축 중	2
		저층	55		
소계	917	소계	917	소계	345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 아파트 건설현황을 보면 완공된 동수와 건설 중인 동수를 모두 포함해 2023년 4월 16일 기준 총 1,262개동으로 완공동수 917개동, 건설중인 동수 345개동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축보다는 재건축이 압도적으로 많고 개축은 기존 건물의 하자로 제한적인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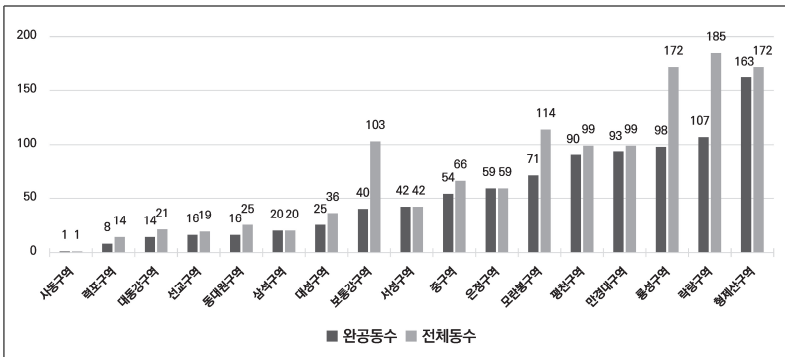
그림 II-49 평양시 아파트 건설 총 현황 (단위: 동)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평양시 구역별 아파트 건설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 지역은 락랑구역, 룡성구역, 형제산구역, 모란봉구역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많은 완공 수를 보이는 지역은 형제산구역, 락랑구역, 룡성구역, 만경대구역, 평천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0 평양시 구역별 아파트 건설순위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기본적으로 형제산구역, 락랑구역, 룡성구역은 평양시 중심부로부터 떨어져 있고 건설규모도 대부분 중층규모에 그친다. 반면, 평양 중심 지역인 보통강, 중구역, 평천구역, 만경대구역은 고층규모에 집중되어 있으며, 착공대비 완공 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반건설에서도 지리적 위치, 정치, 경제, 문화적 위상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 일반건설의 시기별 건설 특징

17개 구역의 전체 건설규모를 정리한 결과 층수 유형별 완공 수가 많은 건물은 중층, 고층, 초고층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 이후 완료된 살림집 건설에서 고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층 다음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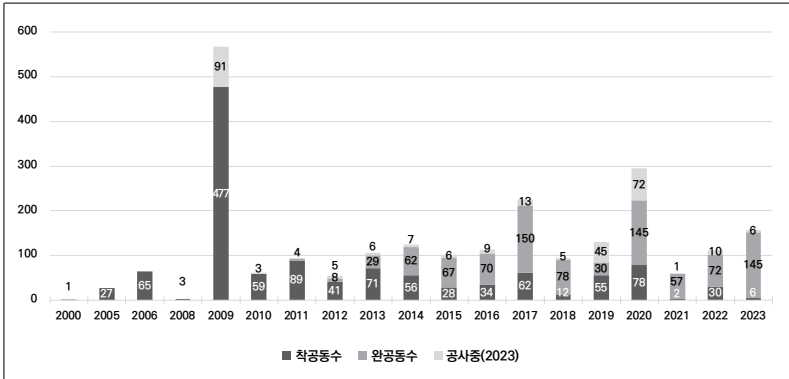
건설에서는 신축보다 기존 거주지를 재건축하는 모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그동안 정체되었던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에 일반 건설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기존 아파트를 증축해 고층 건물로 높이는 개축사업도 일부 확인되는데 전체 10개동으로 8개동이 완료되고 2개동이 개축 중에 있다. 개축사업이 소규모로 추진된 이유는 다수의 살림집이 오래전에 건설되어 노후화가 심각해 개축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로 추정된다.

아래의 〈그림 II-51〉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에서 김정은 집권 후 완공된 상당수의 살림집은 김정일 집권기인 2009년에 착공되었으며, 특히 2009년 착공된 살림집 건설은 형제산구역 서포동(1,2동)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김정일 집권 당시 서포지역에 대한 건설이 대대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477개동이 착공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14년간 방치된 91개동은 사실상 공사가 온전히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10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8월) 이후 살림집 건설 착공이 증가해 2011년까지 전체 148개동이 착공되었다는 점이다. 2010년 착공한 59개동 중 현재까지 13년간 공사 중인 동수는 3개동이다.

2011년 말부터 아파트 건설이 점진적으로 완공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2014년부터 공사 완공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건설주와 돈주의 투자에 따른 성과로 판단된다.

그림 II-51 평양시 시기별 아파트 건설동향 (단위: 동)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반면 강력한 대북제재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2018, 2019년에는 완공동수가 급락하고 공사 중인 동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외무역이 중단되고 내부적으로 건설사업에 집중하면서 아파트 건설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경제 저성장을 건설정치를 통해 극복하려는 동향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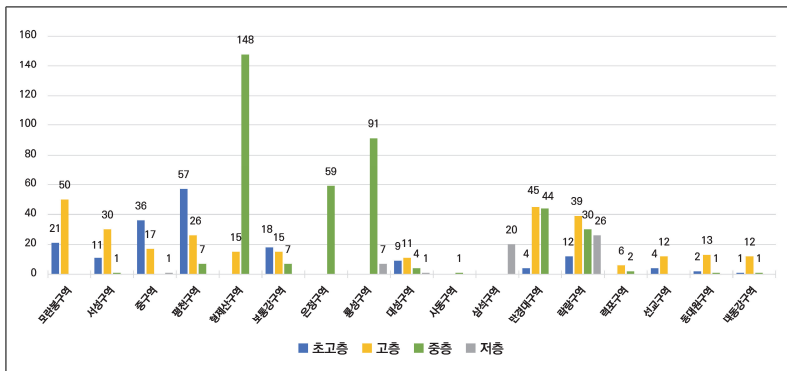
다만, 2021년과 2022년에는 대표적인 ‘대상건설’인 송신-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화성지구 1단계(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역량이 주요 건설대상에 투입되어 일반 아파트 건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착공한 이후 중단되었던 락랑구역 살림집 건설이 2023년 재개되면서 완공수가 급증하여 건설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소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46/}

^{46/} 락랑구역 동산동, 정오1동, 통일거리1동 등 남쪽에 위치한 재건축, 신축 단지는 상당부분 기반만 조성된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공사가 재개되기 시작했다. 2023년에 71개동이 완공되었는데, 이는 당해연도 완공 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3) 구역별 고층 아파트 건설현황과 특징

평양시 고층 아파트 건설현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구역의 역량(인구밀집), 위상(상징물), 위치(중심지)에 따라 아파트의 높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며,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의 초고층 건설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II-52 평양시 구역별 고층 아파트 건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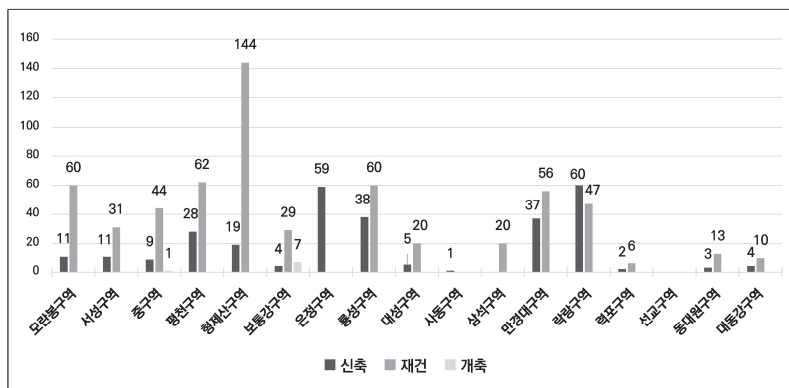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평양시 구역별 고층 아파트 건설현황에서 2012년부터 초고층이 많이 건설된 구역은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으로 평양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류경호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인민대학습당, 천리마거리 등 북한을 상징하는 상징물, 정치, 행정중심인 동시에 부동산 붐을 이끌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른 구역들과 구별된다.

고층 아파트 건설이 많은 지역은 모란봉구역, 서성구역, 만경대구역으로 평양시 중심지역과 접해있으며, 형제산구역, 은정구역, 룡성구역 등 외곽지역은 중층 건설이 집중되어 나타난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시에서 김일성 시대에 추진된 최대 규모 건설 지역인 락랑구역은 고층, 중층, 저층 건설 수가 유사하게 나타나 김정은 시대의 살림집 건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4) 구역별 건설부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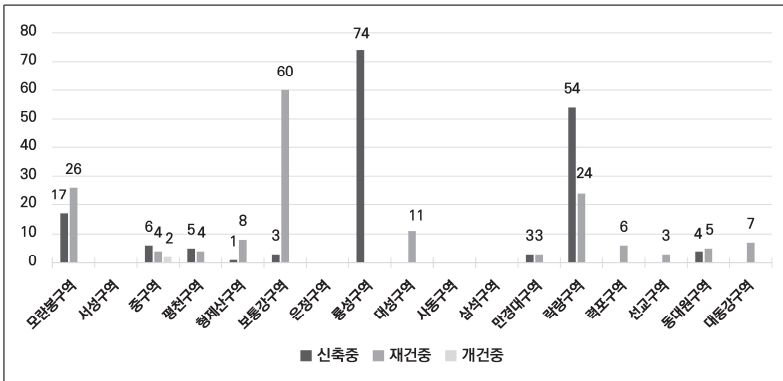
그림 II-53 평양시 구역별 건설부지 특징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구역별로 완공된 아파트 건설부지를 보면 신축이 많은 지역은 락랑구역, 은정구역, 룡성구역으로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잉여부지가 많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아파트 건설부지가 대부분 재건축인 경우는 모란봉구역, 평천구역, 만경대구역 등 오래 전 건설되었던 아파트 지역, 도시 중심부의 인구과밀화 지역에서 재건모습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54 평양시 건설 중인 구역별 부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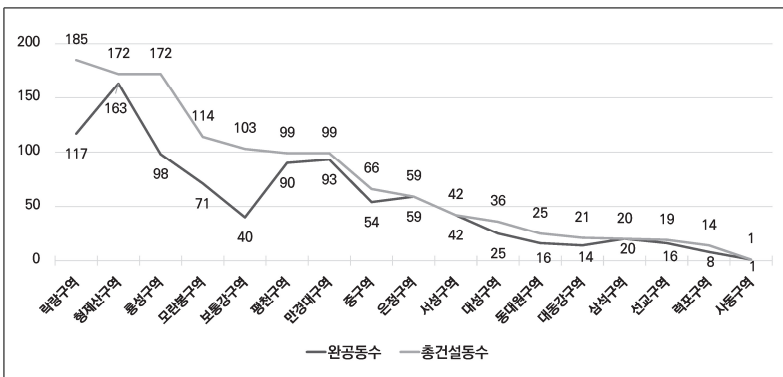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건설 중인 구역별 건설부지 이용현황에는 중심지역보다는 넓은 잉여 부지를 가지고 있는 룡성구역과 락랑구역에서 신축부지 이용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잉여부지가 부족한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에서 재건축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5) 평양시 구역별 아파트 건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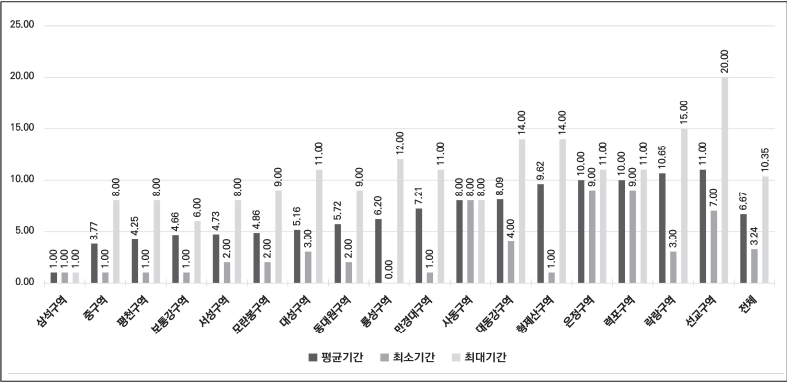
그림 II-55 평양시 구역별 아파트 총 건설동수 및 완공 추이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평양시 구역별 전체 건설추이를 살펴본 결과, 총 건설동수는 락랑 구역, 형제산구역, 룡성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완공은 형제산구역, 락랑구역, 룡성구역 순이며, 만경대구역과 평천구역이 유사한 규모로 완공동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56 2011~2023 구역별 일반건설 소요기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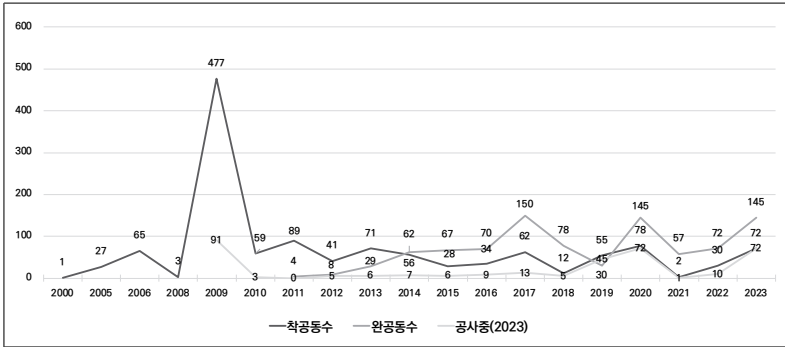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총 건설동수가 가장 많은 락랑구역은 대부분의 착공수가 2006년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평균 13년 정도의 건설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락랑구역은 중심부와 달리 대부분 고층(평균 11~12층), 중층, 저층 건설이 진행되었음에도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된 것은 외곽지역에 대한 투자가 정체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형제산구역의 건설규모는 대부분 중층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총 건설동수 대비 완공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형제산구역과 달리 룡성구역은 총 건설 수 대비 완공 수는 60% 수준에 불과하다.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서는 평천구역이 가장 높고, 중구역, 모란봉구역 순이며, 고층 아파트는 모란봉구역, 서성구역, 평천구역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57 평양시 시기별 아파트건설 추이



출처: Google Earth Pro를 활용, 분석하여 필자 작성.

평양 시기별 일반아파트 건설 추이를 보면 김정은 집권 이전까지는 높은 착공을 보여주지만, 2011년까지 완공은 미미했다. 반면,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부터 기존의 착공한 아파트 건설을 포함해 신규 착공과 완공 모습이 점차 증가하고 2014~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대북제재의 영향이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었던 2018년부터 아파트 건설동향이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하락해 2019년(하노이 미북정상회담)까지 지속되었다. 2020년은 경제발전 5개년전략 마지막 해이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내부건설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면서 일반건설이 일시적으로 완공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송산-송화지구, 화성지구 등 주요 건설대상의 영향으로 2021~2022년까지 일반건설이 하락하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하는 등 상승과 하락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2009년 상당부분 착공된 공사동수는 락랑구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2020년대 들어서면서 공사가 재개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 평양시 중심지역 건설에 동원되었던 투자여건이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평양시 살림집건설 주요특징과 종합평가

가. 평양시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특징

주요 거리 살림집 지구 건설 특징은 직주 여건, 문화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조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건설 1기는 위성과학자주택, 은하과학자지구, 려명거리, 미래과학자지구를 비롯한 과학계, 교육계의 직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일반건설에서도 주요 산업과 근접한 지역의 주민수요를 대상으로 아파트들이 건설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새로 조성되는 지구는 지역 수요에 맞게 문화생활 시설들을 함께 조성해 직주 여건, 문화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해 건설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살림집 건설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달리 다양한 고층별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의 색채와 형태를 다양하게 건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에 조성되는 아파트 건설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색화, 다양화로, 일률적이고 보편적이었던 건설양식의 기성정치와는 다른 정치공간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되는 살림집 건설은 인간중심의 현대적 이념과 사상, 편의성이 강조된 건축예술이 가미된 살림집으로 강조한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위성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의 외형은 과거와는 달리 현대적인 건축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쓰레기장, 학교, 공원 등)도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일반건설에서는 생활편의 시설은 건설되지 않았으며, 과거에 조성된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주요 건설대상에 따른 시가화 지구 확장

김정은 집권 이후 살림집 건설 1기는 평양 도심과 과학기술분야에 특화되어 조성되었다면, 2기는 도심보다는 낙후하고 정체된 지역을 대상으로 새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 확인된다. 물론 시가화 지구의 확장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살림집 건설 및 거리 조성 개발에 따라 도시의 위상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송화지구는 평양-사리원, 개성 간 고속도로 입구이며, 화성지구는 북부의 순안공항-신의주 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서포지구는 평양시를 관통하는 동서 교통망이 연계된 침체지역이라는 점이다. 또한 광복거리 북부에 위치한 대평지구는 평양과 남포, 북쪽의 서포와 화성지구로 이어지는 교통망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시가화 지구의 외연적 확장은 수도로써의 평양의 위상변화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다. 평양시 일반 살림집 건설 특징과 한계

부동산 자본(돈주, 건설주)의 직접적 영향으로 형성되는 일반 살림집 건설은 주요 건설대상과 달리 비계획적이고, 단조로운 양식으로 조성되며, 도로변보다는 아파트 단지 공간부지를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건설은 전체 917개동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건설기간이 80개월(6.67년) 수준으로 주요 건설대상 평균 15.8개월(1.31년)보다 5배나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등 건설역량을 동원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평양시에서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인 형제산구역 살림집은 대부분 중층에 그치며, 도심 내 위치한 평천구역, 중구역은 초고층 살림집

건설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며, 중심부 외곽인 모란봉구역, 서성구역은 고층살림집 건설이 다수를 차지해 평양시 중심부의 위상에 따른 고층살림집 건설 격차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반건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평양시 주요 건설대상이 확대 및 강화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일반 살림집 건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제한된 건설역량이 주요 건설대상으로 집중되면서 지자체 건설(건설주)이 정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 결과 건설기간이 길어지고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 평양시 살림집 건설 종합평가

김일성, 김정일 체제의 경제발전 운동으로 대표되는 천리마와 김정은 체제의 만리마 운동은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 공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추진했던 통일거리와 2020년대 후반 송신-송화지구 건설이다.

평양 살림집 건설은 김정은 체제의 ‘위민정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설정치 사업으로 주요 건설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적 건설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간 안에 조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외형적 성과와 달리 장기간 준공을 미루거나, 마감재 부족, 내부 건재공급의 한계에 따른 질적인 문제도 상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 살림집 일반건설이 시인민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주요 성과들 역시 질적인 보장문제가 제기되어 평천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주요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역량의 집중으로 지방건설이 크게 위축되는 천리마 시대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

평양시 살림집 건설의 분명한 한계에도 ‘미래도시 평양시’를 외형적으로나마 보여준다는 점과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지지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점, 북한 주민들에게 현대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정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양시의 행정구역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밀집을 분산시키고 위성도시를 건설해 평양을 외연적으로 확장한다는 점과 확장된 위성도시가 평양의 핵심 교통망과 연계되어 조성된다는 점에서 도시건설의 효과는 분명하다. 다만 외형적 건설과 달리 그에 따른 교통편의, 운수 산업, 문화체육, 예술공간, 생활편의, 인프라(상하수도, 전력망, 생활용에너지 등)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 제약의 극복이라는 수많은 과제가 산재해 있다.

Ⅲ.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상업공간 이해

황주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상업공간 이해^{47/}

1. 북한 유통시장 환경의 변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컫는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배급이 원활하지 않자, 북한 주민들이 소비품을 국영상점이 아닌 시장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백화점을 개건하거나 편의점과 같이 새로운 유형의 국영상점을 도입하는 등 유통시장 환경에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평양시의 상업시설을 연구대상으로 상업시설의 종류와 입지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을 제도 내로 포섭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유통시장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시장 중심의 연구에서 북한의 국영상점을 포함한 상업시설까지 연구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 평양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47/ 본 장은 2023년 12월 12일 ‘2023 KINU 북한도시포럼’에서 발표한 “노동신문으로 본 김정은 시대 평양의 상업공간 이해”를 수정, 보완한 내용이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상업 중 사회공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평양시의 사회주의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사회주의 상업 시설은 상점, 백화점, 시장으로 한정하며 사회주의 상업시설 중 기업소의 경우 연구범위의 중복으로 본 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종 내 상업시설(상점)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1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동신문』에서 언급된 사회주의 상업시설(상점, 백화점,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 시기 보도된 상업시설은 정상운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분석 대상 기사는 평양시 내 상업 시설명이 언급된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상업 시설명의 단순 언급빈도를 포함하여 상점 550건, 직매점 66건, 백화점(상업중심 포함) 738건의 기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노동신문의 양적 분석, 북한문헌을 통한 질적 분석,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노동신문의 양적 분석을 위해서 NK DIA^{48/}, R을 활용하였다.

2. 평양의 상업시설에 대한 이해

가. 사회주의 상업

북한에서 국영상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질적인 폐업에 들어갔다. 2003년, 북한은 시장의 합법화 조치를 실시하면서 종합시장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국영상점을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였다. 개인, 무역회사 등이 중국제품을 수입해서 시장가격으로 국영상점에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었으며

48/ KISTI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테크)에서 개발한 북한데이터분석시스템

기관, 기업소 직매점, 분점, 8.3상점 등 국영 상업유통망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2006~2007년 사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수익성이 높은 국영상점을 대상으로 그 경영권을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대부터는 약 20년 만에 상점운동을 가동하기 시작하는 등 국영상업망을 복원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 종합시장, 시장화된 국영상점, 직매점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집권 초기인 2012년부터 공동구호로 ‘경공업이 용을 쓰는 해,’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되게 하라!’로 정하고 경공업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규모 상업, 유통시설 등은 공공부문이 직접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9/}

2017년 북한은 보도에서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어느 상업망들에 가보아도 우리의 상표를 단 경공업제품들이 들어차 우리것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50/} 경공업 발전을 통한 공급 확대로 어느정도 유통시장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경공업 공장의 본보기로는 원산구두공장, 평양곡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가방공장 등이 언급되었다.^{51/} 김정은 시기 북한은 우리국가제일주의, 자력갱생 등을 강조하면서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애국이라며 북한 상품을 애용하는 기풍을 강

49/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 (세종: 산업연구원, 2017), p. 90; 전현준 외,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232; 박희진, “김정일 체제의 경제적 유산과 북한경제 전망: 거점개방과 반개혁의 이중주,”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5월호 (2012), p. 41; “〈2012년을 경공업이 용을 쓰는 해,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보는 해로 되게 하라!(공동구호에서)〉 보다 문명하고 운택한 생활조건을 - 우시군에서,” 『노동신문』, 2012.1.23.

50/ “〈당의 경공업정책을 받들고 하루빨리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경쟁속에 비약하고 또 비약하자,” 『노동신문』, 2017.6.24.

51/ 위의 글.

조하고 있다.^{52/}

2020년 북한은 본격적으로 국가상업체제, 사회주의 상업에 대한 복원을 강조하고 국영 상업망을 통한 상품유통 활성화를 요구하였다. 북한은 이 같은 유통 활성화의 목적이 북한 당국의 자금확보에 있다고 밝혔다.^{53/} 이러한 북한 당국의 의지는 2021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도 확인되는데, 회의는 국가적인 생산물, 수입물자 관리 및 유통사업을 강조하였다.^{54/}

2023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상품류통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상업망의 조직운영과 상품의 확보, 공급 및 판매를 비롯하여 상품류통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이 상품류통법에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55/} 아직까지 법 전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품유통에 대한 부문이 별도로 법제화되었다는 것은 상품유통에 대한 국영부문이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의 상품유통은 ‘상업법’에서 일부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북한은 1992년 상업법을 제정한 이후로 김정은 시대 2019년, 2020년, 2021년 총 3차례 개정하고 사회주의 상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의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있다.^{56/}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52/ “우리의것을 애용하자,” 『노동신문』, 2019.6.5.

53/ “[문설] 현시기 경제사업체제와 질서를 정돈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노동신문』, 2020.3.7.

54/ “당대회결정관철의 첫해 진군을 자랑찬 혁신과 전진으로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1.2.12.

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의 진행,” 『노동신문』, 2023.8.31.

56/ 사회주의상업법(2010).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 (서울: 국가정보원, 2017), p. 30.

상업법이 개정되면서 ‘판매’의 개념이 더 추가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사회주의 상업을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상편의를 보장하여 국가 및 협동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57/} 사회주의 상업에는 ①사회공급 및 판매 ②사회급양, ③편의봉사, ④수매가 해당된다. 사회공급 및 판매와 관련해서 북한 법은 식료품, 상비상품(일용잡화, 건재상품, 농촌상점), 어린이용 상품, 여행자용 상품의 공급과 판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24조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을 기본으로 하여 판매하는 직매점의 운영에 대해 규정한다.^{58/} 상점, 식당, 편의봉사망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59/} 식당, 상점과 같은 봉사업(서비스업) 대상은 합영·합작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60/}

나. 상업시설의 종류 및 개념

본 연구에서는 상업시설을 <표 III-1>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표 III-1 상업시설 종류

유형	종류
상점	편의점, 공업품상점, 식료품상점, 여행자상점, 종합상점, 직매점 등
백화점	백화점, 광복지구 상업중심, 외화 전용 백화점 등
시장	종합시장

출처: 김영희, “최근 북한 소매상업의 현황,” 『Weekly KDB Report』, 제898호 (2020), pp. 11~12; 『노동신문』 참고 하여 필자 정리.

57/ 사회주의상업법(2021).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下』 (서울: 국가정보원, 2022), p. 88.

58/ 사회주의상업법(2021)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위의 책, p. 90.

59/ 사회주의상업법(2021) 제83조. 위의 책, p. 99.

60/ 합영법 제4조, 합작법 제4조. 위의 책, p. 1186; 위의 책, p. 1193.

북한에서 상점이란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놓고 상품을 직접 파는 상업망의 기본단위”^{61/}를 뜻하며 수매상점은 “물품을 수매받거나 그것을 다시 파는 상점”^{62/}을 말한다. 종합상점은 “주민들의 여러가지 상품에 대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충족시킬 목적 밑에 공업품과 식료품을 아울러 파는 상점”으로 “여러개의 상점을 망라하는 독립채산제기업체”로 정의된다.^{63/} 직매점이란 기관, 기업소가 생산물의 일부를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상점을 일컬으며^{64/} 구역직매점은 8월3일인민소비품을 판매한다.^{65/} 백화점은 “여러가지 상품을 갖추어놓고 그것을 품종에 따라 매대별로 갈라 파는 큰 규모의 상점”으로 정의한다.^{66/}

3. 『노동신문』을 통한 평양시 상업시설 입지

가. 상점 입지공간

김정은 시기 『노동신문』(2012.1.~2023.12.)에서 보도된 ‘상점’과 관련된 보도는 총 1,566건으로 이 중 평양시 내 ‘상점’과 관련된 보도는 550건으로 전체 보도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점의 운영이 평양시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61/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 1260.

62/ 위의 책, p. 1487.

63/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 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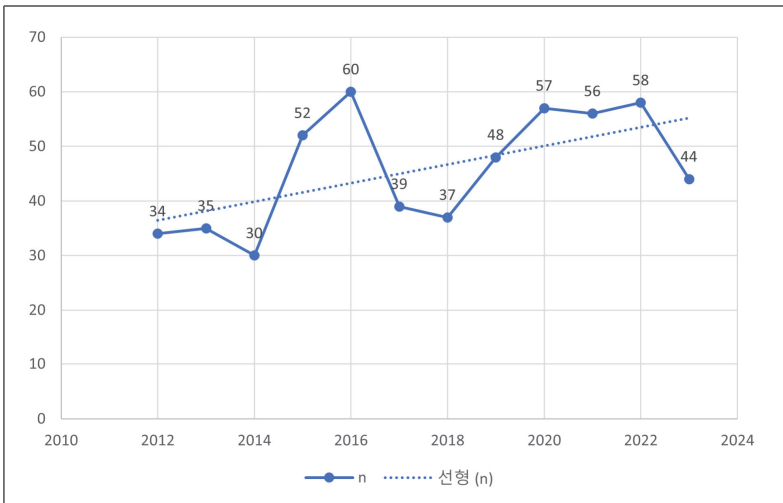
64/ 위의 책, p. 630.

65/ “구역에서 직매점을 꾸려놓고 거기에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가계획에 없는것을 더 생산한 세소상품들과 가내생산협동조합, 가내작업반들에서 만든 소비품을 가져다놓고 팔게 하면 구역별로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경쟁을 벌일수 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여,” 『노동신문』, 2019.8.3.

66/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 p. 1054.

2012년 이후 노동신문에서 평양 상점에 대한 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보도 빈도는 2012년 대비 2022년 약 2배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그 보도가 44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보도의 증가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Ⅲ-1 『노동신문』 평양 상점 보도 빈도(2012~2023)



출처: 『노동신문』을 정리하여 필자 작성.

평양의 상점과 관련된 보도는 2012년 4월에 만수교고기점이 준공되고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이 중구역과 대성구역, 선교구역과 사동구역, 력포구역과 삼석구역에서 운영을 시작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4~2015년 상점의 보도 빈도가 특히 높은 이유는 2014년 경상황금별상점, 2015년 창광상점이 새롭게 건설되고, 2015년 10월부터는 미래상점이 개점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미래상점은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상점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 제품을 판매하는 대성산상점이 개점하였다.

표 Ⅲ-2 『노동신문』에 보도된 구역별 평양 상점 수(2012~2023)

(단위: 개)

지역	상점 수	지역	상점 수	지역	상점 수	위치	상점 수
평천구역	29	대동강구역	16	동대원구역	7	형제산구역	2
중구역	27	대성구역	14	려명거리*	6	사동구역	2
보통강구역	20	선교구역	13	룡성구역	4	강남군	1
모란봉구역	17	서성구역	10	강동군	3	삼석구역	1
만경대구역	17	락랑구역	9	력포구역	3	기타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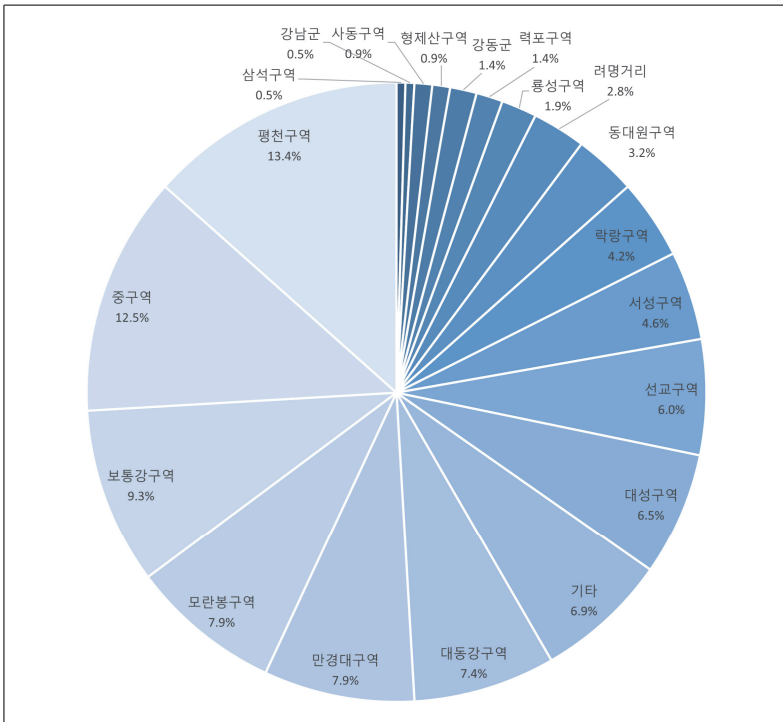
*주: 려명거리의 경우 대성구역과 모란봉구역에 걸쳐서 위치, 지역명 대신 려명거리로 구분

*출처: 『노동신문』을 정리하여 필자 작성.

노동신문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양 상점의 종류는 중복을 제외하고 216개로 파악된다. 북한의 상점은 보통 지역명으로 상점의 이름을 나타낸다. 상점의 분포는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만경대구역, 대동강구역 순으로 나타난다. 상점의 보도 빈도를 상점의 운영 활성화 정도로 가정한다면, 북한의 상점은 대동강 북안의 전통적 평양 중심지를 중심으로 국영상점의 기능이 복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구역의 평양지하상점은 평양의 대표적 상점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봄철 전국상품전시회,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국제상품전람회의 현물전시회 등 북한의 규모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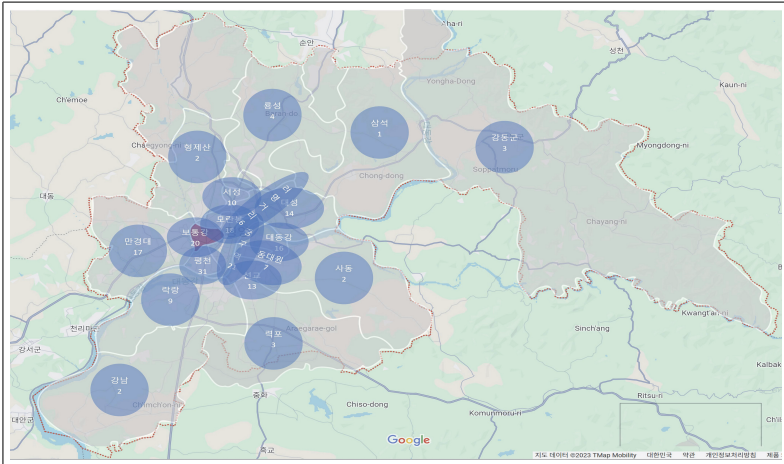
그림 III-2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 상점의 구역별 포지션(2012~2023)



출처: 『노동신문』을 정리하여 필자 작성.

대동강 북안의 전통적 평양 중심지로 일컫는 북한의 본평양 구역은 평천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 등으로 상점 보도의 47.6%가 본평양에 위치한 상점으로 파악된다.

그림 III-4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 상점의 입지(2012~2023)



출처: Google Map, 필자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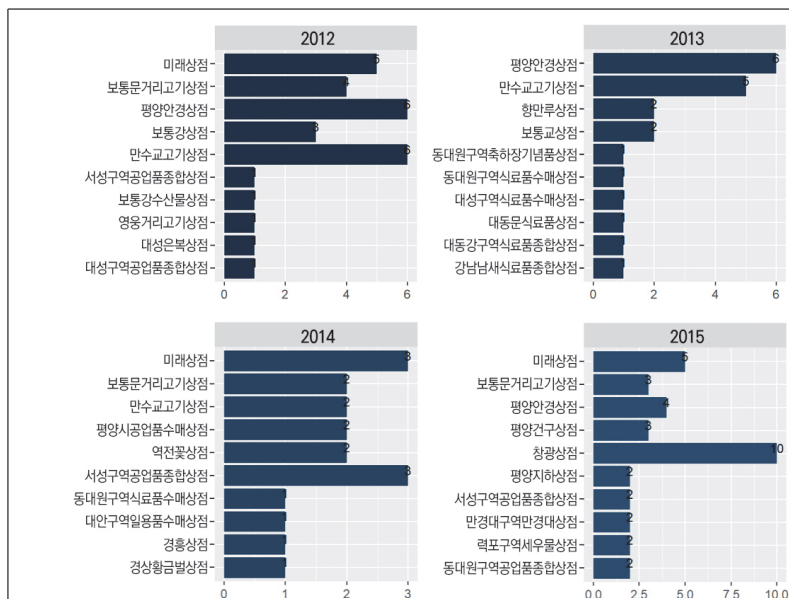
평양의 외곽지역은 강동군, 삼석구역, 사동구역, 력포구역, 강남군으로 분류되는데, 이 지역의 상점 입지 역시 중심구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상점의 규모는 선교구역에 위치한 공업품 종합상점 안에 10여 개의 상점이 입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만경대구역의 공업품종합상점 안에는 20여 개의 상점이 입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67/} 상점의 규모 면에서도 평양의 중심구역에 위치한 상점의 규모가 평양의 외곽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평양 지역은 대성구역,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 선교구역, 사동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북한의 본평양 지역 다음으로 동평양 지역에 상점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은 2014년 ‘동평양지구 상업거리’를 착공을 진행하며 상업중심거리를 조성한 바 있다.^{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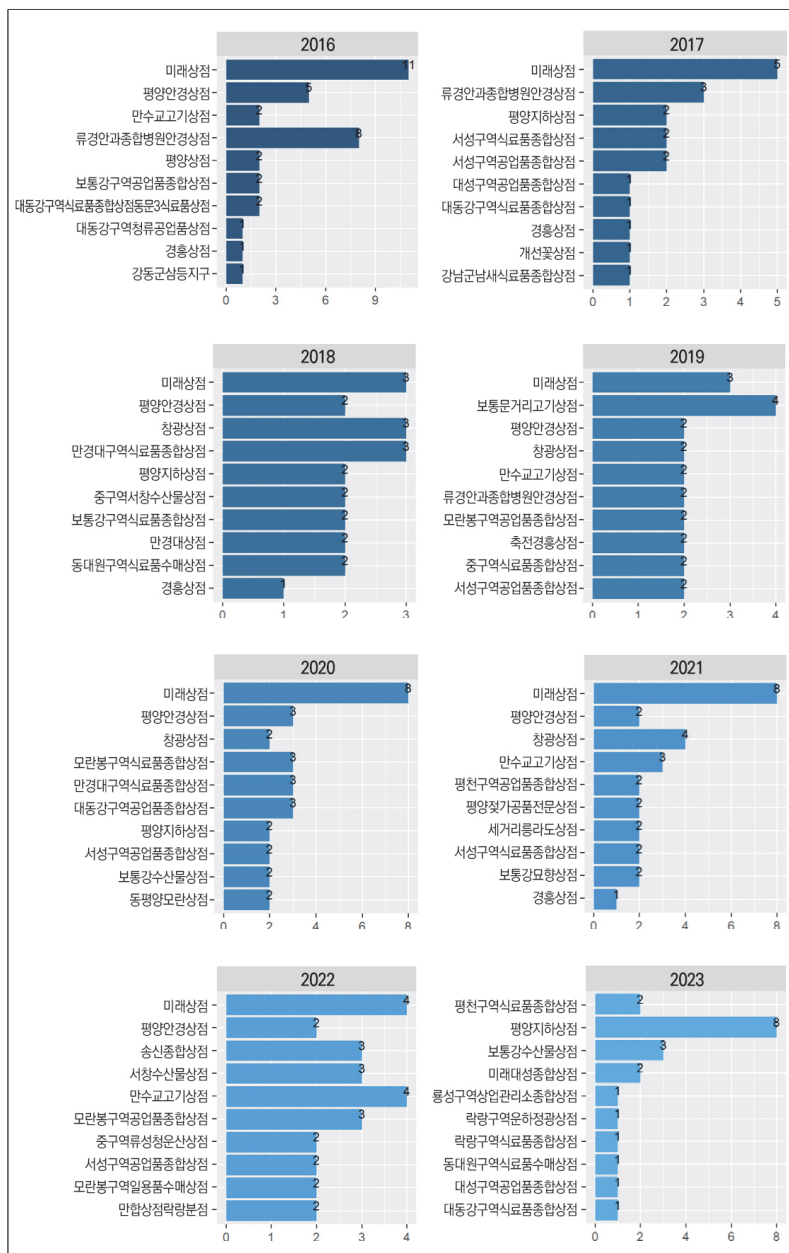
67/ “집집의 문을 두드리는 정다운 소리: 선교구역공업품종합상점 일군들과 봉사자들의 미담을 두고,” 『노동신문』, 2016.3.30.; “보여주기사업을 정상적으로,” 『노동신문』, 2023.3.17.

평양의 중심 지역, 동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상점의 상권이 더욱 발달한 것으로 파악되며, 노동신문에서 보도되지 않은 상점까지 파악한다면 그 차이는 보다 극명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징적인 것은 코로나19 이후 상점의 의약품 매대에 대한 보도가 증가한 것이다. 기존에 장마당을 통해서 의약품을 구매하던 현상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기능이 다시 상점으로 집중된 것으로 보여진다. 보도에서 언급된 의약품 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상점은 구룡산상점, 서성구역 장경선원상점, 서흥상점 대성금홍분점, 선교구역 흥복상점, 장수상점 만경대분점, 중구역 동행상점, 중구역 류성청운산상점, 태승상점, 평천구역 남송상점 평천분점, 평천구역 평천진영상점 룡교분점 등이다.

그림 Ⅲ-5 연도별(2012~2023) 상점 Top 10 보도현황



68/ “동평양지구 상업거리 착공식 진행,” 『노동신문』, 2014.11.7.



출처: 『노동신문』을 정리하여 필자 작성.

표 Ⅲ-3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의 직매점(2012~2023)

사업시설명	위치
강동군 직매점	강동군
대동강구역 직매점	대동강구역
대성구역 직매점	대성구역
동대원구역 직매점	동대원구역
락랑구역 직매점	락랑구역
력포구역 직매점	력포구역
만경대구역 직매점	만경대구역
선교고려약공장 직매점약국	선교구역
선교구역 직매점	선교구역
평천구역 직매점	평천구역
평천고려약공장 직매점	평천구역

출처: 『노동신문』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직매점의 경우 상점에 비해 그 종류와 보도 빈도가 낮으며 보도된 직매점은 대부분 평양의 외곽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직매점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4년 보도에 따르면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이 2013년 대비 1.7배 상승하였다.^{69/} 2020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113%, 2022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116%로 수행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70/} 북한은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기간 평양시에서는 100여

69/ “〈《전국가적으로 경공업을 중시하고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 1.7배 장성,” 『노동신문』, 2014.3.19.

70/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 한 토론〉 군의 특성을 살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켜나가겠다 - 리금옥대의원,” 『노동신문』, 2020.4.13.;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한 토론〉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 김창남대의원,” 『노동신문』, 2022.2.8.

중에 75만여점의 각종 수지제품과 철제일용품이, 평안남도에서는 150여중에 28만여점의 세소상품을 생산했다. 북한은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계획을 미달한 단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소비품생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71/}

나. 백화점 입지공간

2012~2023년 기준, 『노동신문』에서 보도된 평양의 백화점은 중북을 제외하고 총 11개로 파악되었다. 대성백화점의 경우 2019년 4월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진행^{72/}하였으며 북한은 평양제1백화점을 ‘평양변영기의 상징’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73/}

표 III-4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의 백화점 주요내용(2012~2023)

No	상업시설	위치	특징
1	평양 제2백화점	중구역	2020년 이후로 관련보도 없음 2016: 전국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개막 2015: 제26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폐막 2015: 제26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전국206가지일용잡화전시회,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 평양제2백화점에서 동시에 진행
2	락원 백화점	중구역 동성동 창광거리	2019: 모범준법단위칭호 2017: 3중3대혁명붉은기 2016: 2중6호모범기대영예상 2014: 26호모범기대영예상

71/ “봉화식료공장, 신포수산사업소, 강계갱목생산사업소, 신포물고기통조림공장을 비롯한 일부 단위에서도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올해 경제과업들중 급선무의 하나인 소비품생산을 강력히 내밀자〉 책임을 걸 머지고 더욱 분발해야 한다 - 최근 각 도들에서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정형을 놓고,” 『노동신문』, 202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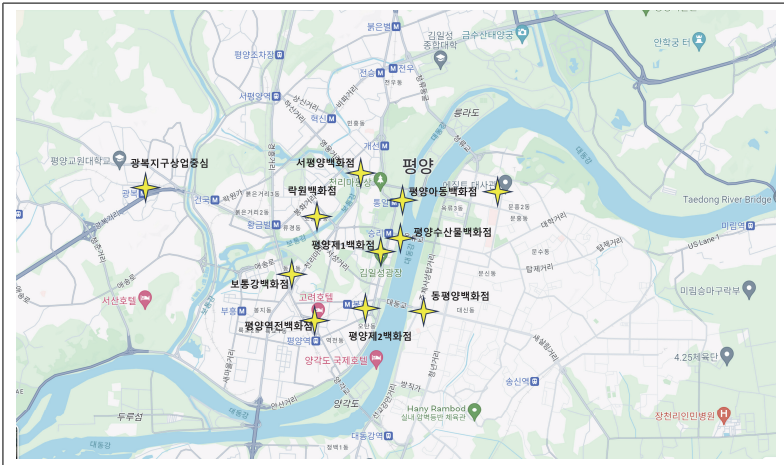
72/ “수도의 거리에 멋들어지게 일떠선 종합봉사기지: 대성백화점 준공식 진행,” 『노동신문』, 2019.4.15.

73/ “평양변영기,” 『노동신문』, 2023.8.27.

No	상업시설	위치	특징
3	평양수산물백화점	중구역	2015: 3중3대혁명붉은기 2014: 모범준법단위칭호
4	보통강백화점	보통강구역 보통강동	특이사항 없음
5	평양역전백화점	중구역	2023: 전국수산물가공제품전시회,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 봄철전국신발전시회, 3대혁명붉은기 2022: 가을철전국신발전시회 2017: 모범준법단위칭호
6	평양제1백화점	중구역 경흥동	2023: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봄철전국상품전시회(평양제1백화점, 평양아동백화점, 평양지하상점, 서평양백화점, 동평양백화점 동시진행), 3중3대혁명붉은기, 평양시민민소비품전시회 2022: 제1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2018: 제9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2016: 창립70주년,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015: 3중3대혁명붉은기, 모범준법단위칭호 2014: 현지요해, 제8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2013: 제7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2013: 제6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2012: 제5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2012: 제4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7	평양아동백화점	중구역 경상동 창전거리	3층으로 된 연면적 6천여㎡ 규모 2017: 3대혁명붉은기 2014: 26호모범기대영예상
8	서평양백화점	모란봉구역	2022: 26호모범기대영예상
9	동평양백화점	선교구역	2018: 3대혁명붉은기
10	대성백화점	대동강구역 청류2동	2023: 러시아연방정부대표단 방문 2022: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2019: 현지도
11	광복지구상업중심	만경대구역	2022: 3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출처: 2012~2023년 『노동신문』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그림 III-6 평양 백화점 입지(2012~2023)



출처: Google Map, 필자 편집.

평양 백화점은 모두 평양 중심 구역과 동평양에 입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양에 위치한 백화점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는 없고 고위 간부나 돈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각종 전시회를 백화점에서 개최하거나 백화점 이용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질적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

다. 시장 입지공간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평양에는 총 31개의 공식시장이 운영 중이다.^{74/} 북한은 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시장을 지역별로 두고 있으며, 시장관리운영에 대한 지도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또한 시장에서는 팔지 못하

74/ 홍민·차문석·김혁,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 139.

표 III-5 2022년 기준 평양의 공식시장

No	시장명	위치
1	강동시장	강동읍
2	상리구시장	상리노동자구
3	남교동시장	서성구역
4	소룡1동시장	대동강구역
5	삼석시장	삼석구역(읍) 문영동
6	송신시장	사동구역
7	능라2동시장	대성구역
8	용흥시장	대성구역
9	역포시장	역포구역
10	평천시장	평천구역
11	당상시장	만경대구역
12	찰골시장	만경대구역
13	인흥시장	모란봉구역
14	하신시장	서성구역
15	중구시장	중구역
16	낙랑시장	낙랑구역
17	원암동시장	낙랑구역
18	통일거리시장	낙랑구역
19	붉은거리2동시장	보통강구역
20	용궁2동시장	용성구역
21	신간2동시장	형제산구역
22	서포2동시장	형제산구역
23	대흥동시장	선교구역
24	문신1동시장	동대원구역
25	석박동시장	순안구역
26	배산동시장	은정구역
27	과학동시장	은정구역
28	강남시장	강남읍
29	대리구시장	대리노동자구
30	고비구시장	고비노동자구
31	송가리구시장	송가리노동자구

출처: 홍민·차문석·김혁,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p. 139.

4. 평양의 상업시설 특징

가. 상점 상권

첫째, 평양 상점의 경우, 공급 기능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으며, 김정은 시대 상점은 판매와 유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 시대와 대비되는 특징이다. 2020년 『조선신보』는 “평양에는 구역 안의 매 동들마다 식료품상점이 있는데 나라의 시책에 따라 간장, 된장, 기름을 비롯한 기초식품으로부터 달걀, 고기, 당과류 등 각종 식료품들이 이곳을 통하여 주민세대들에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77/}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평양에서 거주했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평양의 경우 기본 생필품(치약, 칫솔, 비누 등), 식료품(간장, 된장, 달걀, 맥주, 사탕, 과자, 고기, 기름) 등이 공급되고 있으며, 김정은 시기 들어 인민반을 통해 3개월에 한 번 정도 일반 상점에도 공급표를 제공한다고 한다.^{78/} 평양의 경우 국영상점이 일부 그 기능을 회복하고,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산품의 국산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 주민 역시 북한산에 대해 높은 선호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은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상점에서 식료품의 경우 중국산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산화되었다고 전했다. 중국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지방에서도 중국산보다 평양에서 생산되는 북한산 식료품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공업품의 경우는 여전히 중국상품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79/} 상점의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77/ “평양에 산나물상점으로 소문난 룡흥식료품상점” 〈조선신보〉, 『통일뉴스』, 2020. 5.14.

78/ 2017년에 탈북한 평양 출신 북한이탈주민 1씨 증언, 2023년 12월 4일 인터뷰.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매대가 너무 많고 국산품, 수입품, 중국산 제품들이 많아서 필요한 상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상점은 시장보다 가격이 조금 높지만 국산품이 많고 질 좋은 상품들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상점을 찾는 주민이 많다고 한다.^{80/}

셋째, 김정은 집권 이후 국영상점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국영상점을 개건, 현대화하면서 세련된 상업시설로 특화시키고 있다. 이 자체가 북한 주민에게 상점을 이용하게 하는 유인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영상점의 인테리어, 판매방식은 기존의 시장과 차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다. 즉, 시장은 낡고 오래된 이미지, 국영상점은 ‘팬시(Fancy)’한 이미지로 북한의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넷째, 국영상점에 판매 기능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북한의 일부 상점에서는 ‘슈퍼마켓’ 형식의 상품판매 방식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상점은 고객이 요청하면 판매원이 해당 물품을 꺼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 상점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고르고 판매원에게 결제하는 ‘쇼핑’의 판매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같은 판매방식이 평양아동백화점, 평천구역 미래공업품상점, 서성구역 장경식료품상점, 사동구역 장천상점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81/}

79/ 2017년에 탈북한 평양 출신 북한이탈주민 1씨 증언, 2023년 12월 4일 인터뷰.

80/ 2019년에 탈북한 청진 출신 북한이탈주민 2씨 증언, 2023년 12월 1일 인터뷰.

81/ “북한서도 고객이 직접 골라 산다 … 각 상점, ‘슈퍼마켓식’ 변신,” 『연합뉴스』, 2020.7.12.

그림 Ⅲ-8 송화거리에 새롭게 생긴 상점 내부



출처: “상업봉사시설들이 그뿐히 갖추어진 새 거리,” 『노동신문/news1』, 2022.5.8.

다섯째, 체인상점이 등장하였다. 2014년 12월, 평양에 편의점 형식의 ‘황금별 상점’이 도입되었다. 북한은 황금별 상점을 ‘새로운 형태의 상업’으로 소개한다. 이 상점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며 체인형태로 보통강구역, 중구역 등 세 군데에서 동시에 개점했으며 이후 모란봉구역, 락랑구역, 평천구역 등 평양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82/}

마지막으로 상점 운영이 전산화된 것이 특징이다. 상점의 판매방식에서도 전산화가 도입되고 있다. 평양시 평천구역 식료품종합상점의 경우 산하에 40여 개의 식료상점들이 입점되어 있으며 상품구입, 보관, 공급, 판매 등의 경영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미래식료품상점의 경우 카드 결제기를 도입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83/} 북한이탈주민은 남녀가 데이트 할 때 카드

82/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 (세종: 산업연구원, 2017), p. 95.

83/ “북 평천구역식료품종합상점, 경영활동 과학화로 주목 끌어,” 『통일뉴스』,

로 결제하는 것이 일종의 매력포인트로 작용된다고 증언하였다.^{84/} 이러한 문화적 인식은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나. 백화점 상권

백화점 상권이 부활한 것이 특징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과거 백화점의 경우 전시만 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판매까지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전했다.^{85/} 이는 수요만큼 물품 공급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 ‘광복지구상업중심’은 2012년 영업을 시작한 북한 최초의 대형 슈퍼마켓으로 평양의 광복거리에 개점하였다. ‘상업중심’은 쇼핑 센터의 중국식 표현으로, 한국의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유사한 형태다. 광복지구상업중심은 개점 당시에는 중국 조선족 사업가의 투자를 받았으나, 10년 뒤 운영권이 북한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상품도 초기에는 중국 수입품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북한 국내산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86/}

평양의 제1백화점은 전국 200여 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제품이 다양해 평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더불어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것에서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연장하여 백화점 이용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87/}

2018. 7. 24.

84/ 2017년에 탈북한 평양 출신 북한이탈주민 1씨 증언, 2023년 12월 4일 인터뷰.

85/ 위의 인터뷰.

86/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 ③ 종합시장과 슈퍼마켓- 상호 경쟁 유도해 가격과 물가상승 조절,” 『원불교신문』, 2021. 2. 18.

87/ “‘계산대=돈 무는 곳’ … 북한 최대 규모 백화점 내부 전격 공개,” 『SBS NEWS』, 2019. 3. 27.

백화점의 경우 시장보다 판매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88/} 특히 명품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급손목시계’(몽블랑) 1개의 가격은 4,335달러(한화 약 489만원)^{89/}, 대성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샤넬 가방은 수천 달러, 롤렉스 시계의 경우 수만 달러에 달한다.^{90/} 2010년 회령시장의 하루 매출액은 약 1,815,800원으로 1년 매출액은 약 82,845달러로 추정된다.^{91/} 북한 종합시장의 매출액을 추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매출액을 상정한다면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부 북한 국영상점 매출은 시장의 매출과 비등하거나 혹은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특징들을 통해 북한에서 강조하는 경공업, 국산화, 질제고와 기업소의 생산정상화가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에서 전시회, 평가회 등을 백화점과 종합상점에서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유입을 확대하고 유통시장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시장 상권

북한의 시장은 상점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이 차별적이다. 북한의 시장은 2003년 종합시장 정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신축되고 증축되었다. 과거에는 상점과 시장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실내인지, 실외인지였으나 2003년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종합시장에 지붕과 담벼락을 설치하여 시장의 외형이 고정되었다.^{92/}

88/ 2019년에 탈북한 청진 출신 북한이탈주민 2씨 증언, 2023년 12월 1일 인터뷰.

89/ “북한의 금지된 명품들, 어디서 났나 했더니...,” 『중앙일보』, 2017.7.18.

90/ “[북한 물가] 북한 ‘명품족’,” 『RFA』, 2023.7.3.

91/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의 시장실태 분석』 (세종: 산업연구원, 2014), p. 93의 회령시장 종합표를 참고하여 계산함. 이 추정치는 2010년 기준으로 소득수준 향상, 시장의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지 못 함. 북한 시장 매출액의 이해를 돕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개략적으로 추산함.

장마당에서는 mp3, usb 등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쌀, 고기 등의 식료품, 의류 등 다양한 물건을 상점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5. 평양 상업시설의 활성화 종합평가

북한의 유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합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영상업망이 일정 부분 회복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평양시 안에만 200여 개의 국영상점이 영업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당국이 스스로 유통업 분야에서 직접적인 시장 경제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국이 직접 대형 유통업에 진출하고, 외국과 합영합작을 통해 유통시설을 신설하고 있다.^{93/}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 합영한 평양의 ‘광복지구상업중심’이다. 국영상점은 시장보다 판매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명품관 같은 곳의 매출은 시장의 매출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생산 공급기능 정상화, 국산품의 질제고, 국영상점의 판매방식 개선, 체인상점 도입, 상점 운영 전산화, 상점의 현대화 전략 등을 통해서 국영상점을 부활시키고 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시장에서 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종합시장과 국영상점은 경쟁적 구도로 운영되었는데, 김정은 시기의 국영상점은 현대화, 고급화 전략으로 종합시장과는 차별되는 소비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김정은 시기 북한이 취한 경제개혁

92/ 위의 책, p. 86.

93/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 p. 18.

조치는 시장운영 원리를 제도 내로 포섭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면서 자영업을 제도로 포용하고 국영상점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영 상업 시설의 활성화는 국영 유통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은 시기 경제개혁조치가 체제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계획·통제·시장의 상생이며, 경제개혁적 요소가 사회적으로 안착되면서 보여지는 제도변화의 과정으로 보여진다. 국영상업의 부활은 공장, 기업소, 상점의 가동비율을 높이면서 기업 이익금, 사회보험료, 토지사용료 등의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화폐유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기관·기업소→주민→국영상점→중앙은행’으로 순환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은행에 대한 불신이 높고 북한 상품의 유통망 붕괴로 화폐 공급과 환수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해 왔다. 즉, 공급된 현금이 공적 시장보다는 암시장에서 보다 많이 통용되어 온 것이다.^{94/} 김정은 시대 시장이 제도화되고 국영상점의 기능이 일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암시장에 누적된 화폐가 국고로 환수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현금유통 체계의 회복은 다시 중앙은행의 통화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한 상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 향후 북한 주민의 상업 이용에 관한 실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북한의 유통업에 대한 종합시장과 국영상업망의 규모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 경제 백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 46.

[부록] 노동신문에 보도된 평양의 상점시설(2012.1.~2023.11.)

No	상점명	위치	보도 건수
1	강남군(강남)남새식료품종합상점	강남군	2
2	강동군대리종합상점	강동군	1
3	강동군삼등지구	강동군	1
4	개선평상점	모란봉구역	2
5	경공업성신발공업관리국천리상점	기타	1
6	경상황금벌상점	중구역	1
7	경흥꽃상점	보통강구역	1
8	경흥상점	보통강구역	6
9	광복모란상점	만경대구역	1
10	구룡산상점	대성구역	1
11	남산모란상점	중구역	1
12	대동강구역공업품종합상점	대동강구역	5
13	대동강구역립강정상점	대동강구역	2
14	대동강구역식료품종합상점	대동강구역	5
15	대동강구역식료품종합상점동문3식료품상점	대동강구역	2
16	대동강구역일용품수매상점	대동강구역	1
17	대동강구역일용품수매상점동문2수매분점	대동강구역	2
18	대동강구역일용품수매상점육류2수매분점	대동강구역	1
19	대동강구역일용품수매상점청류1수매분점	대동강구역	1
20	대동강구역채과도매소문수과일남새상점	대동강구역	1
21	대동강구역청류공업품상점	대동강구역	1
22	대동문식료품상점	중구역	2
23	대보묘향상점	보통강구역	2
24	대성구역공업품종합상점	대성구역	6
25	대성구역식료품수매상점	대성구역	3
26	대성구역식료품종합상점려명물고기상점	대성구역	1
27	대성구역일용품수매상점	대성구역	1
28	대성구역일용품수매상점미산2동수매분점	대성구역	1
29	대성구역채과도매소룡흥교과일남새상점	대성구역	1
30	대성산상점	대성구역	1
31	대성은복상점	만경대구역	1

No	상점명	위치	보도 건수
32	대신평상점	동대원구역	2
33	동대원1식료품상점	동대원구역	1
34	동대원구역공업품종합상점	동대원구역	2
35	동대원구역식료품수매상점	동대원구역	6
36	동대원구역축하장기념품상점	동대원구역	1
37	동대원금산포특산물상점	동대원구역	1
38	동대원축하장기념품상점	동대원구역	2
39	동평양모란상점	대동강구역	4
40	락랑구역공업품종합상점	락랑구역	2
41	락랑구역공업품종합상점락랑1공업품상점	락랑구역	1
42	락랑구역량정사업소	락랑구역	1
43	락랑구역식료품종합상점	락랑구역	2
44	락랑구역운하정광상점	락랑구역	1
45	락랑구역정오2과일남새상점	락랑구역	1
46	락랑구역채과도매소관문2과일남새상점	락랑구역	1
47	락랑구역채과도매소락랑3과일남새상점	락랑구역	1
48	락원대성상점	보통강구역	2
49	려명거리별축전지상점	려명거리	1
50	려명거리금산포특산물상점	려명거리	1
51	려명거리룡흥꽃상점	려명거리	1
52	려명거리서흥상점대성금흥분점	려명거리	1
53	려명거리황금노을상점	려명거리	1
54	려명꽃금봉어상점	려명거리	1
55	력포구역고기상점	력포구역	1
56	력포구역남새식료수매상점	력포구역	1
57	력포구역세우물상점	력포구역	2
58	련화2식료품상점	중구역	1
59	룡성구역상업관리소2공업품상점	룡성구역	1
60	룡성구역상업관리소종합상점	룡성구역	1
61	룡흥금산포특산물상점	대성구역	1
62	룡흥모란상점	대성구역	1
63	류경대성상점	대동강구역	1

No	상점명	위치	보도 건수
64	류경안과종합병원안경상점	대동강구역	16
65	류경장미원농수버들상점	평천구역	1
66	륙교2식료품상점상점	평천구역	1
67	릉라도서창상점	중구역	1
68	리상상점	평천구역	1
69	만경대구역공업품종합상점	만경대구역	2
70	만경대구역만경대상점	만경대구역	4
71	만경대구역식료품수매상점	만경대구역	1
72	만경대구역식료품종합상점	만경대구역	8
73	만경대구역일용품수매상점	만경대구역	1
74	만경대구역일용품수매상점당상2동수매분점	만경대구역	1
75	만경대구역항만루상점	만경대구역	1
76	만경대관광기념품상점	만경대구역	1
77	만경대상점	만경대구역	3
78	만경대혁명사적지종합상점	만경대구역	3
79	만복상점	평천구역	1
80	만수교고기상점	모란봉구역	28
81	만수교청량음료점	모란봉구역	2
82	만합상점락량분점	락량구역	2
83	만합상점중구분점	중구역	1
84	명오상점	기타	1
85	모란봉구역공업품종합상점	모란봉구역	6
86	모란봉구역식료품종합상점	모란봉구역	8
87	모란봉구역식료품종합상점전승수산물상점	모란봉구역	1
88	모란봉구역일용품수매상점	모란봉구역	2
89	모란봉구역일용품수매상점긴마을1동1수매분점	모란봉구역	1
90	모란봉구역채과도매소월향과일남새상점	모란봉구역	2
91	모란봉구역칠성문식료품상점	모란봉구역	1
92	모란봉금산포특산물상점	모란봉구역	2
93	모란봉기념품상점	모란봉구역	1
94	모란봉락원상점	모란봉구역	1
95	모란상점	모란봉구역	2

No	상점명	위치	보도 건수
96	무진공업품상점	선교구역	1
97	미래기술회사선진기술제품상점	평천구역	1
98	미래대성종합상점	평천구역	2
99	미래상점	보통강구역	56
100	보성버섯상점	평천구역	2
101	보통강구역공업품종합상점	보통강구역	4
102	보통강구역식료품종합상점	보통강구역	4
103	보통강구역식료품종합상점 신원식료품상점	보통강구역	2
104	보통강구역일용품수매상점 붉은거리1동수매분점	보통강구역	1
105	보통강구역채과도매소 신원과일남새상점	보통강구역	2
106	보통강구역태성상점	보통강구역	1
107	보통강구역황금벌꽃상점	보통강구역	1
108	보통강릉라도상점	보통강구역	2
109	보통강묘향상점	보통강구역	2
110	보통강상점	보통강구역	8
111	보통강수산물상점	보통강구역	7
112	보통교상점	기타	2
113	보통문거리고기상점	중구역	17
114	봄노을상점	평천구역	1
115	봉학과일남새상점	평천구역	1
116	봉화거리상점	보통강구역	1
117	북성꽃상점	평천구역	1
118	북성묘향상점	평천구역	1
119	사동금산포특산물상점	사동구역	1
120	삼등종합상점	강동군	1
121	삼석구역상업관리소광덕상점	삼석구역	1
122	삼흥식료품상점	대성구역	1
123	서성구역고기상점	서성구역	1
124	서성구역공업품종합상점	서성구역	15
125	서성구역수산물종합상점(당시)	서성구역	1
126	서성구역식료품종합상점	서성구역	7
127	서성구역와산식료품상점	서성구역	1

No	상점명	위치	보도 건수
128	서성구역일용품수매상점	서성구역	1
129	서성구역장경선원상점	서성구역	1
130	서창모란상점	보통강구역	1
131	서창수산물상점	중구역	4
132	서흥상점	대성구역	1
133	서흥상점대성금흥분점	대성구역	1
134	선교2과일남새상점	선교구역	1
135	선교구역공업품종합상점	선교구역	3
136	선교구역남신2식료품상점	선교구역	1
137	선교구역식료품종합상점	선교구역	5
138	선교구역영제건재상점	선교구역	1
139	선교구역일용품수매상점산업1동수매분점	선교구역	1
140	선교구역일용품수매상점장충1동1수매분점	선교구역	1
141	선교구역장충꽃상점	선교구역	1
142	선교구역채과도매소강안1과일남새상점	선교구역	1
143	선교구역평방식료품상점	선교구역	1
144	선교구역화초사업소장충꽃상점	선교구역	1
145	선교구역흥복상점	선교구역	1
146	선흥식료공장상점	만경대구역	1
147	섬광전자기구상점	평천구역	1
148	세거리릉라도상점	보통강구역	4
149	세거리모란상점	보통강구역	1
150	송신종합상점	사동구역	3
151	송암소고기상점	대동강구역	1
152	아침컴퓨터상점	평천구역	1
153	역전꽃상점	중구역	3
154	열풍과학기술보급사평천날파람상점	평천구역	1
155	영웅거리고기상점	모란봉구역	1
156	옥류약수상점	대동강구역	2
157	외성종합식료품상점	중구역	1
158	은덕상점	기타	1
159	은하대성상점	룡성구역	1

No	상점명	위치	보도 건수
160	은하종합상점	룡성구역	1
161	인흥황금벌상점	모란봉구역	1
162	장경묘향상점	서성구역	1
163	장경선원상점	서성구역	1
164	장산과일남새상점	서성구역	1
165	장수상점만경대분점	만경대구역	1
166	전승상점	기타	2
167	정흥축하장기념품상점	평천구역	1
168	중구역공업품종합상점	중구역	4
169	중구역대동문식료품상점	중구역	1
170	중구역동행상점	중구역	1
171	중구역류성청운산상점	중구역	2
172	중구역서창수산물상점	중구역	2
173	중구역식료품수매상점	중구역	2
174	중구역식료품종합상점	중구역	5
175	중구역식료품종합상점련화2식료품상점	중구역	1
176	중구역옥류약수상점	중구역	1
177	중구역일용품수매상점	중구역	1
178	중구역채과도매소교과일남새상점	중구역	1
179	중구역채과도매소련화1과일남새상점	중구역	1
180	중구역화초사업소경루꽃상점	중구역	1
181	중성꽃금붕어상점	중구역	4
182	창광상점	평천구역	23
183	천리상점	기타	1
184	청춘상점	만경대구역	1
185	청해상점	평천구역	1
186	축전경흥상점	기타	5
187	충성동양상점	기타	1
188	철성문식료품상점	중구역	1
189	태승상점	기타	1
190	팔골젓가공품상점	만경대구역	1
191	평성경흥상점	대성구역	1

No	상점명	위치	보도 건수
192	평양건구상점	기타	7
193	평양산원꽃상점	대동강구역	3
194	평양상점	기타	4
195	평양시공업품수매상점	기타	2
196	평양안경상점	모란봉구역	34
197	평양우표수집가상점	기타	1
198	평양젓가공품전문상점	기타	2
199	평양지하상점	중구역	23
200	평양축하장기념품상점	중구역	6
201	평천구역공업품종합상점	평천구역	4
202	평천구역남송상점평천분점	평천구역	1
203	평천구역미래식료품상점	평천구역	2
204	평천구역봉지과일남새상점	평천구역	1
205	평천구역식료품종합상점	평천구역	8
206	평천구역안산2동건합상점안산분점	평천구역	1
207	평천구역일용품수매상점	평천구역	1
208	평천구역일용품수매상점봉남1수매분점	평천구역	1
209	평천구역일용품수매상점해운1동1수매분점	평천구역	1
210	평천구역평천려명상점	평천구역	1
211	평천구역평천진영상점육교분점	평천구역	1
212	평천삼일포특산물상점	평천구역	2
213	항만루상점	만경대구역	4
214	혁신거리상점	기타	1
215	형제산구역남새식료수매상점	형제산구역	1
216	형제산구역상업관리소하당1상점	형제산구역	1
합 계			595

출처: 『노동신문』 보도를 필자 정리.

IV. 평양의 공장과 노동자 공간의 변화

차문석 (국립통일교육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평양의 공장과 노동자 공간의 변화^{95/}

평양은 어떤 주제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른 이미지를 가진 도시로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공장과 노동자, 그리고 그들이 차지해 온 공간들을 주제로 삼아 평양을 드러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사회에서 공장은 그 사회의 “근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공장은 근대에 만들어지고 역으로 그 사회의 특정한 근대를 생산한다. 공장은 총제적인 범위에서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해당 사회의 사람들의 삶들도 (재)생산한다. 특정 사회 속에 내재하여 작동되는 공장들은 특정 사회의 성격과 윤곽을 살펴보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된다. 북한의 근대와 공장도 동일한 인식론에 기초해서 볼 수 있다. 북한의 근대(성)는 사실은 그것의 물리적 토대가 되는 공장, 그리고 생산과 노동에 기반해서 형성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근대”의 핵심에는 평양과 그 공장들이 존재한다.

평양은 북한의 그 어느 도시보다, 그리고 동시대 다른 국가들의 도시에 비해 월등하게 공장이 많이 소재하는 ‘공장 도시’라 할 수 있다.^{96/}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미 평양은 군수산업을 비롯하여 중공업이 많이 들어섰고 이로 인하여 철도를 비롯한 도시 기간 시설들이

95/ 본 장은 2023년 12월 12일 ‘2023 KINU 북한도시포럼’에서 발표한 “평양 공장과 공간”을 수정, 보완한 내용이다.

96/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파주: 효형출판, 2012), p. 73. 공업용지의 비율은 서울이 2.8%임에 비해 평양은 19%가 넘는다.

많이 갖추어졌다. 6.25전쟁 이후에도 공장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을 신속히 복구한 정책 결과로 평양은 여전히 공장 도시의 면모를 유지해 왔다. 1970년대에 연간 200여 개의 공장이 북한에 신설될 때에도 그 10%가 평양에 지어졌다.^{97/} 하지만 사회주의 수도 평양 그리고 정치적 상징도시로 알려져 있는 까닭에 공장 도시 평양이라는 용어는 낯설다.

북한의 근대적·정치적 표상체제와 정치경제적 구조들은 대체로 공장 도시 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주도되고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장 도시로서 평양이 가진 이러한 근간들을 고려해서 평양을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근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질적 차원에서의 평양의 변질(變質)을 예견해야 한다. 평양의 변질은 사실상 북한의 변화와 직접 연동된다. 북한의 변화는 평양에서 시작하고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들의 도시에서처럼 평양이라는 도시에 시장경제와 시장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사회주의 공장 공간(공장 입지와 그 부속 공간들)과 노동자 공간이 공격을 받게 된다. 변화로의 압박은 불가피해진다. 평양처럼 기존의 도시 공간이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압박과 충격은 클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공장 도시 평양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노동자 공간에 시장의 힘이 들 이닥치게 되면 평양의 이미지와 도시 개념도 변화할 것이다. 이는 북한 자체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여기서는 첫째, 평양과 공장이 그 인연을 맺게 되는 시점부터 평양의 공장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현재 공장 도시 평양이라는 용어가 유효한지 아니면 변질되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본다. 이는 공장 공간에 대한 당국의 계획적 배

97/ 위의 책, p. 149.

려 현황(재정, 가동상황 등)을 통해서 검토된다. 그리고 셋째, 공장
과 노동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공장 공간과 노동자 공간을
연결시켜 살펴본다. 평양의 공장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은 현재 공장
과 관련하여 어떤 삶에 봉착해 있는지를 노동자 공간(거주지 등) 변
화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넷째,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적으로 계
획된 ‘공장 도시로서의 평양’이 현재 어떤 도시로의 변화를 압박받고
있는지 그 윤곽을 다소간 시험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1. 공장 도시, 평양의 윤곽

가. 공장 도시 평양

평양은 사실상 ‘공장 도시’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중공업 및 제조
업 공장들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평양이다. 또한
북한의 다른 도시보다 다양한 업종과 품목의 공장·기업소들이 소재
하고 있다. 평양의 정권이 가장 중시하는 고(高)기술의 군수공장들
(미사일 생산 등)도 평양에 다수 존재한다. 해방과 북한 체제 수립
이후 평양의 공장들은 정권에 의해 그리고 계획체제에 의해 특수하
게 배려 받아왔다. 하지만 평양에 많은 공장들이 소재하고 중앙의
중요한 계획적 배려를 받는다고만 해서 ‘공장 도시’인 것은 아니다.
평양의 공장들은 북한 체제에서 공장-생산-노동을 통한 새로운 사
회주의 도시, 사회주의 문명, 사회주의 정치를 창조하는 물질적 토
대로서 기능해 왔다. 생산에서 모범(노동영웅 등)을 만들고 속도(천
리마 속도, 평양 속도 등)를 만들어 중앙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그 심대한 기능이 물리적으로는 바로 평양의 ‘공장’에서 탄생했기 때
문이며, 이것이 북한의 정치를 가능케 했다.

2023년 3월에 공개한 산업연구원(KIET)의 북한 산업·기업DB(이하 KIET DB)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북한의 국영기업(제조업, 에너지, 광공업 포함)의 수는 3,484개에 이른다.^{98/} 평양에 소재하는 북한의 국영기업은 546개로 1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양은 평안남도(남포시 포함, 556개, 16%)에 이어 북한에서 가장 많은 국영기업이 소재하고 있다.^{99/} 도(道)가 아닌 단일 시(市) 차원에서 보면 비교 불가할 정도로 많은 국영기업이 소재하고 있다(〈표 IV-1〉 참조).

표 IV-1 국영기업의 지역별 분포

순위	지역	기업수(개)	비율(%)
1	평안남도	556	16
2	평양	546	15.7
3	함경남도	408	11.6
4	평안북도	370	10.6
5	황해북도	338	9.7

자료: 이석기, “KIET 북한 산업·기업 DB를 통해 본 북한의 산업 및 기업 현황,” 『KIET 산업경제』, 298호 (2023), p. 45.

KIET DB에 따르면, 북한 전체의 3,484개 국영기업 중 제조업 기업은 경공업 1,565개, 중화학공업 1,272개 등 총 2,837개였다. 광업의 경우 탄광 191개를 포함하여 모두 389개이며, 에너지 기업은 수력발전 216개를 포함하여 231개였다.^{100/} 이 중 제조업 기업은 평양에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다. 평양은 모두 517개의 제조업 기업이

98/ 2023년 3월 KIET에서 공개한 북한 산업·기업DB(<http://nkindustry.kiet.re.kr>)는 2000년 이후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의 기사를 토대로 기업들을 확인하고 이들 기업들의 업종, 소재지, 생산품, 설비 및 조직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석기, “KIET 북한 산업·기업 DB를 통해 본 북한의 산업 및 기업 현황,” 『KIET 산업경제』, 298호 (2023), p. 40.

99/ 위의 글, p. 45.

100/ 위의 글, p. 45.

소재하여 북한 전역의 1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공장 도시로서의 평양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2위인 평안남도(15.76%)가 남포를, 3위인 함경북도(11.74%)가 라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평양은 거대한 공장도시이다(〈표 IV-2〉 참조).

표 IV-2 제조업 기업의 지역별 분포

순위	지역	기업수(개)	비율(%)
1	평양	517	18.22
2	평안남도	447	15.76
3	함경남도	333	11.74
4	평안북도	308	10.86
5	황해북도	275	9.69
6	함경북도	251	8.85
7	자강도	194	6.84
8	강원도	178	6.27
9	황해남도	170	5.99
10	양강도	74	2.61
지역 미상		90	3.17
합계		2,837	100

자료: 이석기, “KIET 북한 산업·기업 DB를 통해 본 북한의 산업 및 기업 현황,” p. 47, 〈표3〉을 기업수가 많은 순으로 재정렬.

평양에는 또한 주민들에게 의류를 공급하는 의류기업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등을 포함해 모두 121개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다.^{101/} 물론 1차 금속기업 같은 경우는 원자재의 부존조건 등이 기업의 소재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양에는 거의 없고 당연히 함경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등에 많이 소재한다.^{102/}

^{101/} 위의 글, p. 47.

^{102/} 위의 글, p. 47.

2021년 8차 당대회의 결론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염두에 두고 “시범적으로 연구도입되고있는 방법들과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잘하고있는 단위들의 경험을 결부시킬 것”을 지시했다.^{103/} 여기서 평양의 공장들이 모범적인 단위들로 언급되었다.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베어링공장을 포함한 국가기간 산업체들이 호명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새로운 기업관리방식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평양 공장이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그 실천방안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는 다소 논쟁적일 수 있다.^{104/}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자체가 기업체 차원의 관리 운영 방법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평양의 공장과 기업이 구체적으로 관리 운용되어 왔던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105/}

사회주의 수도 평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역사적으로 국가 재원의 상당 부분을 평양과 평양 소재의 주요 공장기업소에 집중 투자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공장 도시로서의 평양이 어떤 면모를 갖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평양의 기업들에 어떤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10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결론,” 『노동신문』, 2021.1.13.

104/ 2018년에 들어와 4월, 7월, 8월, 그리고 10월에 『노동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다시 강조하였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나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평양과 같은 도시에서 실제로 작동했던 상황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 방식으로 잘 작동했는지, 아니면 돈주들이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등 매우 비계획적-현실적으로 기업이 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독립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105/ 이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서술될 ‘김정은 정권 시기 평양 공장 동향’에서 다룰 수 있는 수준에 한하여 다룬다.

나. 평양의 공장 공간, 역사와 현재

평양의 공장 공간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 국면을 거친다. 하나는 일제의 공업화와 산업시설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 또 하나는 6.25전쟁 이후 평양 도시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일제강점기의 평양 도시 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평양 도시 공간이 6.25전쟁의 대규모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그 위에 사회주의 계획도시 평양으로 다시 재구성된 것이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평양을 본평양 지역과 동평양 지역으로 구분한다면, 평양의 공장들은 본평양의 경우 평천구역에 있었다. 일제는 평천리 근처에 공장, 군사 및 철도 시설 등을 설립하였다. 동평양 지역에서는 공장들이 선교구역, 동대원구역, 대동강구역 인근에 분포하였다. 이 지역들 인근에 노동자들이 거주하면서 공장 노동에 종사하였다.^{106/} 선교구역은 일제강점기에 전체가 공장지대였다. 당시 평양방직공장(舊가네가후치 방직공장) 등 여러 공장 시설들이 설립되었고 이로 인해 6.25전쟁 때 폭격의 목표가 되었다. 6.25전쟁 이후 동일 공간에 소련의 기계와 기술로 평양방직기계공장과 견방직 공장으로 재건되었다.^{107/} 동평양 지역 중 대동강구역은 공장과 노동자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공간이었다. 동평양 대동강구역은 1930년대에 대동교를 건설하면서 일본의 대기업 공장과 노동자 주거지가 건립되었다.^{108/} 하지만 6.25전쟁을 겪으면서 전술한 모든 공장 공간들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06/ 1960년대 중반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피해 북한에 들어왔던 화교들이 이 지역에서 노동자로 일자리를 얻어 노동자로 전환되었다.

107/ 김태운, “북한에는 산업유산이 존재하는가?: 평양의 산업시설을 통해 본 산업유산화 정책의 미래,”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제33호 (2023), pp. 96~97.

108/ 이시효·김성배·김명희, “평양 일탈공간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4권 1호 (2022), p. 77.

그림 IV-1 선교리 공장지대와 6.25전쟁 시기의 폭파된 공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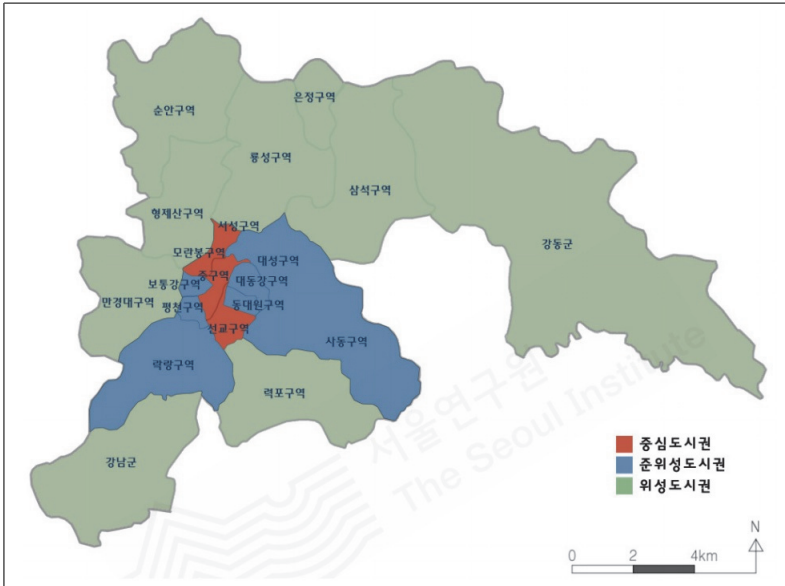


출처: 김태윤, “북한에는 산업유산이 존재하는가?: 평양의 산업시설을 통해 본 산업유산화 정책의 미래,”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제33호 (2023), p. 96.

6.25전쟁 이후 1960년대에 확정되어 실행된 평양시 종합개발계획은 중심-준위성-위성도시권의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행되었다. 중심도시권은 중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 선교구역이었고, 준위성도시권은 보통구역, 평천구역, 대성구역, 대동강구역, 락랑구역, 사동구역, 동대원구역, 그리고 위성도시권은 농업 및 목축업을 위해서 기획된 공간이었다(〈그림 IV-2〉 참조). 도시계획상 공장 공간의 분포는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사회주의 도시들은 도시의 산업적 기능과 생산을 중요시했고, 평양도 또한 공장 공간을 도심 인근 지역에 대규모로 위치시켰다.^{109/}

^{109/} 권영덕 외, 『평양 도시계획 이해하기』 (서울: 서울연구원, 2014), p. 32; 민경태, “평양의 산업구조 변화와 전망,” 『서울학연구』, 제84호 (2021), p. 171.

그림 IV-2 1960년대 평양시의 중심-준위성-위성도시권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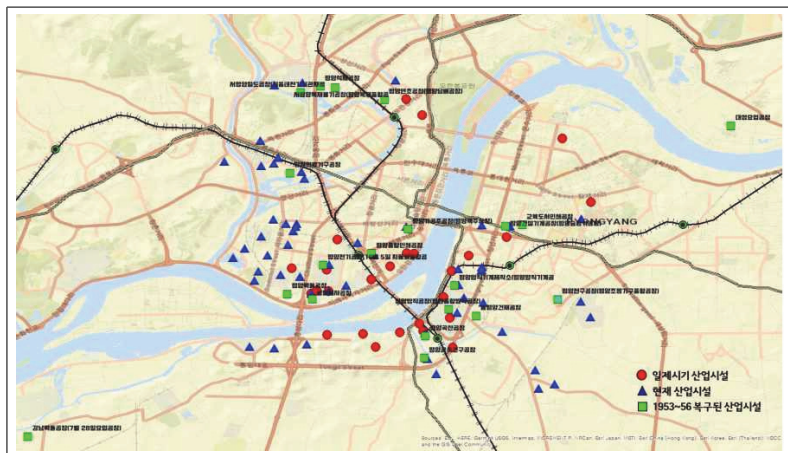


자료: 권영덕 외, 『평양 도시계획 이해하기』 (서울: 서울연구원, 2014), p.32

하지만, 평양의 전체 도시 공간과는 달리 6.25전쟁 이후 평양의 공장 공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 구축되었다. 첫째,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공장 산업 시설을 복구하거나 재건하였다.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은 산업국유화 이후 북한의 소유가 된 공장들을 새 명칭을 붙여서 계속 사용하였다.^{110/} 선교리의 평양방직공장(舊가네가후치 방직공장)은 동일 공간에 재건되었다. 따라서 평양의 공장 공간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10/} 가령, 현재의 평양곡산공장은 원래 일제 때 건설된 일본곡산회사평양공장이었다. 손전후, 『산업국유화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46.

그림 IV-3 평양의 산업시설 분포도(일제시기-1956년-현재)



자료: 김태운, “근현대 평양의 도시계획과 공간변화 연구(1937-1960),”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22, p. 182.

둘째, 6.25전쟁 폭격 이후 일제강점기의 공장 시설을 끝내 복구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시설을 만든 공간이 있다. 선교구역, 평천구역과 달리 문수지구, 즉 현재의 대동강구역은 복구되지 못하였다. 6.25전쟁 당시 평양비행장이었던 문수지구는 폭격으로 주택지구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당창건기념탑이 만들어졌다.^{111/}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경공업 공장들을 확충하면서 7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200개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였다고 하며, 이 중 평양에 신설한 공장은 약 10%의 비율로 알려져 있다.^{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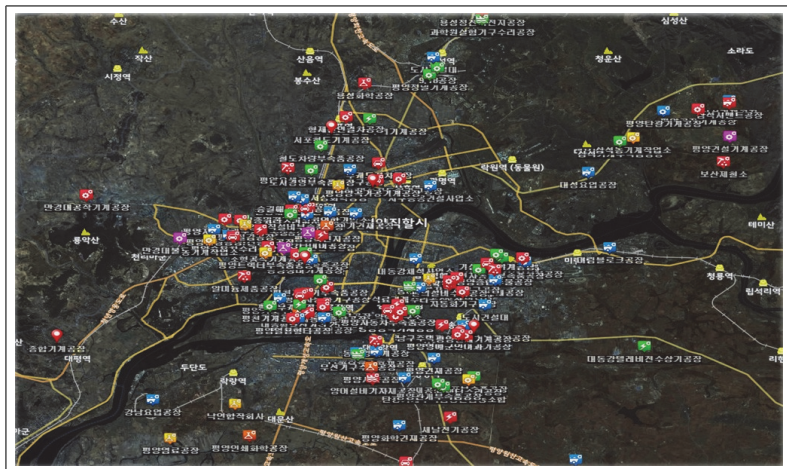
요컨대, 현재 평양의 중요 공장 공간을 단순화해서 말하면 주로 평천구역, 서성구역, 선교구역, 대동강구역, 화성구역(舊 룡성구역) 등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그림 IV-4, 5〉 참조). 평천구역에는

111/ 김태운, “북한에는 산업유산이 존재하는가?: 평양의 산업시설을 통해 본 산업유산화 정책의 미래,” p. 100.

112/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p. 149.

평양전기공장, 평양3.26전선공장, 통신기계수리공장, 평양기기기구수리공장, 평양제사공장, 평양벽돌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다. 서성구역은 서평양역이 위치한 지역으로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김종태 전기기관차공장 등 차량제작 부문의 기계공업이 집중되어 있다. 선교구역에는 평양종합방직공장 등 섬유·의류분야의 경공업이 집중되어 있고 이를 지원하는 평양방직기계공장, 평양중기계공장, 평양 고무공장, 평양제약공장 등 기계공업도 이곳에 입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성구역은 북한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군수공장들이 많이 입지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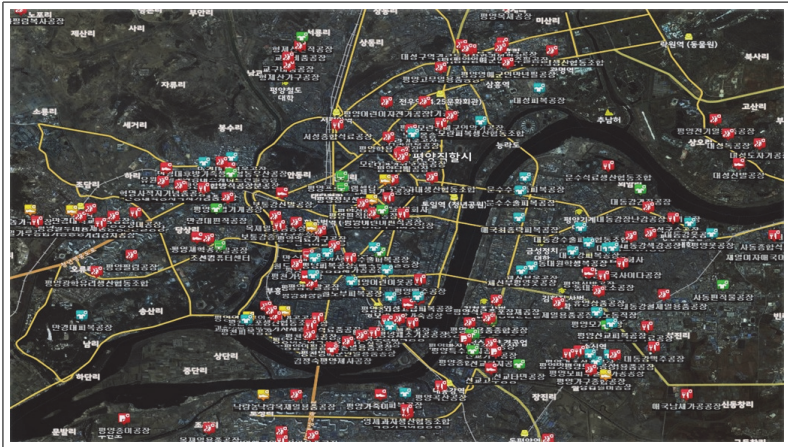
그림 IV-4 현재 평양의 중공업공장 분포



설명: 현재 평양의 중공업공장의 분포를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한 그림.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지도 공간검색 (<https://nkinfo.unikorea.go.kr/NKMap/main/viewMaIn.do>), 재인용: thethe03의 블로그, “평양의 인프라&평양의 시장&평양의 건물, 시설” (<https://blog.naver.com/thethe03/222015429127>) (검색일: 2023.12.15.).

그림 IV-5 현재 평양의 경공업공장 분포



설명: 현재 평양의 경공업공장의 분포를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한 그림.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지도 공간검색 <<https://nkinfo.unikorea.go.kr/NKMap/main/viewMa>
in.do>, 재인용: thethe03의 블로그, “평양의 인프라&평양의 시장&평양의 건물, 시설” <<https://blog.naver.com/thethe03/222015429127>> (검색일: 2023.12.15).

2. 평양 공장의 통계적 현황^{113/}

평양에 소재한 모든 공장들을 확인하기는 힘들기에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공장들^{114/}만을 정리해도 공장 도시 평양의 윤곽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평양의 공장들은 크게 3가지 계통의 관리를 통해서 운용된다. 첫째, 내각 공업성(경·중·건설·금속 등) 관리국에 의

113/ 본 절에서 거명되는 공장들 그리고 그 공장의 세부 사항들, 즉 종업원 수와 같은 수치들은 『노동신문』 등 북한의 주요 매체들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을 참조하였다. 그 외의 참고문헌은 각주로 별도 표기하였다.

114/ 『노동신문』 등 북한의 주요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공장들을 말한다. 여기서는 『노동신문』 등 북한의 주요 매체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을 참고하여 공장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특히 특급, 1~3급의 중앙급 공장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기계공업, 섬유공업 등의 분류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주를 활용해 필자가 임의로 분류했다.

한 지도, 둘째, 노동당의 해당 부서 지도국에 의한 지도, 셋째, 제2경제위원회에 의한 지도이다. 현실적으로는 3가지 계통의 관리가 단일적으로 집행되지는 않는다. 대부분 평양의 공장들은 내각 공업성 관리국의 지도를 받으면서 중앙당의 지도(가령 수출품 생산)를 받기도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각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2경제위원회의 지도(가령 군수품 생산)를 받기도 한다. 평양의 군수공장들은 대부분 제2경제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계공업 등 일반 공장들을 먼저 정리한 뒤에 군수공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가. 기계공업

평양의 기계공업은 북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15/} 평양에는 기계공업 관련하여 약 91개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은 기계공업이 필요로 하는 기본원료의 공급 조건이 유리하고 제품의 수요지에 접근해 있어 생산적 연계를 맺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평양의 전기기계공업은 기계공업에서 주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116/} 평양은 또한 방직기계 공업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다. 방직기계공장들은 주로 방직, 편직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선교구역이나 보통강 산업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115/ KDB산업은행, 『2020 북한의 산업 II』 (서울: KDB산업은행, 2020), p. 156.

116/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기계공업,” <https://nkinfo.unikorea.go.kr/nkp/page/view.do?jsessionid=llxq24H67Lx54YWTdjy-3EtWvoLqxMEcG-t9757K,ins12?menuId=MENU_55> (검색일: 2023. 12. 15.).

표 IV-3 전기전자기계공업

■ 평양전선공장(평양326전선공장)^{117/★} ■ 보통강전기공장★ ■ 평양전구공장 ■ 새날전기공장 ■ 평양전기기구공장 ■ 10월5일자동화기구공장(舊평양전기공장) ■ 평양자동차기구공장 ■ 평양제침공장 ■ 평양소형전동기공장 ■ 상원전기공장 ■ 평양에나멜선공장 ■ 평양영화기계공장 ■ 평양도자기공장^{118/} ■ 평양집적회로공장 ■ 평양프로그램센터 ■ 평양컴퓨터조립공장 ■ 대동강축전지공장(245호공장)^{119/★} ■ 보통강전기공장^{120/} ■ 대동강TV수상기공장 ■ 평양통신기계수리공장★ ■ 평양통신기계공장★ ■ 동평양금속건구공장 ■ 평양영예군인 통신기계수리공장★ ■ 평양알루미늄제품공장 ■ 6월1일청년전기기구공장 ■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주: 공장명★는 군수품도 생산하며 제2경제위원회의 지도도 받고 있는 공장

출처: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nkp>) 등을 참조하여 필자 정리.

표 IV-4 공작기계/탄광광산기계/방직기계 공업

공작기계	■ 만경대공작기계공장(2급기업소, 계향소공장) ■ 평양공작기계공장(2급기업소)^{121/} ■ 평양주철관공장 ■ 평양정밀기계공장(3월25일공장, 특급기업소)^{122/} ■ 평양측정기계공장 ■ 평양건설기계공장(85건설기계공장) ■ 평양락원기계공장 ■ 5월7일공장(연마석, 연마지) ■ 10월1일자동화기구공장 ■ 평양도량형공장(2급기업소)
베어링/ 정밀기계	■ 9월19일(평성자동차)공장 ■ 3월25일공장 ■ 평양시계공장 ■ 룡성베어링공장(9월18일공장)^{123/★} ■ 서평양베어링공장(탄차-炭車- 베어링 생산)★ ■ 평양강동정밀기계공장(1급기업소)
탄광광산기계	■ 평양탄광기계공장(3월30일공장)★ ■ 동평양기계공장 ■ 역포부속품공장

117/ 평양시 평천구역에 소재하며, 북한 최대의 전선케이블 생산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전선을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한다. 김정일이 현지지도하면서 “우리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공장”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평양326전선공장은 공장현대화 ‘표본,’” 『DAILY NK』, 2005.11.6.

118/ 고압애자를 생산한다.

119/ 평양시 평천구역에 소재하며 북한의 대표적인 축전지 공장이다.

120/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소재하며 전동기, 발전기 등을 생산한다. 1963년 평양전기분공장에서 1964년 보통강전기공장으로 승격되었다.

121/ 1956년 6월 희천공장기계공장 노동자들이 평양에 동일한 공장을 건설할 것(일종의 새끼치기)을 결의하여 만들어진 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122/ 평양시 룡성구역에 소재하며, 재봉기 2만 대, 각종 베어링 200만 개, 시계 10만 개 등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종업원 수는 약 3,500명으로 특급기업소이다.

123/ 종업원 규모 약 5천 명이며 연간 1천만 개의 베어링을 생산한다.

방직기계	■ 평양방직기계공장 ■ 평양편직비늘공장 ■ 평양편직설비부속품공장 ■ 평천재봉기부속품공장
------	---

주: 공장명★는 군수품도 생산하며 제2경제위원회의 지도도 받고 있는 공장

출처: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nkp>) 등을 참조하여 필자 정리.

표 IV-5 중기계공업

■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舊 평양전기기관차공장)^{124/} ■ 평양무게도전차공장(舊 평양화물자동차수리공장) ■ 평양농기계공장 ■ 평양대성타이어공장^{125/★} ■ 평양만경대차수리공장	■ 평양화물자동차공장 ■ 만경대불도저공장★ ■ 평양종합건설기계수리공장 ■ 평양건설기계공장(85건설기계공장)^{126/}
--	---

주: 공장명★는 군수품도 생산하며 제2경제위원회의 지도도 받고 있는 공장

출처: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nkp>) 등을 참조하여 필자 정리.

나. 섬유공업

북한의 섬유공업은 주로 내각 경공업성의 편직공업관리국/방직공업관리국과 노동당의 은하지도국 등(은하무역총회사 및 조선비단연합총회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의류공장이나 직물공장은 지방행정기관의 ‘피복관리국’에서 관할하고 있다.^{127/} 방직공업관리국 산하에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舊평양방직공장) 등의 방직공장이 있으며, 편직공업관리국 산하에는 평양양말공장, 애국편직물공장, 평양어린이편직공장 등의 편직공장이 속해 있다.

피복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관리계통이 있다. 내각의 경공업성 산하 피복총국 계통이 있고, 노동당 산하 은하지도국, 대성지도국, 봉화지도국 등의 계통이 있다. 평양의 피복공장들(특히 수출피복)은

^{124/} 평양 서성구역에 소재하며,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객차 및 화차 등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 최대의 기관차 제작공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1969년 7월에 현재의 공장명으로 바꾸었다. 연간 생산능력은 30대 정도로 알려져 있다.

^{125/} 군수물품 생산을 병행하며 특히 군용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126/} 승강기도 생산한다.

^{127/} 이상직·최신립·이석기, 『북한의 기업』 (서울: 산업연구원, 1996), p. 73.

중앙당 산하에서 관리하는 공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28/}

은하무역총회사 산하에는 선교피복공장(평양시 선교구역)^{129/}이 소속되어 있으며, 조선비단연합총회사 산하에는 평양제사공장 등 제사 및 견직공장들이 관할되어 있다. 견직공장은 평양과 주요 누에 고치 산지 등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견사를 생산하는 제사공장으로는 평양제사공장 등이 있다. 견직물의 경우, 평양제사공장 등에서 견직사를 생산하여 견직물공장에 공급한다. 북한의 방직공장은 대부분 방직과 제직을 겸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직공장인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은 20만 추의 정방기와 3천여 대의 직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직 연간 2천만m², 제직 연간 약 1억 3,800만m²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 IV-6 섬유피복공업

■ 김정숙평양방직공장 ^{130/}	■ 평양제사공장(김정숙제사공장) ^{131/}	■ 평양양발공장 ^{132/}
■ 모란봉합영회사	■ 동평양방직공장	■ 평양선교피복공장
■ 신동피복공장	■ 중구피복공장	■ 제일피복공장
■ 평양피혁공장	■ 선교편직공장	■ 애국편직물공장
■ 은하피복공장(모란봉구역)	■ 선교편직공장	■ 애국편직물공장
■ 평양어린이편직공장	■ 대동강피복합영회사	■ 조선피복합영회사
■ 낙원성화피복합영회사	■ 능라합영회사	■ 봉선화합영회사
■ 진달래합영회사	■ 요원피복합영회사	■ 평양피복합영회사
■ 평양합영종합회사	■ 전진합영회사	

출처: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nkp/>) 등을 참조하여 필자 정리.

128/ 평양시 모란봉구역(은하피복공장 등), 중구역 등 11개의 중심구역에만 중앙당 산하 수출피복공장이 최소 500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노동자는 500~1,000명의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북, 우크라 참전 러시아 군복 임가공 대량 주문받아,” 『RFA』, 2022.11.7.

129/ 선교피복공장은 경공업성 편집공업관리국의 지도도 받고 있다. 수출피복을 생산하는 경우 노동당 산하의 은하지도국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130/ 종업원 12,000명 규모의 공장이다.

131/ 종업원 2,000명 규모의 공장이다.

132/ 2010년 12월 10일 김정일이 현지지도하였다.

다. 신발공업

평양은 신의주와 더불어 북한의 신발공장 배치가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곳이다. 이 두 도시의 신발공장을 합하면 북한 전체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3/} 평양의 신발공업은 경공업생산하의 신발공업관리국에 의해 관리된다. 평양신발공장, 평양영화비닐신발공장, 평양가죽이김공장 등이 신발공업관리국의 지도를 받고 있다.

표 IV-7 신발공업

- | | | |
|------------------------------|--------------------------|--------------------------|
| ■ 평양영화비닐신발공장 ^{134/} | ■ 평양신발공장 ^{135/} | ■ 보통강신발공장 |
| ■ 평양구두공장 ^{136/} | ■ 평천구두공장 ^{137/} | ■ 창성신발공장 |
| ■ 보통강신발공장 ^{138/} | ■ 평양가죽이김공장 | ■ 평양신발형태공장 |
| ■ 평양신발기계공장 | ■ 평양합성가죽공장 | ■ 선교고무공장 ^{139/} |
| | | ■ 류원신발공장 ^{140/} |

출처: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nkp>) 등을 참조하여 필자 정리.

라. 식료가공업

평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식품가공업이 압도적으로 발달되었다. 대규모 음식료 원자재 공장(공물 및 기타 식료가공)으로 평양곡산공

133/ 박태호, “북한의 산업(VI): 신발산업,” 『통일경제』, 2001년 1·2호 (2001), p. 28.

134/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소재하며, 비닐화를 생산하고 연간 700만 켤레의 신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35/ 지방 산업공장에서 중앙 경공업공장으로 발전하였다.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소재, 연 600만 켤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동화, 샌들, 비닐신발을 생산한다.

136/ 평양시 평천구역에 소재하며 1971~1976년에 조업을 개시했다. 연 150만 켤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죽구두와 인조가죽구두를 생산한다.

137/ 평양시 평천구역에 소재하며 연간 100만 켤레의 고무신과 운동화를 생산한다.

138/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소재하며 연간 700만 켤레의 가죽신, 합성구두, 사출운동화, 비닐신, 방신을 생산한다.

139/ 평양시 선교구역에 소재하며 연간 30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한다.

140/ 연간 200만 켤레의 운동화, 사출장화, 신발창을 생산한다.

장과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이 있으며, 식품 최종재 공장으로는 평양 어린이식료공장과 평양기초식품공장 등의 중대형 식품공장들이 소재하고 있다. 선흥식료공장과 대동강식료공장이 중요 공장으로 언급된다.

표 IV-8 식료가공업

■ 평양곡산공장	■ 평양밀가루종합가공공장	■ 평양어린이식료공장
■ 평양기초식품공장	■ 평양장류공장	■ 평양냉천시아다공장
■ 평양청량음료공장	■ 대성산샘물공장 ^{141/}	■ 평양요구르트공장
■ 은정차음료공장 ^{142/}	■ 만경대김치공장	■ 광복거리김치공장
■ 평양맛내기공장	■ 평양일용품종합공장	■ 선흥식료공장
■ 평양담배공장 ^{143/}	■ 평양담배종이공장	■ 9월27일닭공장

출처: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nkp>) 등을 참조하여 필자 정리.

마. 건재공업

최근 북한은 건설 건자재를 국내에서 생산 조달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매년 개최하는 ‘5.21건축축전’을 통해 건설자재 전시도 하고 있다. 건재공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144/} 평양의 건재공업 공장은 건재건설공업성과 금속공업성의 지도를 받고 있다.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와 승호리시멘트공장 등은 건재건설공업성 산하 시멘트공업관리국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평양

141/ 평양시 대성구역에 소재하며 2018년에 건설되었다. 김정은이 직접 공장명, 배치 계획, 설계안을 지도했다고 한다.

142/ 2022년 준공하였다.

143/ 고급 담배인 칠보산, 홍토, 평양 등은 회령의 대성담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주로 고급 당간부에게 공급된다.

144/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건자재 종류와 생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했고 중국으로부터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다. 변상욱, “북한의 건재산업,” 『월간 건축사』, vol. 629, 2021년 9월호, <<https://kiramonthly.com/1180>> (검색일: 2023.12.15.).

금속건재공장 등은 금속공업성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5/}

표 IV-9 건재공업

-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 승호리시멘트공장 ■ 평양광학유리생산협동조합
- 평양금속건재공장 ■ 보통강유리기구공장 ■ 7월28일요업공장
- 8월17일부재공장 ■ 천리마타일공장 ■ 평양정향건재공장

출처: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nkp>) 등을 참조하여 필자 정리.

바. 화학 및 제약공업

화학공업의 경우 평양의 공장들은 북한 주요 매체 보도 빈도 상위 10대 기업에 2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다. 평양화장품공장(화장품, 치약, 기타 화학일용품 생산)과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합성수지 및 수지제품 생산)이다.^{146/}

표 IV-10 화학 및 제약공업

- 평양화장품공장 ■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147/} ■ 평양제약공장
- 평양정성녹십자제약공장^{148/} ■ 평스합영회사^{149/} ■ 만년제약공장
- 애국예방약공장

출처: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nkp>) 등을 참조하여 필자 정리.

^{145/} 위의 자료.

^{146/} 이석기, “KIET 북한 산업·기업 DB를 통해 본 북한의 산업 및 기업 현황,” p. 48.

^{147/} 합성수지 및 수지제품을 생산한다.

^{148/}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에 소재. 한국 녹십자사와 북한의 광명성총회사가 각기 311만 달러를 50:50으로 투자하여 2000년 9월 준공하였다. 남북한 최초의 제약합작공장이다.

^{149/} 스위스와외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사. 군수공업

평양에는 또한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많은 군수공장들이 소재하고 있고 대부분 첨단 군수시설이다. 북한의 군수공장은 크게 전문 군수공장, 일반 군수공장, 그리고 전시 동원공장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문 군수공장은 제2경제위원회 소속이며, 일반 군수공장은 인민무력성 소속이며, 전시 동원공장은 제2경제위원회와 내각 소속이다.

평양의 군수공업 및 공장들은 일반 공장들과는 달리 대체로 제2경제위원회 소속이며 산하의 기계공업국에 의해 관리를 받고 있다. 평양 군수공장들은 대체로 제2~7기계공업국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평양반도체공장과 평양1월25일공장 등은 제4기계공업국의 지도를, 평양보통강전기공장과 평양충전계기공장 등은 제2기계공업국의 지도를 받고 있다.

표 IV-11 평양의 군수공장들

기업명	생산품
평양반도체공장	군용 전자부품 생산
평양1월25일기계공장	미사일 제조라인
평양보통강전기공장	발전기, 전동기
평양충전계기공장	압력계, 유량계
평양만경대약전기계공장	미사일 생산
평양제7국방공장	미사일 생산
평양불도저공장	불도저, 전차 차체
만경대기계공구공장	미사일 발사기
1월9일공장	잠수함정 계기류, 어뢰
평양탄광기계공장(3월30일공장)	유압기계, 선탄기, 군용트럭 등
평양통신기계공장	유선통신기
평양통신기계수리공장	유선통신기 생산 및 수리
평양3.26전선공장	전력 및 통신케이블선, 피복선
평양영예군인통신기계수리공장	통신기기 수리, 절연저항 측정기

기업명	생산품
평양무선기구수리공장	선박용 무전기, 무선대화기
대동강축전지공장(245호건전지공장)	군용건전지, 축전지
평양광학렌즈공장	렌즈
만경대보석공장(1329호공장)	화포 조준기, 레이더 측거계기
11월20일공장	건설기계, 기갑차량
룡성베어링공장(9월18일공장)	각종 베어링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패션 역사·군사의 아침안개 블로그, “북한 군수공장 시리즈⑧: 평안남도 평양시(平壤直轄市)에 소재한 군수공장 및 시설,” 2011.2.4., <<https://m.blog.naver.com/citrain64/100121357421>> (검색일: 2023.12.14.)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3. 김정은 정권 시기 평양 공장 동향

김정은 정권 시기, 평양 공장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그리고 2020년에 들어와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심각한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평양 공장들의 동향을 간략하게 추적 정리한다. 전국 비교 동향은 KIET DB를 통해서 소개하고, 그 밖의 평양 공장(에너지 광공업 및 주요 공장 중심) 동향은 2019~23년 기간의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들을 통해서 정리한다.

가. 평양 공장들의 전국 비교 동향

먼저 KIET DB를 이용하여 북한 전역에서 어떠한 공장 기업들이 작동하였는지 역으로 어떤 기업들이 움직임이 없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이는 2010~2022년 동안 북한 매체에서의 보도 빈도 수 전국 상위 10개의 기업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평양을 큰 틀에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150/}

첫째, 이 시기 금속공업의 경우 평양의 기업들 중 보도 빈도 상위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 없었다.^{151/} 둘째, 화학공업의 경우 평양의 기업들 중 보도 빈도 상위 10대 기업에 2개의 기업이 들어갔다. 평양화장품공장(화장품, 치약, 기타 화학일용품 생산)과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합성수지 및 수지제품 생산)이다.^{152/}

셋째, 기계공업의 경우 평양은 보도 빈도 상위 10대 기업에 2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다. 평양베어링공장(기계부품 및 금속가공)과 평양방직기계공장(섬유 및 의류용 기계)이다.^{153/} 넷째, 섬유의류업의 경우 평양은 보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온다(〈표 IV-12〉 참조). 평양의 대규모 섬유공장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섬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섬유)이 보도가 가장 많이 된 평양 기업이다. 평양양말공장(의류)과 선교평직공장(의류) 등의 기업의 보도 빈도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

표 IV-12 섬유·의류업 보도 빈도 상위 10개 기업

기업명	세부 업종	소재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섬유	평양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섬유	평양시
원산구두공장	신발가방	강원도 원산시
신의주방직공장	섬유	평안북도 신의주시
함흥모방직공장	섬유	함경남도 함흥시
사리원방직공장	섬유	황해북도 사리원시
평양양말공장	의류	평양시

150/ KIET는 2010~2022년 기간 동안 북한의 『노동신문』 등에서의 보도 빈도수(현황)를 통하여 대표적인 산업 및 지역의 핵심 기업들(상위 10대 기업 기준)을 분석하였다. 이석기, “KIET 북한 산업·기업 DB를 통해 본 북한의 산업 및 기업 현황,” p. 47.

151/ 위의 글, p. 48.

152/ 위의 글, p. 48.

153/ 위의 글, p. 49.

기업명	세부 업종	소재지
박천견직공장	섬유	평안북도 박천군
9월방직공장	섬유	자강도 강계시
선교평직공장	의류	평양시(선교구역)

출처: 이석기, “KIET 북한 산업·기업 DB를 통해 본 북한의 산업 및 기업 현황,” p. 49.

다섯째, 식품가공업의 경우 평양의 기업들이 압도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0대 기업 중에서 평양 소재의 기업이 60%를 차지하고 있다(〈표 IV-13〉 참조). 대규모 음식료 원자재 공장(곡물 및 기타 식료가공)으로서는 평양곡산공장과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이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식품 최종재 공장으로는 평양어린이식료공장과 평양기초식품공장 등의 중대형 식품공장들의 보도 빈도수가 높았다, 선흥식료공장과 대동강식료공장도 전국적으로 중요한 공장으로 언급되었다.

표 IV-13 식품가공업 보도 빈도 상위 10개 기업

기업명	세부 업종	소재지
평양곡산공장	곡물 및 기타 식료가공	평양시
평양밀가루가공공장	곡물 및 기타 식료가공	평양시
평양어린이식료공장	일반식료	평양시
수성전종합식료공장	일반식료	함경북도
평양기초식품공장	일반식료	평양시
선흥식료공장	일반식료	평양시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일반식료	강원도 원산시
대동강식료공장	일반식료	평양시
창성식료공장	일반식료	평안북도 창성군
신의주닭공장	곡물 및 기타 식료가공	평안북도 신의주시

출처: 이석기, “KIET 북한 산업·기업 DB를 통해 본 북한의 산업 및 기업 현황,” p. 50.

나. 팬데믹 시기 평양 공장들

2020년을 전후해서 평양의 공장들은 상당한 난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후 좀 더 격화된 경제난과 2020년에 본격화된 코로나 팬데믹이 평양 공장에 직격탄을 때렸다. 2019년 3월 초에 평양의 상당수의 국영기업소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북한 경제도 기대했던 거품이 빠져나가면서 상당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 전역에서 경제난이 심화되었고 평양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3월 첫 주에 평양의 앞에 숫자가 들어가는 대부분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154/}고 전언하고 있다. 여기서 공장명에 “숫자가 들어간 기업소는 평양3.26전선공장, 5월7일공장, 8월17일부재공장, 7월28일요업공장, 6월1일청년전기기구공장, 10월5일자동화기구공장, 9월27일닭공장, 대동강축전지공장(245호공장), 평양탄광기계공장(3월30일공장) 등”을 말한다.^{155/}

한편 평양방직공장, 평양필름공장, 평양곡산공장, 평양타이어공장, 평양베어링공장을 비롯한 대형 공장들도 전기·자재 부족 문제로 2019년 3월 초부터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이후 공장들이 자체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월급과 식량을 배급해 왔으나 가동이 멈춤에 따라 수만 명 이상의 평양 노동자들이 실업상태가 되었다. ‘일거리가 없으니 출근하지 말고 장사로 각자 도생하라’는 지시도 하달되었다는 전언이 있다.^{156/}

154/ “평양 국영기업소 상당수 가동 중단 … “회담 결렬 후 희망 잃어”, 『Daily NK』, 2019.3.26.

155/ “북한에서 기관 명칭에 들어간 숫자는 김일성, 김정일 현지도 날짜이거나 기념일이다. 즉 이 기관들은 북한 당국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주요 기업소”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자료.

156/ “일감 끊긴 평양 공장 “노동자들, 살길 찾아라”, 『북한개혁방송』, 2019.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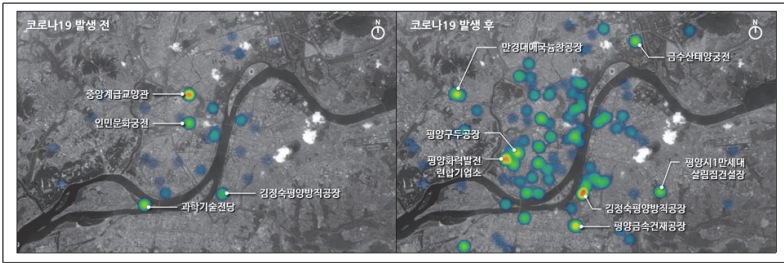
2019년의 난관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곧바로 연결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2020년 1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과감하게 코로나19 대응조치를 도입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을 완전히 봉쇄하였다. 이로 인해 북중 간의 교역과 거래가 완전히 끊어졌으며 대중국 역외가공 무역도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전역의 공장 가동이 대부분 중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평양 공장들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공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은 다양한 경제적 압박(실업과 빈곤화)에 직면하였다.

팬데믹 시기 평양 공장들은 대부분 가동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공식 매체에서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간접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평양의 선전활동 장소가 주로 중앙계급교양관, 인민문화궁전, 과학기술전당,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등에서 이루어졌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중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문화 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선전활동을 위한 장소가 변화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평양금속건재공장, 평양구두공장,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건설장(송신-송화지구), 금수산태양궁전 등에서 선전활동이 이루어졌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공업·경공업·건설업 등의 산업 현장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157/} 팬데믹 시기 동안 주민의 선전 활동이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산업시설의 가동률 저하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158/}

157/ 안진희, “팬데믹 전후 평양 도시 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112권 (2022), pp. 13~14.

158/ “로동신문은 2020년 6월 6일부터 23일까지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항의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이 담긴 16장의 사진을 게재했음. 배경이 된 장소는 평양종합병원건설장(2장),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청년공원야외극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역전

그림 IV-6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양의 주요 선전 활동 거점



자료: 안진희, “팬데믹 전후 평양 도시 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 p. 14.

물론 팬데믹 상황에서 가동 중인 것으로 보도된 공장들도 있다. 2020년 12월에 이른바 ‘80일 전투’를 통해 생산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오늘』에 따르면, 선교편직공장, 평양양말공장, 애국 편직물공장, 평양어린이편직공장 등에서 80일 전투기간에 수십 종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들 공장들은 공히 내각의 경공업성 편직공업관리국 산하 공장들이다.^{159/}

한편, 북한 매체들은 2021년에 들어와 그간 가동이 멈추었던 공장들의 공장 설비 재구축 움직임을 보도했다. 평양3.26전선공장의 사례는 현재 평양 공장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8차 당대회 이후 경제 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에 따라 이 공장에 대한 검열을 실시했고 파철, 파동, 파알루미늄, 파비닐, 파유리, 파고무 등 각종 폐기물을 수매하지도 않고, 재자원화 공정 설비도 갖추지 않는 등 재자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 공장 노동자들이 파동이나 파알루미늄, 파고무 등 돈이 많이 나가는 것들은 몰래 빼돌려 장마

대대, 중구역 내 미확인된 시설, 평양자동화기구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 락랑궤도전자사업소, 평양블록공장, 서평양기관차대, 김철주사범대학,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평양출판인쇄대학으로, 다수의 산업 시설을 포함”한다. 위의 글, p. 15.

^{159/}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성과 이룩,” 『조선의 오늘』, 2020.12.28.

당이나 밀거래로 팔아버리고 돈이 얼마 안 나가는 파비닐, 파유리들은 ‘꼬마계획’^{160/}을 위해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당시 공장과 노동자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보도이다. 그리하여 북한 당국은 이 공장에 폐기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설비를 건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수도건설여단 소속 기술돌격대 1개 대대가 이 공장 구내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공사에 나섰음을 전언하고 있다.^{161/} 또다른 사례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이다. 2021년 1월 『조선의 오늘』은 이 공장이 폐수의 재자원화기술을 개발하고 견단백질 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162/} 이 공장의 본업인 제사가 아니라 폐수를 이용해서 견단백질 비료를 생산했다는 것이다. 이 공장들의 계획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 공장 재건과 재가동 노력

2021~22년 초에 정상적인 가동을 보이는 공장들도 있다. 노동신문은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만경대구역)이 재건(리모델링)되었음을 보도했는데, 여러 생산현장과 통합지령실, 기술발전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갖춘 전자의료기구공장이 건설되었음을 밝혔다.^{163/}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이 무궤도전차 생산 시설을 현대화하였고,^{164/} 동평양금속건구공장이 평양 건설에 필요한 각종 금속건구제품을 생산보장하고 있으며,^{165/} 평양건재공장이 생산공정 현대화를 통해 각종 타일

160/ 학생이나 소년단원들에게 폐자재 수집을 할당한 계획을 말한다.

161/ “평양326전선종합공장, ‘재자원화’ 등한시해 黨조직부 검열 받아,” 『DAILY NK』, 2021.4.9.

162/ “생산폐수를 리용한 견단백질생산공정 확립,” 『조선의 오늘』, 2021.1.17.

163/ “개건현대화된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준공,” 『노동신문』, 2021.1.23.

164/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활성화를 추동,” 『통일의 메아리』, 2021.2.1.

165/ “수도건설에 이바지하는 동평양금속건구공장,” 『조선신보』, 2021.4.22.

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166/} 평양건설기계공장도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167/}

2022년 하반기의 경우, 평양창광옷공장, 모란피복공장, 형제산피복공장 등에서 공장을 풀가동해 여름철 학생교복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을 보도하였고,^{168/} 또한 평양목재공장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다’고 보도하였고,^{169/} 평양식료품포장재공장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여 혁신으로 이끌어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170/}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러시아측의 군복을 임가공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전언이 있는데, 평양 은하피복공장 등에서 러시아 군복을 임가공 형태로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171/}

2023년에도 평양의 공장들이 어떻게 생산을 고조시키는지를 보도하고 있다. 천리마타일공장(2009년에 설립)은 타일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재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지 못했지만, 원자재와 유약생산설비들도 자체의 힘으로 제작, 설치했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천리마’ 타일은 평양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계단식)주택구, 검덕지

166/ “생산공정 현대화 ... 마감건제품 국산화 성과,” 『내나라』, 2021.7.13.

167/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노동신문』, 2022.1.22.

168/ “계절에 따르는 학생교복생산성과 계속 확대,” 『조선중앙통신』, 2022.5.26.

169/ “심금을 울리는 현장정치사업,” 『노동신문』, 2022.9.19.

170/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여 혁신으로 이끌어 주고 있다,” 『노동신문』, 2022.10.30.

171/ 은하피복공장을 포함해 평양의 3개 공장에서 러시아 군복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성된 군복은 2022년 11월 2일 재개된 북러 화물열차(두만강-하산열차)로 운송된다고 한다. 군복 생산은 러시아가 원단을 제공하고 평양 피복공장들이 군복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북, 우크라 참전 러시아 군복 임가공 대량 주문받아,” 『RFA』, 2022.11.7.

구살림집건설 등 중요 대상건설에 필요한 타일을 원만히 생산 보장했다고 보도했다.^{172/} 평양주철관공장은 중요 대상건설장들에 보내 줄 주물품 생산을 다그치는 곳이라고 보도하였고,^{173/} 2019년 3월 초에 가동이 멈추었던 것으로 알려진 평양곡산공장이 “해마다 기술혁신, 창의고안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제도가 좋아 마음껏 배우며 일한다”고 보도하고 있다.^{174/}

현재 평양 공장의 가동률은 알려져 있지 않고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 다만 많은 주요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었으며 여전히 정상가동이 힘든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군수공장도 예외가 아니다. 2019년 통일연구원 조사에서 북한의 서부지역 공장 가동률을 약 50% 전후로 추정한 결과를 감안했을 때,^{175/}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평양의 공장가동률은 더욱 현저히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평양의 노동자 공간: 역사, 계토화, 젠트리피케이션

평양의 공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노동자 공간은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공장 도시는 공장과 노동자가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노동자들의 삶도 가동을 멈춘다.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평양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비정상적 상태가 되면 노동자들의 공간도 비정상성으로의 압박을 받게 된다. 현재 이러한 연동 현상이 평양의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평양의 노동자 공간들이 어떤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

172/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내나라』, 2023.2.21.

173/ “혁신창조의 기상 넘치는 곳,” 『조선의 오늘』, 2023.7.31.

174/ “제도가 좋아 마음껏 배우며 일합니다,” 『노동신문』, 2023.11.27.

175/ 정은이 외,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9).

는지를 정리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래의 사회주의적 주택 소구역 체제가 점차 붕괴하면서 한 축에서는 게토(ghetto)화의 양상이, 다른 한 축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가. 평양의 노동자 공간, 역사

소련과 동유럽 등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적으로 설립된 도시들은 특히 노동자 공간 기획에서 유사한 구조를 보여준다. 대체로 소련의 마이크로 디스트릭트(micro-district) 개념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935년 소련은 모스크바 플랜(General Plan for the Reconstruction of Moscow)을 통해 마이크로 디스트릭트(mikrorayon) 혹은 슈퍼블럭^{176/}을 건설했고, 대체와 변화를 거쳐 흐루쇼프(Nikita Khrushchov) 때 본격화되었다.^{177/} 이 계획에 따라 공장 지대가 형성되면 그 주변에 상업지구와 노동자들의 주거지, 그리고 놀이공원, 녹지, 경기장 등이 자리 잡았다. 1958년 7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건축사연맹(IUA: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현재 UIA의 전신) 대회는 마이크로 디스트릭트를 사회주의 국가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거지 계획 원칙으로 결정했다.^{178/} 동유럽뿐 아니라 중국으로도 이식되었는데, 소구(小區: 소구역) 체제인 단웨이(單位)가 그것이다.^{179/} 중국의 단웨이는 중국

176/ 스탈린 시기에는 마이크로 디스트릭트를 슈퍼블럭으로 대체해서 불렀다.

177/ 마이크로 디스트릭트(mikrorayon)는 75~125에이커 면적에 5,000~1만 5,0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단위를 의미하였다. Duanfang Lu, *Remaking Chinese Urban From Modernity, Scarcity and Space, 1945-2005*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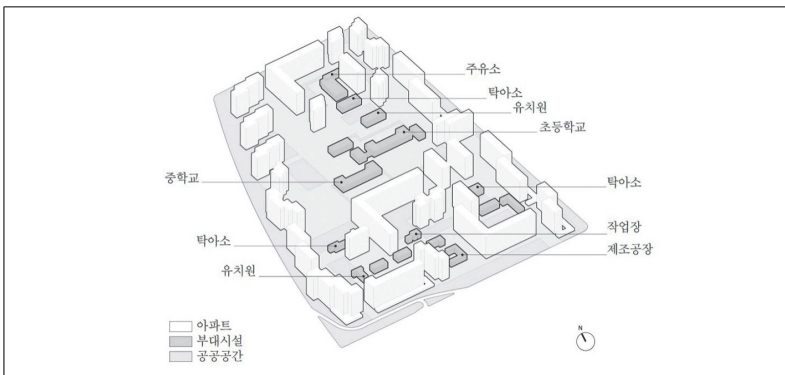
178/ 당시 북한은 김정희를 단장으로 해서 이 대회에 참여했다. 북한은 마이크로 디스트릭트를 '주택 소구역'이라고 명명했다. 북한의 모든 주거 계획안들은 주택 소구역의 원칙을 따랐다.

179/ 이종겸, "북한의 도시경관 조성과 경관통치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도시에서 생산과 생활 공간이 결합된 공간적 복합체로서 실행된 자급자족적 체제였다.^{180/}

북한 또한 1950~60년대에 주요 14개 도시에 이러한 마이크로 디스트릭트 방식을 접목시켜 현지화시켰는데 이를 ‘주택 소구역’이라 한다.^{181/} ‘주택 소구역 계획’을 통해서 평양은 자급자족적 구조를 갖추도록 계획되었다. 공장·기업소 근처에 학교, 탁아소, 거주지 등을 함께 묶어 놓는 주택 소구역을 통해 직주근접(職住近接)과 도농근접(都農近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182/} 1970년대에 이르면 생산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장의 공원화’^{183/}도 추진되었다.

그림 IV-7 평양의 일반적인 주택 소구역 체제



자료: 임동우, 『도시화 이후의 도시』 (서울: 스리체어스, 2018), p. 42.

박사학위논문, 2023, pp. 39~40.

180/ 단위의 기능과 작동에 대해서는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서울: 박종철 출판사, 2001)의 해당 내용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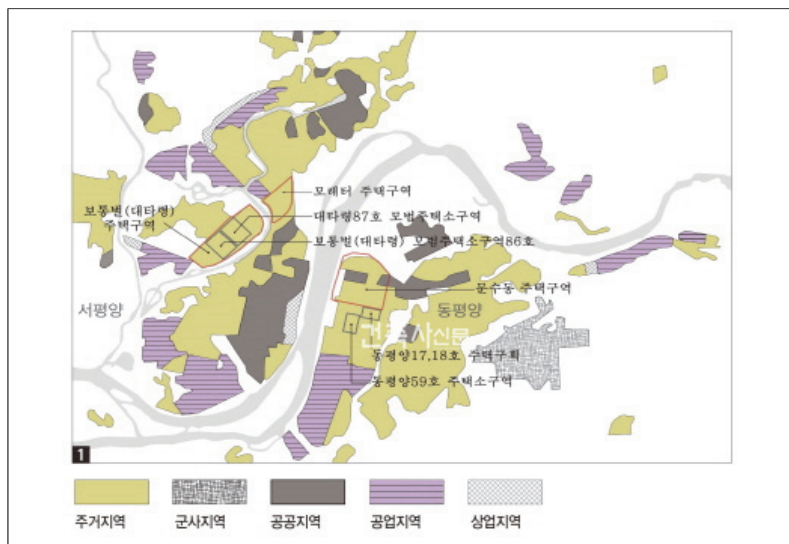
181/ 북한의 ‘주택 소구역’에 대해서는 김민아,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을 참조.

182/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대해서는 리순건·백완기, 『주택 소구역 계획』 (평양: 국립건설출판사, 1963)을 참조.

183/ 공장과 직장의 합리적 배치를 꾀하고, 그 사이에 녹지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p. 149.

북한에서 주택 소구역 체제가 중요했던 이유는 토지 및 건축물의 국유화와 무상배급, 전반적인 의무교육제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복지 체제가 물리적 공간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 소구역 체제로 인해 개별 노동자들의 이동과 직업 및 주거 공간의 선택권이 박탈되었다.^{184/}

그림 IV-8 1960년대 후반 평양의 용도지구지도 및 주요 소구역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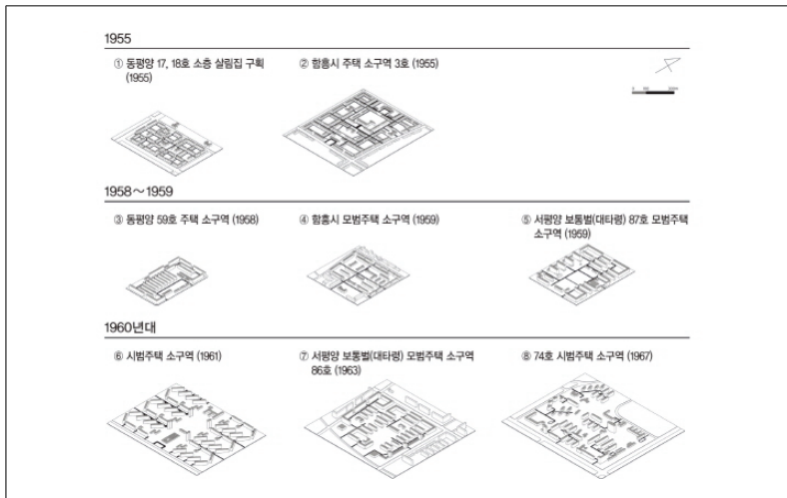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북한의 국토개발편람』, 1992, p. 168, 재인용: “북한 주택 소구역 계획의 변화와 미래,” 『건축사신문』, 2018.10.1.

평양의 지역적·지리적 구분은 대체로 본평양, 동평양, 서평양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대동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평양의 노동자들은 본평양에 비해 동평양에 주로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북에 비해 강남에 주거지가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184/} 김민아,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p. xiii.

평양의 노동자 주거지는 1930년대 동평양 개발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24년 동평양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대동강구역에 대동교 건설과 함께 일본의 대기업 공장과 노동자 주거지를 건설했다. 6.25전쟁 이후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1954년 전후 복구과정에서 이 지역에 300여 세대의 노동자 주택을 설립하였다.^{185/} 이때 지어진 대표적인 다층주거 건축물이 ‘평양노동자아파트’였다.^{186/} 이후 동대원구역과 선교구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아파트가 대규모로 건설되었고 동평양의 모습이 골격을 갖춘다. 주택 소구역 계획을 바탕으로 “1958년에는 동평양 지역을 개발하였으며, 1959년에는 모범 소구역 지역으로서 서평양의 대타령 지역을 전면적으로 개발했다.”^{187/}

그림 IV-9 1950~60년대 건설된 북한의 주요 주택 소구역 경과



자료: “북한 주택 소구역 계획의 변화와 미래,” 『건축사신문』, 2018.10.1.

185/ 이시호·김성배·김명희, “평양 일탈공간 연구,” p. 77.

186/ ‘평양노동자아파트’는 소련의 건물 외관을 그대로 이용했다. “전후 복구와 공동 살림집(아파트) 건설,” 『건축사신문』, 2018.9.1.

187/ “북한 주택 소구역 계획의 변화와 미래,” 『건축사신문』, 2018.10.1.

1980년대 초반에 동평양의 대동강구역에 문수거리가 조성되면서 새로운 풍광이 등장하였다.^{188/} 물론 동평양 지역에 1990년대 초 통일거리가 건설되었고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였다. 하지만 전력사정이 좋지 않고 엘리베이터도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수거리 아파트가 가장 선호하는 공간으로 등장하였다.^{189/} 문수거리는 2000년대에 들어와 돈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공간의 성격이 점차 변한 것이다. 대동강구역은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노동자들도 대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노동자 거주지역인 셈이다.^{190/} 그럼에도 대동강구역은 동쪽과 서쪽 지역이 서로 다른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서쪽은 문수거리로 변찍이는 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쪽은 땅집^{191/}들이 집중되어 있고 골목들에는 공장들과 노동자들의 주거지가 존재하고 있다.^{192/}

한편 6.25전쟁 이후 북한은 평양을 계획적으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까지 시가지를 확장하여 현재는 대동강이 평양시의 중심부를 관통하게 되었으며,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이 평양에서 합류하게 되었다. 대동강을 기준으로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을 구분하는데, 강북 지역에는 북한의 주요 기관들이 소재하고 있고 강남 지역은 강북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이며 평양 노동자들의 거주지이다. 통일거리 사업 이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188/ 이시효·김성배·김명희, “평양 일탈공간 연구,” p. 79.

189/ 위의 글, p. 82.

190/ 주말에는 개성공단 근무 노동자들이 평양 개성 고속도로를 통해 거주지로 귀환한다. 위의 글, p. 82.

191/ 땅집은 오래된 일반주택으로 아파트와 구별된다. 평양의 경우 주로 평양 외곽, 개발되지 않는 도시내부, 혹은 공장지대에 남아있다.

192/ 위의 글, p. 95.

2020년대 평양에서의 주거지는 비대칭성과 불평등성을 갖는 구조로 형성되었다. 평양의 화성구역(舊 룡성구역)과 중구역에는 최고 위층의 주거지역이 있다. 화성구역의 경우, 주석궁인 ‘룡성관저’가 있으며 김일성 일가들의 주택단지와 최측근, 최고위층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대하고 웅장한 주택들, 도로연결망, 편의시설 등이 존재하고 있다. 원래 룡성구역은 1959년 순안군(현 순안구역)과 대성구역의 일부를 분리하여 신설되었다. 2022년 화성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룡성구역의 일부가 화성구역이 되었는데, 이 지역이 최근 화성구역 주택이 건설되던 곳의 주변으로 편입되었다. 이 지역은 군수공장들이 밀집된 곳으로 유명하며, 특히 미사일 개발 시설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구역에는 국가주요기관과 최고위층의 주거지역이 입지해 있다. 모란봉구역과 보통강구역도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평천구역은 공장들이 즐비한 공장지대이다. 평양화력발전소, 10월5일전기공장, 평양326전선공장, 평양베어링공장 등이 위치해 있고 인근공장의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아파트 1개층에 4가구씩 배치되는 ‘탑식 아파트’라고 불리는 비교적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평천구역은 “공장이 밀집해 공장 굴뚝마다 뿜어져 나오는 탄재가 날리는 지대”로, “한 시간만 바깥에 나가 있어도 얼굴이 새까맣게 될 정도”라고 한다. 또한, 평천구역에는 “만수대 창작사”라는 영화 제작소가 있지만 예술인들보다 제작에 관여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3/}

193/ 평양에서 23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도 평천구역의 노동자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 보다는 중산층과 고위층이 분양을 받았다는 전언도 있다. “평양 붕괴 아파트 노동자만 거주 ... 간부들은 없다,” 『데일리안』, 2014. 5. 19.

나. 최근 노동자 공간, 게토(ghetto)화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최근 평양에서는 사회주의적 주택 소구역 체제와 직주근접 모델이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 도시들의 마이크로 디스트릭트들이 그랬듯이 북한의 주택 소구역 체제도 시장의 힘이 들이닥치면서 용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시장과 주택 소구역 체제는 공존하기 힘들다. 주택 소구역 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건물/건설주이며 전문 건설단위가 시공한다. 거주지 건물이 완성되면 국가의 계획적 배분체계를 통해서 무상으로 노동자에게 배급된다.^{194/}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난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러한 공식적인 노동자 주택 배분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은 잉여가 많이 생겨나는 대규모 사업이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치중하게 되었고, 노동자용 주택건설은 정책적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였다.^{195/}

대신, 현재 북한에서 노동자와 주민들의 주거지 건설은 공장·기업소와 기관 등 직장단위에 할당하는 배정체제로 변형되었다. 기관 및 기업소는 건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자원을 가용할 수 있는 돈주들을 끌어들여 주거지 주택 건설을 진행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기관 및 기업소가 돈주에게 부지를 제공하면 돈주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표 IV-14〉 참조).^{196/} 이 경우 신규 주택의 고객

194/ 북한에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계획에 의해 노동자들이 직장에 배치되고 거주지는 직장 인근(직주근접)에 국가가 계획에 의해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길경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민적 시책의 우월성과 특성,” 『경제연구』, 2008년 4호 (2008)를 참조.

195/ 홍순직, “김정은 시대의 도시 주택 건설 정책의 특징,” 『아시아리뷰』, 제13권 제1호 (2023), pp. 51~52.

196/ 위의 글, pp. 51~52.

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매자는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주택 분양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된다면 노동자 공간에 거주하던 기존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신규 주택을 감당하기 점차 힘들어질 것이다.

표 IV-14 노동자 거주지 공급의 비공식 구조

	행정당국	국영기업소	돈주
주요 역할	• 인허가(건설위치 지정서, 건설 명세서 등) • 설계기관에서 주택 설계도면 작성	• 돈주와 당국 간 주택 건설을 공식화하는 역할 수행 • 민간 공급 주택을 국영 기업소 주택으로 처리	• 주택건설 비용 조달(자금, 자재, 노동력) •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행정관계자들의 비공식적인 요구비용 총당
권한	• 인허가권 보유	• 주택 배급 권한	• 건설비용 투자
이해 관계	• 재정지원 없이 주택 공급 확대 효과 • 관계자들의 비공식적 수입(주택 혹은 현금)	• 해당 기업소의 주택 공급 실적 효과 • 관계자들의 비공식적 수입(주택 등)	• 수익 창출(투자자금의 30% 내외)

자료: 박세훈 외,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 (안양: 국토연구원, 2016), p. 71. <표 4-4>를 필자 일부 수정.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평양의 주요 살림집 건설계획을 보면 북한의 노동자 거주지 정책의 전반적인 구상을 살필 수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만 가구씩 총 5만 가구의 살림집 건설 계획을 기획했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살림집 거리 조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리하여 2022년에 송화거리와 경루동지구를 완공하였고, 2023년에 화성거리(화성거리, 9.9절거리지구)^{197/} 1단계 사업을

^{19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화성지구는 화성구역(2022.4.15.), 화성거리(2023.1.15.)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화성지구의 행정구역명칭을 정함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2.4.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평양

완공하고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서포 지구에 4,100세대 건설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일반 노동자 거주지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계획으로 공포된 것은 송화거리 건설뿐이다.^{198/}

평양 외곽지역의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는 동평양 지역이며 평양 남부의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이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입주 대상은 “집사정이 곤란하던 평범한 근로자들”이다. 입사 순위는 철거지역 주민, 지구 소재 사령부 산하 기지·공장 종업원, 호위국 산하 식료품공장 종업원, 무의무탁자 순이라고 밝혔다.^{199/} 송화거리 지역은 이전부터 수질이 매우 좋아 대동강맥주공장, 대동강식료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등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송화거리 아파트(<그림 IV-10> 참조)에 과연 노동자들이 입주해 있는 노동자 공간인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듯하다.

시 화성구역의 거리, 동이름을 정함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3.1.17.

198/ 2023년 설날을 맞아 북한은 “조국청사에 특기할 해 2022년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곳의 입사 세대주는 100% 노동자로 편성되었음을 밝혔다. Youtube, “조국청사에 특기할 해 2022년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https://www.youtube.com/watch?v=3Sen-cQSQ1s>> (검색일: 2023.12.15.).

199/ “송신·송화지구 살림집 준공검사 중 … 입사 대상자 순위도 정해져,” 『Daily NK』, 2022.1.20., 재인용: 김두환, “최근 북한의 살림집 건설정책,” 이영훈 외,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p. 55.

그림 IV-10 송화거리 80층 살림집



출처: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상징하는 인민의 새 거리들로 눈부신 평양의 모습,” 『노동신문』, 2023.6.14.

표 IV-15 경루동지구와 송화거리 살림집 건설 비교

	경루동 지구	송화거리
위치	본평양 보통강구역(평양 핵심지역)	사동구(평양 동쪽 외곽지역)
건설기간	2021.3월 말~2022.4.13.	2021.3.25.~2022.4.11.
규모	약 800세대, 부지면적 12만m ²	약 1만 세대, 부지면적 56만m ²
밀도	65호/ha	180호/ha
설계 특징	- 산비탈 원형의 지형을 살려 친자연, 친환경성 강조 - 다락식 고급주택의 새유형	- 주거생활의 실용성, 편리성 보장 - 건축물의 입체적 외관, 건물들 간의 연결성 강조
입주자	모범적인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 등	입주 순위 기준을 정해 배정(철거 지역 주민, 지구 소재 기지 및 공장 종업원 등)

출처: 나토지주택연구원, “평양 경루동지구 및 송화거리 살림집 지구 건설의 특징과 함의” 『북한 건설 개발 동향』, 2022년 2분기 (2022), p. 6. [표1]을 필자 일부 수정.

김정은 정권의 평양 노동자 공간에 대한 정책들의 현실적 경향(의도와 비의도를 넘어서)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평양에

서 대규모 공장기업소들의 가동정지로 인해 노동자 공간과 거주지에 대한 정책과 배려가 질적으로 변화하였다. 노동자 공간에 대한 분배가 당국에 의한 계획적 분배가 아닌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지게 되었다. 일종의 ‘노동자 공간에 대한 시장화’가 진행된 것이다. 이것은 평양의 노동자 공간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생산을 중심으로 한 공장 도시 평양 자체가 점차 유행과 소비, 서비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장 도시가 갖는 생산 이미지는 많은 부분에서 후퇴하였고,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공간에 대한 당국의 배려도 상대적으로 동요(후퇴)하고 있다.^{200/}

셋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기업관리에서 특히 노무부문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상황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공장 노동이 임시적 기반(가령 일공, 주공, 월공 등)에 의해 외부화되거나 혹은 노동시장화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201/} 따라서 주택 소구역과 같이 집합적으로 거주하는 특정한 노동자 공간이 이전과는 달리 필연성을 갖지 않게 되었다. 직주근접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부문의 기동성과 임시성이 주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경향들은 두 가지 현상을 낳고 있다. 노동자 공간의 게토(ghetto)화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다. ‘게토화’는 이전에 노동자 공간이었던 지역이 전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즉 노동자 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이상 당국의 정책적 고려대상이 아니

200/ 생산자(노동자)를 향한 포퓰리즘에서 (구매력을 지닌) 소비자를 향한 포퓰리즘으로 당국의 정치적 기획이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201/ 일공, 주공, 월공 및 노동시장(인력시장)에 대해서는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日工)과 혼종성,” 『북한학연구』, 제16권 제1호 (2020)를 참조.

게 되어 개발 없이 방치되거나 계획 당국의 정책선 상에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시 계획상 공장 공간은 도심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이 공간은 유향화되고 미개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교구역과 대동강구역의 노동자 공간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와 그 이후에 선교구역은 평양 최대의 미개발지이며, ‘평양의 자강도’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 방치되었다.^{202/} 심각한 경제난으로 공장가동이 멈추게 되면 어떤 고통스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2023년 현재에도 선교구역은 땅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언되고 있다. 대동강구역 역시 문수거리를 제외하면 여전히 공장들과 이른바 땅집들이 몰려 있다.^{203/} 현재 평양에서 땅집은 평양 외곽과 공장 지대가 있는 대동강 남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204/} 이러한 노동자 공간의 계도화는 전통적인 공장 공간이었던 지역들이 당국에 의해 선택적·부분적으로 개발된다면,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화와 개발이 더욱 확산되면 중국적으로 전통적 의미(직주근접)의 노동자 공간은 평양의 풍광에서 점차 사라져 가게 될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일종의 평양 ‘변질’(變質)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사회주의 수도 평양 혹은 계획 도시이자 공장 도시 평양과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이다. 1960년대에 직주근접 혹은 중심-준위성-위성도시권으로 기획된 평양의 공간에서 현재 변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전의 계획도시 평양의 중심권이든 준위성권이든 그 지역

202/ “평양(平壤)의 슬럼가는 ‘선교구역,’” 『연합뉴스』, 1996.9.14.

203/ 이시호·김성배·김명희, “평양 일탈공간 연구,” p. 95.

204/ 인구 대비 땅집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사동구역, 대성구역, 선교구역, 형제산구역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시호·김성배·기정훈, “평양 모자이크,” 『현대북한연구』, 26권 1호 (2023)을 참조.

의 노동자 공간에서 시장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이 경제력(새로운 주택에 대한 구매력)과 정치력(협상력)에서 버티지 못하고 그 공간에서 튕겨져 나오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출현하고 있는 이른바 ‘평양의 철거민들’이 그러한 현상의 일종이다. 이들은 평양 도심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새로이 옮겨가야 한다(〈그림 IV-11〉 참조).^{205/} 시장 개혁 이후 중국 도시를 연구한 푸롱 우 등(Fulong Wu et al.)은 시장경제가 들어오면서 주택과 토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개발되는 주거는 공장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외곽 지역에 위치시켰음을 언급한 바가 있다.^{206/}

그림 IV-11 만경대구역 대평거리 살림집



출처: “새시대 평양변영기에 또다시 솟아난 인민의 보금자리,” 『노동신문/news1』, 2023.5.22.

특히 공장 도시 평양의 전통적인 공장지대인 평천구역은 평양의 강남이라고 할 정도로 부촌이 되었고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

^{205/} 2023년 5월 31일 『노동신문』은 평양시의 철거민들이 평양도심에 먼 거리에 있는 만경대구역 대평지구에 마련된 살림집으로 옮겼음을 보도하였다. “어머니당이 마련해준 행복의 보금자리에 넘쳐나는 인민의 기쁨,” 『노동신문』, 2023.5.31.

^{206/} Fulong Wu, Jiang Xu, and Anthony Gar-on Yeh, *Urban Development in Post-Reform China, State, Market and Space* (Abingdon: Routledge, 2006).

었다. 2014년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주자들의 신분은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207/} 이 공간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진 면도 있다.

당국이 평양에서 기존의 공장 도시 그리고 직주근접 모델을 더 이상 계획적으로 운용할 여력이 없어지고 점차 시장화의 급속한 속도와 방향에 몸을 맡겨 스스로를 변화시키게 된다면 평양의 노동자 공간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경향에 더욱 노출될 것이다. 이는 평양의 노동자 공간을 도시 내부에서의 계도화와 더불어 도시 외곽으로의 퇴출이라는 양방향의 형태를 취하게 할 수 있다.

5. 변화의 방향

북한 최대의 공장 도시 평양은 2020년대에 더 이상 전통적인 공장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동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중장기적으로는 근간에서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시장의 힘이 비가역적으로 이를 추동하고 있다. 둘째, 좀 더 단기적으로는 경제난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장들의 가동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거나 가동이 멈추면서 그러한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 자체가 공장과 노동자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려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결국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을 때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들의 도시들이 공장 공간과 노동자 공간 모두에서 변화의 ‘공격’을 받게 된 것처럼 평양 또한 시장의 힘에 의해 촉발된 변화 압박을 받

207/ “평양 평천구역 충복 아파트 붕괴사고로 최대 500명가량 사망한 듯,” 『서울신문』, 2014.5.23.

는 것은 불가피해지고 있다. 평양의 공장들은 더 이상 평양 도심에서 계속 존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평양의 도심에 위치한 평양 3.26전선공장, 평양방직공장 등 주요한 공장들은 그 공간을 시장과 상업시설, 그리고 새로운 주거자들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다. 평양 공장들의 넓은 공간은 시장과 상업시설이 입지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다.

경제난, 팬데믹, 그리고 시장의 힘 등으로 인해 공장 도시 평양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사회주의적으로 계획된 노동자 공간(주택 소구역 체제)에 시장의 힘이 들이닥치면서 평양은 공장 도시와는 다른 이미지의 도시로 채색되는 중이다. 평양에서는 이미 시장 공간을 중심으로 유행과 소비 등이 키워드가 되고 있고, 평양인들의 삶이 재구성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공장 도시의 면모들이 사실상 형해화되거나 희미해져 가고 있는 듯하다. 대신 다양한 시장적 양상들이 그 공백을 메우면서 평양을 이전과는 다른 공간으로 변질(變質)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공장 도시라는 평양의 이미지(혹은 정체성)와 경합을 벌여왔던 정치 도시, 상징 도시로서의 평양의 성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많이 호명되고 표출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사회주의 문명국가라는 담론 속에서 사회주의 수도 평양은 리더십의 정치적 우월성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의식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상징 도시가 되고 있다. 그 배후에는 공장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생산과 담론보다는 시장에 기반한 유행과 소비와 서비스가 도시의 내용을 채워가고 있는 듯하다.

결론적으로 공장 도시 평양의 2020년대를 분석하면 세 가지 정도의 변화 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난의 행군 이후의 경제난이 지속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김정은 정권의 계획

영역에서의 재정 역량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더해짐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평양을 더 이상 공장 도시라는 정체성으로 운용하기가 힘든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둘째, 지난 30년 동안 시장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계획영역이 상대적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이것이 공장 도시 평양에 균열과 동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공장 관리와 노동자 관리에서 시장이 투입(闖入)해 왔다. 평양의 노동자 공간에 대한 국가적 보장이 시장화되면서 노동자 공간이 오히려 주변화되고 계토화(ghetto)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평양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셋째, 평양이 시장에 기반한 유행과 소비의 도시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생산의 이미지와 기능들도 의도했든 아니든 후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양에서 ‘생산 패러다임’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평양이 서서히 퇴출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북한식 근대 혹은 사회주의 근대를 시현하고자 고군분투했던 ‘공장 도시’ 평양이 이제 시선의 지평에서 서서히 페이드 아웃(fade out)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 서울: 국가정보원, 2022.
- _____. 『북한법령집 下』. 서울: 국가정보원, 2017.
- _____. 『북한법령집 下』. 서울: 국가정보원, 2022.
- 권영덕 외. 『평양 도시계획 이해하기』. 서울: 서울연구원, 2014.
- 김경호. 『보금자리에 비긴 사랑의 세계』. 평양: 평양출판사, 202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 경제 백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리순진·백완기. 『주택 소구역 계획』. 평양: 국립건설출판사, 1963.
- 박세훈·김태환·김성수·송지은.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 안양: 국토연구원, 2017.
- 북한도시사연구팀.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연구방법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 사라 실리 저. 김정경 역.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서울: 엘피, 2007.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_____. 『조선말대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손전후. 『산업국유화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이상직·최신림·이석기. 『북한의 기업』. 서울: 산업연구원, 1996.
- 이석기·곽인옥·김석진·김연호·양문수·이영훈. 『북한의 서비스산업』. 세종: 산업연구원, 2017.
-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의 시장실태 분석』. 세종: 산업연구원, 2014.

- 이영훈·최은주·최장호·김두환·김일한.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3.
-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파주: 효형출판, 2012.
- _____. 『도시화 이후의 도시』. 서울: 스리চে어스, 2018.
- 전현준·김국신·정영태·최수영·김진환.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정은이·임수호·정승호·이승엽·김혁.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주디스 버틀러 저·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서울: 문학동네, 2008.
-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1.
- 평양출판사 편. 『여기가 평양입니다』. 평양: 평양출판사, 2021.
- 홍민 외.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홍민.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홍민·차문석·김혁.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홍민·차문석·정은이·김혁. 『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KDB산업은행. 『2020 북한의 산업 II』. 서울: KDB산업은행, 2020.
- Cerina, K. Knorr and A. V. Cicourel.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 Boston, MA: Routledge, 1981.
- Certeau, Michel de.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4.
- Jasanoff, Sheila, Gerald E. Markle, James C. Petersen and Trevor Pinch.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Thousand Oaks, CA: Sage, 1995.

- Lu, Duanfang. *Remaking Chinese Urban From Modernity, Scarcity and Space, 1945-2005*.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6.
- Wu, Fulong, Jiang Xu, and Anthony Gar-on Yeh. *Urban Development in Post-Reform China, State, Market and Space*. Abingdon: Routledge, 2006.
- Yurchak, Alexei.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2. 논문

- 김경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민적 시책의 우월성과 특성.” 『경제연구』. 2008년 4호, 2008.
- 김민아.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김영희. “최근 북한 소매상업의 현황.” 『Weekly KDB Report』. 제898호, 2020.
- 김태윤. “북한에는 산업유산이 존재하는가?: 평양의 산업시설을 통해 본 산업유산화 정책의 미래.”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제33호, 2023.
- . “근현대 평양의 도시계획과 공간변화 연구(1937-1960).”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22.
- 민경태. “평양의 산업구조 변화와 전망.” 『서울학연구』. 제84호, 2021.
- 박태호. “북한의 산업(VI): 신발산업.” 『통일경제』. 2001년 1·2호, 2001.
- 박희진. “김정일 체제의 경제적 유산과 북한경제 전망: 거점개방과 반개혁의 이중주.”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5월호, 2012.
- 안진희. “팬데믹 이후 평양 도시 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

- 사진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112권, 2022.
- 이석기. “KIET 북한 산업·기업 DB를 통해 본 북한의 산업 및 기업 현황.” 『KIET 산업경제』. 298호, 2023.
- 이시효·김성배·기정훈. “평양 모자이크.” 『현대북한연구』. 26권 1호, 2023.
- 이시효·김성배·김명희. “평양 일탈공간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4권 1호, 2022.
- 이종겸. “북한의 도시경관 조성과 경관통치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日工)과 혼종성.” 『북한학연구』. 제16권 제1호, 2020.
- 홍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북한연구: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 홍순직. “김정은 시대의 도시 주택 건설 정책의 특징.” 『아시아리뷰』. 제13권 제1호, 2023.
- LH토지주택연구원. “평양 경루동지구 및 송화거리 살림집 지구 건설의 특징과 함의.” 『북한 건설 개발 동향』. 2022년 2분기, 2022.
- Ward, Kevin and David Imbroscio. “Urban Polit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5, no. 4, 2011.

3. 기타 자료

- 『건축사신문』.
- 『내나라』.
- 『노동신문』.
- 『데일리안』.

『북한개혁방송』.

『서울신문』.

『연합뉴스』.

『원불교신문』.

『조선신보』.

『조선의 오늘』.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통일뉴스』.

『통일의 메아리』.

『한겨레』.

『Daily NK』.

『KBS』.

『news1』.

『RFA』.

『SBS NEWS』.

2017년에 탈북한 평양 출신 북한이탈주민 1씨 증언, 2023년 12월 4일
인터뷰.

2019년에 탈북한 청진 출신 북한이탈주민 2씨 증언, 2023년 12월 1일
인터뷰.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기업 DB <<http://nkindustry.kiet.re.k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ttps://snuac.snu.ac.kr/>>.

월간 건축사지 <<https://kiramonthly.com/>>.

조선의 오늘 <<https://dprktoday.com/>>.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

패션·역사·군사의 아침안개 블로그 <<https://m.blog.naver.com/citrain64/>>.

한반도 인프라포럼 <<https://kpif.or.kr/>>.

Google Map <<https://www.google.co.kr/maps/>>.

thethe03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thethe03/>>.

Youtube <<https://www.youtube.com/>>.

Google Earth Pro.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근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은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동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운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욱 외
2022-18 신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외식조사 2022	박주화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추진 방안	현승수 외
2023-10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 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운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Study Series〉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운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1 (2023)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기타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홍 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업무내용
(주) 코리아디엠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년 월 일 미동의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